

#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

－ 4~6세기 －

모리 기미유키(森 公章)

하마다 고사쿠(濱田 耕策, 제1장)

<p>序論</p> <p>제1장 4세기의 일한관계</p> <p>제1절 낙랑·대방 2군의 멸망과 일한관계 - 삼한의 동향과 왜국 -</p> <p>제2절 칠지도 명문의 일한관계 - 백제의 국가 형성과 왜국 -</p> <p>제3절 광개토왕비문의 일한관계 - 고구려·신라의 국가 형성과 왜국 -</p> <p>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p> <p>제1절 왜국·한반도 제국과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p> <p>1. 왜의 5왕과 중국 남조와의 통교</p> <p>2. 관작의 제수와 그 의미</p> <p>3. 왜 왕권의 성장과 府官制의 질서의 도입 및 도래인의 역할</p> <p>제2절 백제의 남침과 왜국의 외교 정책</p> <p>1. 왜왕 무와 백제왕 여경·모대의 상표문</p> <p>2.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과 백제</p>	<p>3. 왜제 백제 관료의 생성</p> <p>4. 가야 제국의 정세와 왜국·백제·신라</p> <p>제3장 6세기의 일한관계</p> <p>제1절 가야 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분쟁과 왜국</p> <p>1. 백제의 己汶·帶沙 침공과 왜국</p> <p>2. 금관국의 흥망과 왜국</p> <p>3. 안라를 둘러싼 백제·왜국의 방책</p> <p>4. ‘임나’의 용범과 ‘임나일본부’(‘재안라제 왜신등’)의 실태</p> <p>5. 백제 성명왕의 패사와 가야 제국의 행방</p> <p>제2절 가야 제국 멸망 후의 한반도 제국과 왜국</p> <p>1. 왜·백제 관계의 추이</p> <p>2. ‘임나조’를 둘러싼 왜국과 신라의 관계</p> <p>3. 왜국과 한반도 제국과의 등거리 외교</p> <p>맺음말</p>
---	---

## 【國文抄錄】

4·5·6세기의 일한관계라고 하면, 그 중심적 과제 중 하나로서 ‘임나’문제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한반도의 남부에 존재하며, 왜왕권의 파견기관 내

지는 반도경영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견해가 크게 변경되어, 사료용어으로써 ‘임나’ 또는 ‘임나일본부’가 사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반도남부의 역사는 가야 제국과 그 흥망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4~6세기의 일한관계를 이해하는 오늘날의 시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4세기는 일본측에 신뢰할 수 있는 문헌사료가 적어서 ‘수수께끼의 4세기’라고 일컬어져 왔다. ‘칠지도’와 ‘광개토왕비문’의 두 가지 해외사료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설명되어 온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백제와 고구려의 왕권에 의한 외교와 전쟁의 기록인 이러한 사료들에 등장하는 ‘왜왕’이나 ‘왜’ 등은 일본열도의 통일적 왕권과 그 세력으로 간주되며, 여기서는 문헌과 이 금석문 사료로부터 판단되는 4세기의 일한관계를 둘러싼 연구 성과의 문제점에 대해, 제1기의 본 위원회의 보고 ‘4세기의 일한관계’〔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위원 집필〕를 수정, 보충해 가면서 정리했다.

5세기에 관해서는 우선 왜의 5왕이 중국남조의 송에 요구한 관작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군사권의 위임을 보일 뿐이고 민정권이나 영토지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되기에 이르렀지만, 그 중에서 진한·모한에 무언가 실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바이다. 진한의 실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한에 관해서는 1980년대에 그 존재가 확정된 한반도 서남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하다. 고고학적 입장에서는 영산강유역이 완전히 백제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은 6세기 중엽 이후의 일로써, 전방후원분은 그 최종적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6세기 전반 무렵까지 백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백제와 관계를 돈독히 해가면서도 왜국 내의 여러 세력, 특히 규슈의 중·북부 세력, 그리고 대가야와도 제휴하는 독자적 세력이 존립하고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慕韓’, 즉 馬韓의 잔존세력의 존재를 상정하면 어떨까 한다. 단, 그 문화적 특징으로 보아 이 지역은 백제도 아니고 가야도 아니며 물론 왜국의 영토도 아니다. 이러한 자립적 지역의 존재와 다원적 외교의 가능성이 5세기의 일한관계를 특징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5세기의 왜와 한반도 諸國의 다원적 관계가, 왜-백제관계 일변도가 되는 것이 6세기이며, 가야 諸國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분쟁 발발,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백제 지지입장으로 끼어있는 왜의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일본부’의 이해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재안라제왜신등’이 당시의 표기에 가깝고, 그 실태는 가야지역에 거주하는 왜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왜국의 조정과는 독자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본국인 왜국의 조정, 또는 각각의 출신호족과도 몇몇 파이

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스스로의 존립·활동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 유지를 희망하는 안라 등 잔존 가야 諸國과 공동으로 백제와 신라, 왜국, 나아가서는 고구려와도 외교 교섭을 하고 그 때마다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는 행동을 취했다. 또한 왕권의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6세기 중엽의 가야 諸國 멸망 후에, 왜 왕권은 이러한 지방호족의 독자적 활동이나 외교권을 접수하여 7세기에 중앙집권국가 확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주제어 : 백제계 사료, 《삼국사기》, 칠지도, 광개토왕비문, 왜의 5왕, 전라남도의 전방 후원분, 다원적 관계, 가야, 안라, 재안라제왜신

## 序 論

4·5·6세기의 일한관계라고 하면, 그 중심적 과제중 하나로써 ‘임나’문제가 거론된다. 해당 시기의 역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일본 측의 중심적 문헌사료가 되는 《일본서기》에서는, 신대기의 스사노오의 신라 또는 ‘韓鄕之島’에 대한 강하기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초의 외교기사는 崇神 65년(기원전 33?) 7월조이며, 垂仁 2년(기원전 28?) 是歲條에 의하면, 任那人蘇那曷叱知 = 意富加羅國王之子都怒我阿羅斯等(별명을 于斯岐阿利叱智于岐라고 하고, ‘蘇’는 ‘于斯’의 조선어 sio을, ‘那曷’은 ‘岐(來)’와 같은 뜻인 ‘나가다’ ‘가다’의 조선어 어근 na-ka를 묘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의 내항이 기술되어 있다. ‘임나’ = 의부가라 = 대가락(《삼국유사》 권2 所引 ‘가락국기’)은 남부 가야 제국의 유력국 중 하나인 금관국을 지칭하며, 금관국은 《위지》 왜인전에 왜국의 북쪽 해안이라고 나오는 구야한국을 이어받은 나라이므로, 崇神·垂仁紀의 기년은 제쳐 두더라도, 일찍부터 왜국과 통교관계에 있던 반도남부의 변진지역과의 교류가 《일본서기》의 외교기사의 벽두를 장식하는 것은 걸맞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서기》에는 6세기의 繼體·欽明紀를 중심으로, ‘임나’나 ‘일본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임나일본부’ 라는 것이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며, 왜 왕권(대화조정, 야마토 정권, 야마토 왕권 등 갖가지 호칭법이 존재하지만, 왜국의 왕권라는 의미로 본고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의 파견기관 내지는 반도경영의 거점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임나일본부’의 설치는 4세기 후반 왜왕권의 한반도 남부로의 진출(고구려 광개토왕비문에 의한) 시기이며, 처음에는 군사적 거점의 확보 = ‘임나’(금관국)의 군사적 통괄 형태, 軍屯的 管가로서의 지배였지만 6세기에 들어오자 백제·신라의 ‘임나’諸國에 대한 침입이 심하게 되어, 행정·외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본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562년 신라가 ‘임나’ 제국을 병탄하여 ‘임나’ 제국은 멸망하고, 왜왕권의 ‘임나’ 지배, ‘일본부’의 존재도 종료되는 것이다(주1). 즉, 왜왕권은 한반도 남부에 ‘임나’라는 영토를 갖고 있어서, 4~6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세기의 왜 왕권의 외교활동은 이 ‘임나’의 보전·부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잃고 말았다고 보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현재로서는 크게 변경되고 있어서 사료 용어로서 ‘임나’ ‘임나일본부’가 사용되는 것은 있지만, 반도 남부는 가야 제국과 그 흥망으로서 설명되고 있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배경으로서, ‘임나’문제의 전제로서의 4·5세기의 양상에 대해서 4세기 말의 왜·백제관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石上神宮의 七支刀(奈良縣 天理市), 4세기 말~5세기 초 왜의 반도에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집안시), 《宋書》倭國傳에 등장하는 5세기의 왜 5왕의 외교와 내정 등, 《일본서기》 이외의 문헌사료에 대한 고찰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일본서기》 그 자체의 비판적 검토도 크게 진전한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임나’ 문제는 4~6세기의 일한관계에서 하나의 초점이 되며, 6세기의 ‘임나’ 문제 그 자체의 이해에 대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구의 경위나 최근 견해의 정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하의 서술 전체에 관한 문제로서, 《일본서기》, 특히 그 외교기사의 원 사료가 된 백제계 사료에 대해서 연구사와 오늘날의 견해를 종합해 두고자 한다. 720년(養老4)에 완성된 《일본서기》는 6세기 무렵부터 존재한 ‘帝紀’ ‘舊辭’를 중심으로, 조정의 여러 기록, 호족들의 가문 기록, 지방의 전승, 개인의 수기·각서, 사원 기록, 그리고 중국의 사서 및 백제계 사료 등 갖가지 사료를 소재로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주2) 그 가운데에서 4~6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한반도 제국과의 통교에 관해서는 4·5세기에 대해서는 《백제기》, 5세기 후반의 한 시기에 《백제신찬》, 6세기의 ‘임나 문제’에 관한 부분은 《백제본기》와 백제계 사료, 이른바 백제삼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백제계 사료는 12干支로 연차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일본서기》神功 46년(《일본서기》의 紀年으로는 246년)조의 백제와의 관계의 단서, 또는 神功 52년(252)조의 칠지도의 기사에서는 간지 2運, 즉 120년을 더하면(紀年을 수정한 修正紀年), 《일본서기》의 기년이 중국·조선의 사서나 금석문과 연대가 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광개토왕비문 영락 9년(399)조에 백제가 왜와 ‘和通’했다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阿莘王 6년(397) 5월조에 백제가 태자 腆支를 ‘인질’로서 왜국에 파견했다는 기사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서기》應神 8년 3월조 分註所引 《백제기》의 “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에서 應神 8년은 《일본서기》의 기년으로는 277년이지만, 120년을 가산하면 397년이 되어, 한국 측의 문헌사료·금석문의 기술과 합치하게 된다. 기사에 따라서는 다시 60년을 가산하여 간지 3운을 내려야만 하지만(주3), 이러한 형태로 《일본서기》의 기사를 중국·한국 측의 사료와 대조할 수 있는

것은, 백제계 사료의 유용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百濟三書의 성립 시기나 특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제시되고 있다.

- A. 【津田左右吉 1963, 池内宏 1970 등】 원래는 백제에서 편찬된 通期的인 사적이었고, 7세기 후반의 망명 백제인이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 편자의 손에는 각각 부분적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편자는 이것을 사료로 하면서도 대담한 개변이나 윤색을 가하여 기원설화를 만들기도 하고 일본의 사상을 보이려 했다.
- B. 【今西龍 1970, 三品彰英 1962, 井上秀雄 1973 등】 6세기 말에 백제가 대외정책의 필요상 편찬하여 제출한 것이다. 삼서는 각각 다른 시대가 달라서, 그 성질상 백제 측의 의도적 개변이나 윤색 또는 정치적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편자는 일관되게 그 원문이나 영합적 기술을 존중했다.
- C. 【木下禮仁 1974】 三書의 자음 가나는 ‘推古朝遺文’(7세기 전반의 推古朝의 것으로 생각되는 금석문 등의 1차 사료)의 그것과 지극히 높은 근사성을 보여, 8세기 나라시대의 것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삼서는 推古朝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推古朝遺文’을 남긴 것과 같은 흐름을 타는 문화 담당자가 만든 것임을 보여 준다.
- D. 【坂本太郎 1961, 丁仲煥 1974, 久信田喜一 1974, 鈴木靖民 1974, 山尾幸久 1977·1987 등】 三書의 원형은 백제의 기록 또는 사적이지만, 7세기 후반의 망명 백제인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 편찬하여, 《일본서기》의 修史局에 제출했다. 각각 특정 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에게 불리한 것을 지우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각종 變改, 윤색이 있다.

본고에서는 학설 인용 부분을 제외하고, 왜, 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국호나 군주호로서의 천황호가 7세기 후반의 天武·持統朝 무렵에 성립했다는 오늘날의 유력 학설에 의거한 것이다.(주4) 그 배경에는 이전에 유력하다고 여겨져 온 天皇號 推古朝 성립설을 지지하는 ‘推古朝遺文’이라 칭하여지는 금석문 등의 기재가 天智朝 또는 天武·持統朝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 것(주5), 고대국가, 중앙집권적 율령국가 성립의 획기로서의 推古朝, 乙巳의 變(‘大化改新’)이라는 견해에 의문이 제시되어, 오히려 663년의 백촌강에서의 패전이나 672년의 壬申의 亂을 거쳐 온 天武·持統朝의 획기성이

주목되게 된 점 등이 있다.(주6) 백제삼서에는 ‘일본’ ‘천황’이라는 말이 존재하여, 왜국을 지칭하여 ‘貴國’이라 칭하는 공통의 용어법과도 맞물려 있어, 현 단계에서는 百濟三書의 성격으로서는 D說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일본서기》의 본문에 사용된 百濟三書의 기술 중에는, 百濟三書의 근본이 된 백제 史籍의 필치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어서 【熊谷公男 2005, 中野高行 2007】, 그러한 기술·용어의 변별에 힘을 필요도 있는 점을 부연해 두고자 한다.

0-01 《일본서기》 欽明 15년(554) 12월조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上表曰, 百濟王臣明及在安羅諸倭臣等·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遣有至臣等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哥武連, 領其方軍士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狛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速遣竹斯鳴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 又奏, 臣別遣軍士萬人助任那, 并以奏聞. 今事方急, 單船遣奏. 但奉好錦二疋·毳毼一領·斧三百口及所獲城民男二·女五. 輕薄迫用悚懼.》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久廢眠食, 父慈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斷道擊破. 是時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莫忘於口. 已而苦都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國法違背所盟, 雖曰國王當受奴手. <一本云, 明王乘踞胡床, 解授佩刀於谷知令斬.>明王仰天大息涕泣, 許諾曰, 寡人每念, 常痛入骨髓, 願計不可苟活. 乃延首受斬. 苦都斬首而殺, 掘坎而埋. <一本云, 新羅留理明王頭骨, 而以禮送餘骨於百濟. 今新羅王埋明王骨於北廳階下, 名此廳曰都堂.> 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遑駭不知所圖. 有能射人筑紫國造, 進而彎弓占擬, 射落新羅騎卒最勇壯者, 發箭之利通所乘鞍前後橋及其被甲領會也, 復續發箭如雨, 彌厲不懈, 射却圍軍. 由是, 餘昌及諸將等得從間道逃歸. 餘昌讚國造射却圍軍, 尊而名曰鞍橋君<鞍橋, 此云矩羅賦>. 於是, 新羅將等具知百濟疲盡, 遂欲謀滅無餘. 有一將云, 不可. 日本天皇以任那事, 屢責吾國. 况復謀滅百濟官家, 必招後患. 故止之.

예를 들면, 사료 01은 백제 성명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敗死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서 그 시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백제본기>에 의거한 기사로서 자리매김 된다. 이 기사의 전반부분( ≧표시까지의 부분)에는 ‘斯羅’(신라), ‘狛’(고려, 고구려), ‘在安羅諸倭臣等’(일본부), 그리고 ‘竹斯鳴’(築紫島), ‘有致臣’(內臣) 등의 표기(괄호 안은 통상의 표기)가 있어서, <백제본기>의 원형에 가까운 문장이 남겨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海北’이라는 말이나 ‘彌移居’(官家) 用字 【弥永貞三 1964】 또한 백제계 사료 본래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백제왕자 余昌의 돌출과 聖明王 死去의 장면을 전하는 후반 부분은 용어도 달라서, <백제본기>가 대폭 개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제계 사료에는 백제 왕족이나 백제 출신의 귀족이 왜국에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에 백제가 ‘천황’에게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기술한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백제계 사료의 작성 의도에 의한 윤색과 《일본서기》 편찬 시의 조작·윤색을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松波宏隆 1993】. 왜국의 대외 관계에서는 불교의 도입 등 백제와의 관계가 중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백제 중심의 사관은 《일본서기》의 사료적 성격에 다분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그 실상을 재검토하여 다른 한반도 제국과의 다원적 관계를 주의해서 살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시점에서의 새로운 연구 축적도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일본서기》의 사료적 특성에도 유의하면서 각종 사료 검토 위에서 고대 일한관계의 여러 모습과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 (주1)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井上秀雄, 1973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寧樂社) 초출 1959년; 八木充, 1968 <大和國家の任那地排> 《律令國家成立過程の研究》(塙書房), 초출 1963년 등.
- (주2) 坂本太郎, 1970 《六國史》(吉川弘文館); 1966 日本古典文學大系《日本書紀》上(岩波書店) ‘解説’ 등.
- (주3) 《日本書紀》應神 37年(丙寅=306+120→426) 2月 戊午朔條 ‘遣阿知使主・都加使主於吳, 令求縫工女. (中略)吳主於是與工女兒媛・弟媛, 吳織・穴織四婦女.’과 雄略 14年(庚戌=470)정월 戊寅條 ‘身狹村主青等共吳國使, 將吳所獻手末才伎漢織・吳織及衣縫兒媛・弟媛等泊於住吉津.’는 같은 일이 중복되어 나타난 기사로 생각되며, 雄略朝의 일을 應神朝에서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干支는 같다고 해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간지의 3運을 가산해야 하는 사유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4) 森公章, 1998 <天皇号の成立をめぐって>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吉川弘文館), 초출 1983년; 2006 <日本國王と天皇号> 《新体系日本史》1 國家史(山川出版社)
- (주5) 東野治之, 2004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岩波書店)
- (주6) 鈴木靖民, 1980 《古代國家史研究の歩み》(新人物往來社); 森公章, 2002 <倭國から日本へ>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등을 참조.

## 【참고문헌】

- 池内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寧樂社)

- 今西龍, 1970 <百濟史講話> 《百濟史研究》(國書刊行會)
- 弥永貞三, 1964 <官家・彌移居考>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35→1980 《日本古代社會經濟史研究》(岩波書店)
- 木下禮二, 1974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料的価値について> 《古代日本と朝鮮》(學生社)
- 久信田喜一, 1974 <「百濟本記」考> 《日本歴史》309
-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29
- 坂本太郎, 1961 <繼體紀の史料批判> 《國學院雜誌》62・9→1964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東京大學出版會)
-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および倭問題> 《歴史學研究》405
- 丁仲煥, 1974 <《日本書紀》に引用された百濟三書について>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學生社)
- 津田左右吉, 1963 <百濟に関する日本書紀の記載> 《津田左右吉全集》2(岩波書店)
- 中野高行, 2007 <《日本書紀》における<任那日本府>像> 《新羅史學報》10(《政治と宗教の古代史》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の改訂版・韓國語譯)
- 松波宏隆, 1993 <<任那復興會議>關係記事と《百濟本紀》> 《國史學研究》19
- 三品彰英, 1962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吉川弘文館)
- 山尾幸久, 1977 <百濟三書と日本書紀> 《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 山尾幸久, 1987 <《日本書紀》と百濟系史料> 《立命館文學》500

## 제1장 4세기의 일한관계

### 제1절 낙랑·대방 두 군의 멸망과 일한관계 -삼한의 동향과 왜국-

BC 2세기 말부터 AD 4세기 초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와 열도의 왜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왕조가 반도의 중·서북부에 두었던 낙랑·대방의 두 군과의 교섭과 이곳을 통해 왕조의 수도 낙양으로 사신 파견이 진행됨으로 인해, 통교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중원 왕조와의 臣屬 관계를 매개로 하여 맺어진 상호 견사·통교의 서클과 같은 양상이 생기게 됨으로써, 두 군이 요동으로 철수하기까지는 그곳에는 전쟁이나 대립과 같은 어려운 사태는 발생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중국왕조와 그 파견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군으로 통하는 ‘惑星’과 같은 관계인 반도와 열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군현에 대적하는 고구려의 무력은 2군이 방파제의 위치에 있어서 한과 왜의 지역에는 그 압력이 미치지 어려웠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는 2군으로부터는 그 피난민을 맞이했었다.

이러한 견사·통교 서클 가운데에서 왜국은 그 외연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중국왕조나 2군에서는 유리한 일면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전한으로부터 위를 거쳐 서진왕조에 이르기까지 중국왕조가 전통적으로 채용하는 원교근공책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중국황제의 덕치를 이민족 사회로 확장하는 입장에서부터 중국왕조와 왜국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자리하고 2군을 매개로 하여 일찍이 황제의 덕치를 입은 韓 諸國은 외연에 있는 왜국의 중국왕조에 대한 통교를 촉진시킴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 덕치가 자신의 사회에도 보다 크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왜국의 卑弥呼가 두 군과 위의 수도로 사신을 파견하고, 우대받은 것도 韓 諸國의 이러한 위치 때문에 왜국의 통교에 ‘重譯’을 비롯한 ‘職約’에서 제공되는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위가 뒷에 대항하는 군사적 입장에서 왜국을 높이 평가했음에도 근거한다【西嶋 1999, 大庭 2001, 堀 2006】.

왜국이 두 군과 이것을 매개로 하여 중국의 여러 왕조와 잘 통교한 배경에는 왜국 내부의 요인과 함께 중국왕조의 대외 관계의 구조 유지 원리와 왜와의 중간에 있는 韓 諸國의 ‘職約’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통교의 요충이 되는 변한의 狗邪國이

나 瀆盧國, 그리고 낙랑, 대방 두 군에 접하고, 한반도 서부에 위치하는 마한의 여러 나라가 왜국의 중국 통교에 협조하는 ‘職約’의 자세이다. ‘職約’의 수행 가운데에서 문화가 가치로서 교류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왜국과 加羅, 그리고 백제와의 길고도 견고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시킨 근원 중 한 가지로 생각된다【西嶋 1983】.

그런데 이 중국왕조와 韓 諸國과 왜국을 이어주는 遣使·通交를 위협하는 존재가 동북부의 고구려이며, 그 고구려의 행동을 용이하게 해 준 국제환경은 서북의 흉노나 선비족이 중국왕조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의 미천왕이 파견한 군대는 313년에 두 군을 공격하여 郡治를 중국 내부로 철수시킴으로 한반도의 중·서북부에 약 400년이나 되는 동안 계속된 중국왕조에 의한 반도 서북부에 있어서의 군현 지배와 반도 남부에 대한 간접 통제는 소멸되었다.

그 연대는 《梁書》나 《資治通鑑》에는 建興 원년(313)에 乙弗利(미천왕)가 이끈 군대가 두 군을 지배하는 요동의 장통과 모용위를 공격했다고 기록하지만, 이에 응하여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공격하고,이어서 다음 해인 314년에는 대방군을 공격했다고 편년한다. (【사료1】 참조)

#### 【사료 I】

- ① 《梁書》卷54·列傳48·高句驪 ‘晉永嘉亂(307~312), 鮮卑慕容廆, 據昌黎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句驪王乙弗利, 頻寇遼東, 廆不能制’
- ② 《資治通鑑》卷88·晉紀10·孝愍帝上·建興元年(313)·夏4月條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美川王)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 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 廆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三國史記》卷17·高句麗本紀
- ③ 美川王3年(302) 秋九月, 王率兵三万侵玄菟郡, 虜獲八千人, 移之平壤.
- ④ 同 12年(311) 秋八月, 遣將襲取遼東西安平.
- ⑤ 同 14年(313)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余口.
- ⑥ 同 15年(314) 秋九月, 南侵帶方郡.
- ⑦ 同 16年(315) 春二月, 攻破玄菟城, 殺獲甚衆.

두 군의 통치 장소가 요동으로 이전된 것, 즉 중국왕조의 군현 지배기구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한반도 서북부로부터 철수되었다 해도, 바로 고구려가 옛 군현의 토지와 백성을 그 지배 구조 가운데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 군의 철수 후에도 군현의 옛 땅에서 동진의 연호를 찍은 벽돌에는 ‘韓氏’ ‘孫氏’ 등 중국인 집단의 성격을 농후하게

가진 정착형 씨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朝鮮總督府 1933】. 고구려가 이러한 토지와 세력을 통합하는 데는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약 1세기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의 중서·서북부로부터 두 군이 소멸되었다고 해도 고구려와 韓 諸國 사이에 완충지대가 남아있게 되었지만, 3세기에 빈번히 진행되었던 韓 諸國과 이에嚮導된 왜의 군사 서클과 같은 관계는 그 구심점이 소멸된 것, 또한 낙랑·대방 두 군의 옛 민족의 일부가 韓의 사회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한 諸國의 정치 사회 내부에 변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변동은 왜국에도 정치 변화를 발생시켜, 백제 그리고 조금 뒤늦게 신라, 더욱이 加羅와 왜국에서 왕권의 권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열도의 역사는 ‘수수께끼의 4세기’로 일컬어지듯이 4세기 열도 지역의 정치동향을 전하는 문헌기록은 부족하다. 중국왕조와 통교하며 조공을 드린 기사가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두 군이 철수한 상태이고, 그 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고구려가 통교 및 조공에는 장애가 된 것,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반도 지역에서는 마한과 진한, 그리고 열도 지역에서는 야마타이국으로부터 야마토 왕권의 왜국이 탄생하는 왕권 형성이 진행되었던 것이다【西嶋 1985】.

따라서 두 군의 요동으로의 철수 후 동아시아 동향은 한층 변동된다. 서진이 316년에 멸망하고, 318년에는 建業(南京)에 동진이 다시 부흥되었지만, 화북에서 五胡왕조가 흥망하는 중국의 정세에 대응하여, 동북의 고구려는 慕容氏 정권과의 대립을 축으로 하여 五胡16國과의 사이에 대립과 통교를 번갈아 하는 복잡한 관계가 계속된다. 이 고구려가 북쪽 이웃 세력에 대응하는 동안 남쪽의 삼한과 왜에도 고구려의 이 동향과 관련되는 새로운 변동이 생기게 된다.

#### 【사료Ⅱ】

- ① 《晉書》 卷6·元帝 ‘太興二年(319)十二月. 鮮卑慕容廆襲遼東. 東夷校尉平州刺史崔瑟奔高句驪’
- ② 《資治通鑑》 卷91·晉紀13·中宗 ‘太興二年(319)十二月 … 中略 … 高句麗數寇遼東. 廆遣慕容翰·慕容仁伐之. 高句麗王 乙弗利逆來求盟. 翰·仁乃還’
- ③ 《晉書》 卷百八·慕容廆載紀 ‘明年(320). 高句麗寇遼東. 廆遣衆擊敗之’
- ④ 《晉書》 卷百五·石勒載紀 ‘時(330). 高句麗·肅慎致其楛矢. 宇文·屋孤, 竝獻名馬于勒’
- ⑤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4年(334) ‘秋八月,增築平壤城’
- ⑥ 同 故國原王5年(335) ‘春正月,築國北新城’

고구려는慕容氏 정권에 대하여 축성으로 대표되는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그 한편에서는慕容皝에 패배한慕容仁의 막하에 있는修壽 또는後趙의宋晃 등의 망명을 수용하여(336, 338년),慕容氏와의 긴장관계나 장래를 대비한 방책을 취했다. 341년에 고구려는 남북으로부터 5만 5천의燕軍의 진격을 받자, 고국원왕은 작전을 잘못 짜서丸都城을燕軍에게 빼앗기고 고국원왕은 수도에서遁走했으며, 부친인 미천왕의 묘를燕軍이 파헤치고 그 시체까지 빼앗기는 굴욕을 겪은 이외에도王母와 왕비뿐 아니라 보물과 5만여 남녀를 약탈당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고국원왕은 다음 해에燕王皝 하에 사신을 보내方物を 바치고 그 신하가 됨으로써 부친 미천왕의 시체를 되돌려 받았지만 모친은 계속 인질로서前燕에 잡혀 있었다.

고구려는 호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前燕에 대한 신하의 자세는 확고하지 않아서 왕은 일단 남쪽으로 옮겨 살며, 343년에는 동진에 조공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345년에는前燕의 공격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전연이 만 7천 명의 기병을 보내어 부여를 정벌하고 그 왕을 포로로 만든 공세에 직면하여, 349년에는 고구려에 망명했던 송황을前燕에 되돌려 보내어 여기서 복종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고국원왕은 355년 12월에前燕에 인질을 보내어 복종의 자세를 굳히자 14년 만에 모친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국원왕의 내외적 시책은 드디어 반세기 후에 광개토왕대의 대외정책을 반도 남부로 전개함에 이르는 진통이기도 하다. 고국원왕은 334년에 평양성을 증축했지만, 336년에 동진에 조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또한 343년에는 옛 대방군 치하의黃城으로 고국원왕이 전연의 공세로부터 피난할 수 있었음에도 두 군의 옛 지역의 세력에 대한 회유책과 그 건설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의 두 군의 옛 지역에 대한 고국원왕의 남방 지향은 아들인 소수림 왕과 고국양왕에게도 계승되었다. 고구려는 태백산맥을 따라 거점이 되는 산성을 구축하여 남하했으며,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도 고구려에 속했던濊를 통하여 신라가 그 방책의 대상이 되었다【末松 1954, 鬼頭 1998】.

그 한편으로 고구려는 두 군의 옛 지역 획득을 노리는 백제와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 가운데에서 백제는 긴 역사가 있는 건사·통교 서클의 전개 가운데에서 연휴의 축적을 가진 왜국을 대 고구려 대책에 짜 넣게 되는 것이다.

이 고구려가 두 군의 옛 지역에 세력을 전진시킨 것은 고구려 왕권이 그 서북 방면에서는 열세인 대외적 위기로부터 왕권의 안정 기반을 반도의 중남부에서 구한 것을 의미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왕국의 경제기반 속에 농업경제를 짜 넣는 것을 옛 낙랑·대방군의 치하의 사회에서 구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구려는 그 서북 방면에서는 선비족인 後燕에 시달렸지만 서남부에서는 낙랑, 대방 두 군의 지배 기구를 붕괴시킨 313년부터 약 50년 사이에 고구려가 그 옛 지역에 거주하는 유민 사회를 회유하면서 이곳을 지배 영역 속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이 일이 백제는 신라의 동향과도 얽혀 가면서 또한 왜국과도 신라와도 대응하면서, 이를 백제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基臨尼師今3年(300) ‘春正月, 與倭國交聘’

訖解尼師今3年(312) ‘春三月, 倭國王遣使爲子求婚. 以阿淪急利之女送之’

同 35年(334) ‘春二月, 倭國遣使請婚. 辭以女既出嫁’

同 36年(335) ‘二月, 倭王移書絕交’

同 37年(336) ‘倭兵猝至風島. 抄掠辺戶. 又進圍金城急攻. 王欲出兵相戰. 伊伐淪康世曰. 賊遠至. 其鋒不可當. 不若緩之. 待其師老. 王然之. 閉門不出. 賊食盡將退. 命康世率勁騎追擊. 走之’

### 【사료Ⅲ】

- ① 《晋書》 卷7·成帝 ‘咸康二年(336)二月庚申. 高句驪遣使貢方物’
- ② 《晋書》 卷百九·慕容皝載紀 ‘(咸康三年)其年(339). 皝伐高句麗. 王釗乞盟而還. 明年(340). 釗遣其世子朝於皝’
- ③ 《晋書》 卷109·載記卷9·慕容皝 ‘咸康七年(341) 皝遷都龍城. 率勁卒四萬入自南陝. 以伐宇文. 高句麗. 又使翰及子垂爲前鋒. 遣長史王寓等. 勒衆萬五千從北置而進. 高句麗王釗(故國原王)謂皝軍之從北路也. 乃遣其弟武. 統精銳五萬踞北置. 躬率弱卒以防南陝. 翰與釗戰于木底. 大敗之. 乘勝遂入丸都. 釗單馬而遁. 皝掘釗父利(美川王)墓. 載其尸并其母妻珍寶. 掠男女五萬餘口. 焚其宮室. 毀丸都而歸. 明年(咸康8年(342) 釗遣使稱臣於皝. 貢其方物. 乃歸其父尸’
- ④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12年(342)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秋八月. 移居丸都城’
- ⑤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13年(343)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 ⑥ 《晋書》 卷7·康帝 ‘建元元年(343) 十二月. 高句驪遣使朝獻’
- ⑦ 《資治通鑑》 卷98·晉紀20·孝宗 ‘永和五年(349) 十二月. 高句麗王釗遣前東夷護軍宋晃于燕. 燕王篤赦之’
- ⑧ 《資治通鑑》 卷一百·晉紀22·孝宗 ‘永和十一年(355) 十二月. 高句麗王釗遣使詣燕. 納質修貢以請其母. 燕主篤許之. 遣殿中將軍刁龕. 送釗母周氏歸其國. 以釗爲征東大將軍營州刺史封樂浪公. 王如故’
- ⑨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39年(369) ‘秋九月. 王以兵二萬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績’

- ⑩ 《晋書》 卷113·載記·苻堅 ‘太和五年(370), 又遣猛率楊安, 張蚝, 鄧羌十將率步騎六萬伐(慕容) 暉. 堅親送猛於霸東 … 中略 … 暉遣其太傅慕容評率衆四十餘萬以救二城(晉陽, 壺關), 評憚猛不敢進, 屯於潞川. … 中略 … 堅遂攻鄴, 陷之. 慕容暉出奔高陽, 堅將郭慶執而送之. 堅入鄴宮, 閱其名籍, 凡郡百五十七, 縣一千五百七十九, 戶二百四十五萬八千九百六十九, 口九百九十八萬七千九百三十五. 諸州郡牧守及六夷渠帥盡降於堅. 郭慶窮追餘燼, 慕容評奔於高句麗, 慶追至遼海, 句麗縛評送之’
- ⑪ 《三國史記》 卷18, 故國原王 41年(371) ‘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薨. 葬于故國之原’
- ⑫ 同 小獸林王 2年(372) ‘夏六月.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立太學. 教育子弟’
- ⑬ 同 3年(373) ‘始頒律令’
- ⑭ 同 4年(374) ‘僧阿道來’
- ⑮ 同 5年(375)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秋七月. 攻百濟水谷城’
- ⑯ 同 6年(376) ‘冬十一月. 侵百濟北鄙’
- ⑰ 同 7年(377) ‘冬十月. 無雪. 雷. 民疫. 百濟將兵三萬來侵平壤城. 十一月. 南伐百濟’
- ⑱ 《資治通鑑》 卷一百四·晉紀26·烈宗 ‘太元二年(377) 春. 高句麗新羅西南夷皆遣使入貢于秦’
- ⑲ 《三國史記》 卷18, 小獸林王 8年(378) ‘旱. 民饑相食. 秋九月. 契丹犯北邊. 陷八部落’
- ⑳ 同 14年(384) ‘冬十一月. 王薨. 葬於小獸林. 號爲小獸林王’

이 절에서는 前漢의 왕조가 BC 108년과 BC 1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의 옛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백두산 일대와 한반도의 북부에 4군을 설정한 이래 그 개폐로부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313년과 314년에 군현 통치가 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되기까지 그 동안의 반도와 열도의 여러 민족이 서로 통교하면서 군으로 통교하는 모습을 문헌을 통해 보아 왔다.

그 문제의식은 4세기 말의 소위 ‘왜국의 군사적인 한반도로의 진출’이나 ‘출병’이라는 대립적 관계가 갑자기 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고대의 반도와 열도 지역 간의 교류 축적 위에서 이것이 또한 왕권의 성장과 국가 형성을 낳게 되고 그 국가 교류와 지역 간의 교류의 관계의 역사를 이해해 두는 것이 불가결하다.

거기서 이 절에서 통람한 반도와 열도의 지역 간 교류를 진전시킨 기본 요인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① BC 108년 이후에, 약 400년에 걸쳐서 한반도의 서북부에 前漢과 後漢, 그리고 公孫氏 정권과 위, 진의 군으로 존재했던 낙랑군과 3세기 초부터 약 100년 간 존재한 대방군의 두 군으로 인하여, 군에 소속된 현을 통해 중국왕조의 통치가 이 지역에 파급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반도의 남부 지역의 韓 諸國과 열도의 왜국이 연쇄되면서 두 군에

대해 통교해 왔다.

거기에 왕조의 덕치주의에도 근거하는 이민족에 대한 위무책과 遠交近攻의 왕조 방위책이 맞물려서 반도 지역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는 왜국 왕조와 두 군으로의 통교가 권장되었다. 왕조에 통교하는 창구였던 낙랑·대방의 두 군이 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것은 그 후의 일한관계가 반도 남부의 여러 민족을 통해 진행되고, 드디어는 백제와의 우호적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신라와는 대립적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지리적 요인이었다.

이 두 군과는 반대로 반도의 동북부에 있던 임둔군이 일찍이 고구려의 공격 전에 폐지되고 현도군도 역시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반도의 동북부에서 요동으로 철수한 배경에는 고구려 족의 국가 형성을 향한 성장이 있었다. 이 지역으로부터 군현이 소멸됨으로써 반도의 동북부 지역에는 고구려의 세력이 성장하여 마침내 4세기 후반에는 반도의 동남부에 있는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② 낙랑·대방의 두 군으로 반도와 열도의 여러 나라가 통교하는 데는 상호 협조가 보인다. 3세기에 빈번히 진과 통교한 마한을 비롯한 東夷 諸國 간에는 통교를 둘러싼 분쟁 사실이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韓의 소국 수장이 魏 왕조로부터 ‘臣智’나 ‘邑君’의 작위를 받고 또한 위로부터 하사된 ‘印綬와 衣幘’을 몸에 걸치고 군에 와서 ‘朝謁’하는 것이 ‘千有餘人’이나 된다고 《三國志》 魏書 韓傳에 있는 것은 그것을 추찰케 한다.

이 韓의 두 군에 대한 遣使 帛은 멀리 있는 왜국의 두 군에 대한 견사를 부르고 또한 그 嚮導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臣智’나 ‘邑君’이 통교자의 嚮導를 기피하면 그 ‘職約’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군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전진에 통교한 것도 고구려의 ‘職約’이며, 고구려가 신라에 우위적 위치를 얻는 결과도 된다.

마한 나아가서 변한 諸國이 두 군으로의 통행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왜국은 두 군을 통해 중앙 왕조의 대우를 받은 것이다. ‘漢倭奴國王’이나 ‘親魏倭王’의 金印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왜국에서는 이 우위의 지리 관계와 통교의 시스템 원리로부터 군을 통한 왕조의 하사품이 축적되어 간다. 중국의 문화 유산이 時系列로 열도의 서부 지역에 저장되는 양상이 계속되는 연유인 것이다.

### 【참고문헌】

- 鬼頭清明, 1998 <東アジア世界の変貌とヤマト王權>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 邪馬台國》(吉川弘文館)
- 朝鮮總督府, 1933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東京大學出版會)
- 西嶋定生, 1999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學出版會)
- 西嶋定生, 1999 《倭國の出現－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東京大學出版會)
- 堀 敏一, 2006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中國と周辺國家》(汲古書院)

## 제2절 칠지도 명문의 일한관계 -백제의 국가 형성과 왜국-

### 【칠지도 명문의 연구사】

칠지도는 오늘날 奈良縣 天理市 杣之内에 鎮坐하는 石上神宮의 寶庫에 보존되어 있다. 明治 6년(1873)에 이 신사의 大宮司에 임명된 菅政友【菅 1907】가 이것을 발견하여 ‘六叉鏃’라는 명칭으로 공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藤井 1995】. 그 이래로 칠지도를 향한 오늘날까지의 연구 성과와 문제점은 神保公子 씨에 의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神保 1973, 1975, 1981】.

이 刀銘이 고대의 일한관계사 연구에 불가결한 사료로 되어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은 고대 일한관계사 모습을 재검토할 필요가 환기된 1970년대의 일이다.

神保씨는 칠지도 명문 연구사를 3기로 구분시켰다. 제1기는 ‘연구가 개시된 시기로서 메이지로부터 제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로 한다. 이 시기에는 칠지도에 명문이 있는 것이 주목되어 명문의 冒頭에 새겨진 기년의 비정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일본서기》 神功皇后紀에 기록된 ‘七支刀’야말로 이 칠지도라고 인정되었지만, 연구는 역사 서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칠지도가 아직 역사연구의 대상 외에 있던 기간이었다고 한다.

이어지는 제2기는 1950년에 樫本杜人씨가 칠지도를 실시하였고【樫本 1950, 1952, 1953, 1954, 1955】, 다음 해에는 福山敏男씨가 실제 조사 한 것에 근거하여 명문 연구를 발표【福山 1951, 1952】한 것을, 神保씨는 이것을 획기로 잡았다. 두 사람의 조사로 인해 紀年 ‘泰和’는 東晉의 ‘太和’를 달리 표기한 것이라는 관독이 유력하게 되었고, 또한 명문 중에 ‘백제’ ‘왜왕’을 釋讀한 사실이 주목을 불러, 칠지도 명문은 고대 일한관계사의 연구에 높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서기》 9권 神功皇后 攝政 52년(372)조에 근거하여, 이 제 2기에 “372년에 칠지도가 백제로부터 왜국

으로 현상되었다는 이해가 강했다”고 神保씨는 파악했다.

제3기는 1963년에 발표된 김석형 씨의 논문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의 분국에 대해서> 《역사과학》 1963년 1호, 평양)가 鄭晋和씨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어, 《歷史評論》(165·168·169호, 1964년 5·8·9월)지에서 일본 고대사 학계에 소개된 것에서 시작된다. 이 김씨의 논문은 백제왕이 왕의 ‘侯王’ 즉 신하로 간주한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주장했다. 제2기 이래로 계속된 백제왕이 왜왕에게 칠지도를 현상했다고 본 일한관계사 모습을 여기서 그 상하를 역전시키는 김씨의 논문은 일본 뿐 아니라 마침내 한국의 고대사 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여 칠지도 명문의 판독과 그 기년의 재검토, 백제와 외국의 위치 관계 재검토 등의 문제가 연구자들에 의해 고찰되어, 고대 일한관계사 모습의 재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神保씨는 정리한다.

이 제3기는 그때까지의 학설에 재검토를 더하여 많은 새로운 설이 제출되었지만, 칠지도가 국보 지정 고고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것을 실사할 수 없었던데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각 說은 칠지도 명문을 신중하게 실사 검토한 다음에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었다는 점이 새로운 학설의 위험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실사를 끈질기게 계속 회구해 왔던 村山正雄씨에 의해 1996년 12월에 그의 편저 《石上神宮七支刀銘文圖錄》(吉川弘文館, 이하 《圖錄》으로 약칭한다)이 간행된 후부터 정교한 사진과 워트겐 사진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제4기의 연구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七支刀銘文’의 전체 61문자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었던 것이다.

### 【七支刀의 銘文】

제4기에 木村誠 씨가 村山 편저의 사진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 【木村 2000】가 발표되기까지 ‘칠지도 명문’은 61문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판독되어 왔다. 木村씨는 표면 冒頭 기년의 ‘年’과 ‘月’의 두 글자 사이가 다른 자간에 비하면 그 공간이 너무 큰 사실에 주목하고 村山씨의 지적을 계승하여 《圖錄》의 워트겐 사진 속에서 ‘年月’의 글자 사이에 ‘+’자가 가려져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十’자로 판독했다. 이후에 계속되는 文字格의 거의 지워진 字格은 이제까지는 주조 시의 好機로 여겨지는 盛夏 五월의 ‘五’자로 추측하여 읽어 왔지만 木村 씨는 여기에서도 녹슬어 있는 부분에서 ‘一’자를 판독하여,

앞의 것과 맞추어서 ‘年十一月’이라고 판독하는 새로운 판독을 제시했다.

吉田晶씨(2001)가 이에 납득은 했지만, 木村씨의 판독법은 《圖錄》에 근거한다는 점은 평가되지만, 과연 타당한 판독인지 의문점이 있다. 山尾幸久씨(1981, 1983, 1986, 1989)나 졸고(2005)에서 서술하듯이, ‘年月’의 자간에 조금 공간이 있는 것이야말로 칠지도가 백제에서 ‘原七支刀’를 모델로 하여 仿製한 것이라는 이해를 뒷받침하는 방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칠지도는 주조된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녹슬고 또한 금상감이 박리되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문자가 있다. 이러한 판독 불능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圖錄》을 갖게 된 오늘날 판독에 의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칠지도 명문’ 연구사와 논점에 입각하고 《圖錄》을 대면하여 61문자를 시각적으로 또한 문맥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판독문이 아래와 같다. (이하 □ 文字의 잔획으로 판독되는 문자. □는 명문의 문맥이나 같은 종류의 금석문 사료에서 推讀한 문자. 판독에 이르는 정리의 상세 부분은 《제1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보고(제1분과)》(2005년 11월)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 ○앞면의 명문 34자는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出辟百兵宜供供侯王永年天吉祥’로 되어 있다.

‘泰和 4년’(369년)의 盛夏 ‘五月十六日’은 火氣가 강한 ‘丙午’의 날인데, 태양이 정남으로 뜬 ‘正陽’ 시각에, ‘백’ 번이나 ‘단련(練)’했다는 上質의 ‘□’을 재료로 하여, ‘칠지도’를 ‘만들(造)’었다. 이 같은 ‘나와(出)’서는 ‘百兵을 물리친다(辟)’는 呪力을 갖고 있어서, ‘供供(극히 공손)’한 ‘侯王’이 佩刀하기에 ‘적절하고(宜)’, 또한 ‘侯王’은 ‘永年’에 걸쳐 ‘大吉祥’일 것이다.

#### ○뒷면의 명문 27자는 이하와 같다.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晋)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로 판독된다.

‘先世以來’로 ‘아직(未)’ ‘이(此)’와 같은(형태의, 또 그런 까닭으로도 百兵을 피할 수 있는 주술력이 강한) ‘刀’는 (백제에는) 없었다. ‘百濟王과 世子’는 ‘生’을 ‘聖스러운 晋’의 황제에게 ‘기탁하게(寄) 되었다. 그런 ‘故’로 ‘倭王’을 ‘爲’해 황제가 백제왕에게 하사하신 ‘擘’를 함께 하려고 이 칼을 (仿製하여) ‘만들(造)’었다. ‘後世’에 이 칼과 여기에 숨겨진 황제의 뜻을 전하기 바란다.

### 【七支刀銘文의 歷史像】

칠지도 명문의 판독은 저술했듯이 곤란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판독으로부터 구성되는 역사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泰和 4년’은 東晋의 泰和 4년이며 369년이다. 그런데 칠지도가 백제 왕권의 명령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기록상으로 볼 때 백제는 3년 후인 東晋 咸安 2년(372) 정월에 동진에 처음 견사하고 같은 해 6월에 백제왕 餘句(근초고왕)가 ‘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책봉되었으므로, 이 책봉을 받는 372년 6월 이전에 백제왕이 왜왕에게 보내는 칠지도에 동진의 연호인 ‘태화’를 이해하고, 이를 상감시킨 것이 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鈴木靖民씨【鈴木 1983】는 백제 왕권에 참여하는 중국계의 문필 담당자가 동진을 숭상하여 백제왕이 동진에서 책봉되기 전에 그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한다. 낙랑·대방 두 군이 한반도로부터 요동으로 철수한 후, 그 옛 지역에서 동진의 연호를 사용한 ‘永和 9년’(353년)이나 ‘元興 三年’(404년) 명문의 벽돌이 출토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고구려 왕권 또는 백제 왕권의 발동과는 다른 사적인 차원에서 연호를 지하의 묘실에 사용한 예인 것이다.

칠지도는 백제 왕권의 발동으로서 왜왕과의 외교에 반드시 필요한 증여품이다. 이 외교에서 백제가 아직 동진의 正朔을 받드는 책봉 관계에 참여하지 못한 시기에 제조한 칠지도에 동진의 연호를 자주적으로 상감했다고는 파악할 수 없다. 백제의 고도인 한성이나 웅진이나 부여 지역으로부터도 백제가 중국왕조와 책봉관계를 맺은 시기에 상당하는 무렵에도 왕조의 연호를 사용했음을 명시하는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백제의 옛 땅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국내적으로 사용한 유물을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濱田 2005】.

역시 백제가 372년 이전에도 동진에 遣使했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을 생각하면, ‘泰和4년’의 기년은 본래 백제에서 오리지널하게 명기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기년을 명기

하여 전쟁 등에 ‘나아가(出)’서는 ‘百兵’을 ‘물리치(辟)’는 것이 가능하다는 벽사의 주술 능력이 강하게 기대되는 ‘칠지도’는 ‘侯王’이 佩刀하기에 어울린다는 완결된 앞면의 명문은 역시 ‘태화’의 연호를 받드는 정치사회 가운데에서 원형(모델)이 구조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백제에서가 아니라, 山尾씨의 주장한 바대로 369년의 동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山尾 1989】.

石上神宮 창고에 현존하는 칠지도는 백제가 동진에서 ‘제조(造)’된 칠지도를 동진으로부터 하사받고 이 외교 관계를 왜왕과도 공유하는 의도에서 백제는 이것을 왜왕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칠지도 한 자루를 새로이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된다. 현존의 칠지도는 백제에서 모방하여 만든 것이고, 모델이 된 백제가 동진에서 하사받은 ‘원본 칠지도’는 백제의 지하에 매장되었는지 파괴되었는지 그 소재는 명확하지 않다.

山尾씨는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칠지도를 하사받자, 백제에서는 이 ‘원본 칠지도’를 ‘모방’하여 뒷면에 왜왕에게 증정하는 까닭의 글을 상감하여 왜왕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데【山尾 1989】, 그 지적은 여기에서는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나중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왜왕을 위한 뜻을 갖고 만든다’(爲倭王旨造)의 ‘旨’와 ‘造’의 글자 뜻이 납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진이 ‘泰和 4년’(369년)에 칠지도를 제조한 배경에는 福永光司(1987)나 佐伯有清씨(1977), 山尾씨(1989) 등이 주장하듯이, 그 형태와 ‘百兵’을 ‘물리치는(辟)’ 것이 가능하다는 도교적 禁呪를 기대하는 신앙이 동진 사회에 융성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고찰해 보면, 앞면의 명문에서는 백제 왕권의 의지를 읽어낼 수가 없고 ‘侯王’에 ‘적절하다(宜)’란 황제에게 신하로 속하게 되는데, ‘原七支刀’를 하사받은 ‘侯王’이란 백제왕이 해당된다. 그 해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372년 정월에 동진에 견사하고, 그해 6월에는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되어, 책봉사를 맞아들이는데 그 무렵에 동진의 外臣이 된 백제왕에게 ‘原七支刀’가 하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가 동진의 正朔(연호)을 받들지 못하던 무렵에 백제 거주 중국계 지식인이 칠지도를 오리지널하게 만들어 그것에 동진의 연호를 새기고, 이것을 왜왕에게 보냈다는 鈴木씨의 추측(1983)은, 지식인이라면 책봉을 받지 않는 국제관계 하에서 백제왕이 왜와의 외교에 동진의 연호를 사용하는 사실이 무리임은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칠지도의 오리지(原七支刀)는 그야말로 동진에서 구조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년을 송의 ‘泰始 4년’(468)으로 판독했던 宮崎市定의 설(1982)에도 무리가 있다. 백제왕의 餘慶(개로왕)이 송의 大明 원년(457)에 鎮東大將軍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468년의 개로왕대에 백제가 백제 오리진으로 본 칠지도에 송의 연호를 새기는 것에 의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무령왕이 521년에 梁으로부터 寧東大將軍으로 책봉된 후에 그 능묘에 넣은 買地券에는 梁의 연호를 새기지 않고 간지를 이용했듯이 역시 백제는 책봉 하에서도 백제가 중국의 연호도 또한 백제의 독자적인 연호를 정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을 생각할 때, 칠지도의 기년을 ‘泰始 4년’(468)으로 판독해도 그 제작지는 백제가 아니라 당연히 宋朝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편 칠지도의 ‘泰和’는 중국 왕조로부터의 책봉과는 무관하며 백제의 독자적 연호로 여기는 延敏洙 씨의 설(1994)에서는 ‘泰和 4년’이란 오늘날의 사료 범위에서는 백제에 의한 유일무이한 연호 사용 유물이 된다.

또한 ‘泰△ 4년’으로 판독하는 이병도씨(1976)는 《일본서기》 神功紀 52년 9월조에 칠지도가 현상되었다는 기사에서 이 황후 52년은 임신년이며, 간지 2運을 내려가면 372년에 상당하지만, 이 해의 9월이야말로 칠지도의 ‘十六日丙午’의 간지에 상당한다고 하여, 여기에서 칠지도의 작성은 372년 9월 16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병도씨의 학설에서는 作刀 年月이 《일본서기》에서는 칠지도가 왜에 보내진 연월로서 편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씨의 학설에서는 ‘泰△ 4년’은 372년이며 그 원년이 369년이 되는 것이다.

이씨의 학설은 ‘泰△’로 판독하여 ‘泰和’라고는 판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진의 ‘泰和’ 연호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에 그 논지가 성립되고 있지만, 동진의 ‘태화 4년’이 백제로서는 ‘泰△’ 원년이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泰△’라고 판독하는 이씨의 설은 앞에서 서술한 판독과 마찬가지로 ‘泰和’ 판독 전에는 무리가 생긴다. 369년 무렵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하여 우세한 시기였다 하더라도 369년에 백제가 독자적으로 建元했다는 방증은 역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연민수씨도 ‘奉□ 4년’으로 판독하고 이것을 백제의 독자적인 연호로 무령왕 4년(504)이라는 설에도 방증은 없으며 또한 이 무렵에도 백제는 간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씨의 설과 함께 백제의 독자연호설은 현재의 사료 상황으로는 성립되지 못한다.

역시 칠지도의 기년명은 山尾幸久씨가 추정하듯이 동진에서의 作刀 시에 새겨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山尾 1989】. 이제까지 《일본서기》에서는 372년에 상당하는 神功皇后 攝政 52년에 칠지도가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현상되었다는 기사에 이끌려

칠지도를 백제와 왜국의 2국 관계로 한정하고 이를 百濟製로 간주해 왔지만, 그 전제에서 벗어나 칠지도의 원형을 동진에서 찾은 山尾씨의 고찰은 주목된다.

그런데 표면의 명문은 ‘나와서는 백병을 물리친다’는 주술 능력을 가진 칠지도를 盛夏 ‘5월’의 火氣가 강한 ‘丙午’ 날에, ‘백’번이나 ‘단련’한 소재를 사용한 정성들인 공정을 거쳐 완성했기에, 이 강한 주술 능력을 담은 ‘칠지도’는 ‘供供한(깊고 공손한) 【佐伯 1976, 1977】 ‘侯王’이 佩刀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侯王’은 ‘永年大吉祥’일 것이라는 완결된 定型文이다. 이것은 이대로 동진에서 황제로부터 ‘侯王’에게로의 하사품으로써 단조되었고, 그 주술 능력의 강력함이 기대되어 상감되었다고 무리없이 이해된다.

그런데 뒷면의 명문 글자체를 주시해 보면, ‘造’ ‘百’ ‘刀’ ‘王’이 表裏 양면에 모두 상감되어 있고 그 글자 형태는 山尾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차이가 많다 【山尾 1989】.

이러한 앞뒤의 명문에 나타난 동일 문자의 자형 차이는 단조 시의 앞뒤 명문의 상감이 다른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고, 山尾씨의 추정대로 앞면의 명문은 동진에서 주조된 원형 칠지도의 상감의 글자체가 모델이 되었으며, 뒷면에서는 ‘先世以來’ 백제에 없었던 원형인 ‘칠지도’를 ‘왜왕’을 ‘爲’해서 ‘만들(造)’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제왕의 명을 받아 원형의 칠지도를 모델로 하여 이 칠지도를 모방하여 ‘만들(造)’ 백제왕의 발의를 오리지널하게 표시한 글이다.

이렇게 읽게 되면 앞뒤의 명문에서 모두 칠지도를 ‘만들(造)’었다고 상감하고 있는 것의 위화감이 해소된다. 山尾씨의 학설대로 표면은 369년에 동진에서 우선 단련하여 ‘만(造)’들어진 칠지도가 372년경에 백제로 전해 졌지만, 山尾씨가 가칭으로 말하는 이 ‘원칠지도’의 명문 가운데에서, 백제왕은 ‘나(出)가서는 ‘百兵’을 ‘물리(辟)친다는 전승의 주술 능력의 의의를 이해하고 이 주술 능력과 이를 ‘侯王’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 백제왕에게 하사한 동진 황제의 은혜를 ‘왜왕’과도 누리기 위해, 이 ‘원칠지도’를 모방하여 새로이 ‘칠지도’를 ‘만들(造)’어, 즉 모조하여 왜왕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칠지도는 백제왕이 동진으로부터 하사한 표면에만 34문자의 명문을 가진 원 ‘칠지도’를 모방하여 그 뒷면에 이것을 왜왕에게 증명하는 경위의 글을 상감한 이른바 ‘모조 칠지도’라는 말이 된다.

백제왕이 ‘원칠지도’를 모조한 의도는 ‘爲倭王旨造’의 문구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즉, 이 ‘旨’이란 것이 이제까지 《宋書》 왜국전에 기록되고 소위 ‘왜의 5왕’의 이름에 끌려감으로써 ‘왜왕’의 이름으로 이해되어 왔다 【神保 1973】. 또한 宮崎(1982)는 이것을 ‘嘗’의 생략체이며, 이어지는 ‘造’에 연결되어 ‘처음’의 의미라고 이해했다. ‘嘗(처음으

로)은 뒷면의 冒頭에 있는 ‘先世以來未有此刀’를 받는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책봉 관계를 배후로 하여 ‘侯王’에게 하사되는 신속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명문에 나타난 ‘旨’는 우선 인명이나 부사로 파악하기 전에 황제의 의지를 나타내는 ‘聖旨’나 ‘慈旨’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칠지도의 뒷면의 명문에서는 이 ‘旨’의 6자 위에 명확한 ‘聖’자가 새겨져 있어서 ‘旨’는 이것을 은밀히 받는 문자로 이해된다.

‘旨’의 글자는 ‘聖’의 글자를 받는 글자 뜻으로 해석해야만 백제왕이 ‘원칠지도’의 명문의 의의, 즉 황제가 ‘百兵’을 물리치는 벽사와 ‘永年大吉祥’을 ‘侯王’에게 기원하는 ‘聖旨’를 이해하여, ‘원칠지도’를 그 명문과 함께 모조하여 이것을 왜왕에게 증정하는 외교의도가 뒷면의 명문으로부터 이해되는 것이다.

즉 ‘聖旨’를 받들어 모시어 ‘이 칼’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백제왕의 대외 외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 의도는 물론 백제의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과 태자는 369년에 대고구려전에서 유리한 형세를 획득하고, 372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6월에는 동진 외교에 성과를 올리고, ‘원칠지도’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구려와 대치하면서 동진의 책봉을 받은 외교의 새로운 전개를 왜왕에게 알리고, 왜국까지도 이 외교 라인에 가담시켜 대 고구려 라인의 강화를 꾀하는 백제의 대외 외교인 것이다.

단, 왜는 이미 369년의 백제·고구려 전에는 백제의 진영에 참전했다는 설이 있다【末松 1956】. 이 학설에 따르더라도 백제가 현존하는 칠지도(山尾 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백제에서 모방한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한 사실은, 백제가 동진을 배경에 두고 대 고구려 전략상 왜와의 제휴를 공고히 하는 외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鈴木 2002】.

뒷면의 명문에 입각하여 백제의 외교를 이해하면, 백제왕(근초고왕)과 태자, 그것은 372년 6월에 백제왕은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며, 이 관계로부터 볼 때 모조 시에는 태자를 ‘세자’라고 상감함이 가능했던 것이며, 백제왕과 ‘세자’는 ‘聖音(晉)’에 ‘奇(壽의 약자로 이해한다)生’한다, 즉 ‘생을 의지하게’ 된 것이다. ‘聖音’이든 ‘聖晉’이든 간에 모두 백제왕이 ‘侯王’이 되어 臣屬하는 동진의 황제나 그 은덕을 입음을 의식한 존칭이다. 그 ‘侯王’의 심볼 중 하나가 ‘侯王’이 佩刀하기에 적절하다고 하여 하사된 呪刀인 원 칠지도였다. 동진 왕조의 공방에서 정성스레 주조된 벽사의 주술력이 강한 것으로 기대된 원 칠지도가 백제왕에게 하사된 것은 백제왕의 고구려에 대비한 외교 의도를 동진이 수용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백제왕(근초고왕)과 세지는 동진 황제의 ‘聖旨’나 은덕인 ‘聖音’에 돌리고 이것을 왜왕과 공유하기 위해 呪刀인 원칠지도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川口勝康씨(1993)가 이 ‘聖音’은 동진 황제의 ‘敎令·指令’의 의미로 해석하여, 백제가 ‘칠지도’를 단조한 배경에는 동진 황제의 명령이 있다고 이해하여 동진의 외교 의도를 높이 평가한 것도 수긍이 된다.

이와 같이 앞뒤의 명문을 이해하게 되면 칠지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① 369년에 동진의 공방에서는, ‘侯王’이 패도하는데 적절하고, ‘나가(出)’서는 ‘百兵’을 ‘물리(辟)’침이 가능한 주술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는 칠지도를 단조하여 이 주술력이 높을 것을 바라며 정성들여 이 칼을 만든 경위를 34문자의 명문에 상감했다.

② 372년 정월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동진으로 첫 사신을 보낸 때인지 아니면, 이어지는 같은 해 6월에 근초고왕을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하는 동진의 사신을 백제는 영접하는 때인지 동진으로부터 칠지도가 백제에 하사되었다.

③ 백제에서는 동진의 ‘후왕’에게 적절하고, 또한 주술력을 지닌 칠지도가 하사되자, 그 주술력을 기대하면서 또한 동진 황제의 은덕을 널리 전하려고, 즉 ‘聖旨’를 받들어 모시어 칠지도를 모방하여 그 ‘聖旨’의 핵심인 표면의 34자의 명문에 덧붙여서, 백제가 칠지도를 모방하여 이 모조된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하는 경위를 뒷면에 27글자로 상감하여 왜왕에게 보내는 외교를 했다.

이러한 경위로부터 표면의 명문에 있는 ‘侯王’이란 우선 제1차적 의미로는 原 ‘칠지도’를 하사받은 백제왕이 동진의 ‘侯王’인 것이며, 백제는 왜왕을 백제의 ‘侯王’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이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모조된 칠지도를 백제왕으로부터 증정 받은 왜왕은 백제로부터 보면 동진에 대해서는 백제와 같은 위치에 있는 ‘侯王’이며, 이는 제2차적 ‘侯王’인 것이다.

④ 백제왕이 왜왕에게 모조한 칠지도를 증정한 외교적 목적은, 백제왕이 동진의 책봉을 받고 ‘侯王’이라는 外臣이 되었지만, 그 연장선상에 왜왕을 두고 백제의 대 고구려 전략에 왜왕이 함께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⑤ 《일본서기》는 ‘칠지도’ 등의 ‘獻’상에 이어,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라고 백제 사신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谷那 鐵山이 철의 공급지인 것을 사자가 진술하는 것은 모조 칠지도의 원료가 이곳의 철이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⑥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의 근초고왕은 즉위 23년(368) 3월에 신라에 遣使하여 준마 2필을 증정하고 통교했었기 때문에, 이 372년에 이르러 백제는 동진과의 관계를 핵으로 하면서 왜와도 통교하여 고구려에 대비한 남방 라인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압력 앞에 곧 이 라인에서 이탈하여 고구려와 제휴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존하는 칠지도의 뒷면의 명문은 아래와 같이 해석해야만 백제가 동진을 배경으로 하여 왜와 관계를 맺은 외교 의도가 이해될 것이다.

先世以來, 아직 이와 같은 (형태의, 또 그런 고로 백병을 물리칠 수 있는 주술력이 강한) 칼은 (백제에는) 없었다. 백제왕과 세자는 동진의 책봉을 받아, 생을 성스런 팝의 황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동진 황제가 백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신 ‘뜻(旨)’을 왜왕과도 공유하고자 하사받은 칠지도를 (모방하여) ‘만들(造)’었다. 후세에도 영원히 이 칠지도와 여기에 담긴 동진 황제의 뜻을 전하여 보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백제왕이 동진에서 하사받은 칠지도(원칠지도)를 모조한 현존하는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한 그 외교 자세에는, 백제왕은 왜왕까지도 자신과 동일하게 동진의 ‘侯王’이 될 국제관계를 구상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傳示後世’의 말 뜻이 동진을 배경에 둔 백제의 왜국에 대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후의 백제와 왜국의 관계를 아래에서 보면 그 외교는 성공한 것이다.

### 【七支刀를 둘러싼 국제관계】

전술한 대로 백제에서는 동진으로 처음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음과 함께 하사받은 칠지도를 모조하여 이것을 왜왕에게 증정한 외교적 배경에는 백제가 직면하는 대외관계가 있었다. 《삼국사기》 권24·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23년(368) 봄 3월에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준마 2필을 증정하며 통교한 한편 다음 해(369) 9월에는 고구려왕인 고국원왕이 步騎 2만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해 왔으므로 근초고왕은 태자에게 병사를 붙여 이를 격파시키고 5천여 포로를 획득했다. 같은 해 겨울 11월에도 백제는 한수 이남에서 열병을 하고 동 26년(371)에는 다시 고구려의 습격을 받았으므로 근초고왕은 溟河에서 고구려군을 급습하고 고구려군을 패주시켰다. 같은 해 겨울에 근초고왕과 태자는 3만의 정

예병을 이끌고 북상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이 전투에서는 웅전하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할 정도의 승리를 백제는 얻었다.

이 고구려전에서 승리한 후에 백제는 다음 해 372년 정월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 헌상하고, 같은 해 6월에 근초고왕은 동진의 사자를 영접하여 ‘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책봉된 것이다. 이 때 백제는 전술했듯이 칠지도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을 모조하여 왜왕에게 증정하는 외교를 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神功皇后 攝政 52년(372) 9월의 일로 우선 판단되지만, 이에도 검증이 요구된다. 《일본서기》는 일본이 율령국가로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신라 및 백제, 고구려의 관계사를 이야기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칠지도가 백제에서 ‘헌상’되었다고 기록하며, 《古事記》에서는 중권의 應神天皇記에 ‘照古王’이 ‘橫刀’를 ‘貢上’했다고 기록하지만, 전술한 백제로부터의 모조된 칠지도의 증여의 건은 372년 9월보다 조금 후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백제는 368년에는 신라와 통교하여 고구려전을 유리하게 진행시켰고 또한 372년에 동진의 외신이 된 국제관계를 구축하자 바로 이 라인 위에 왜국을 참여시켜, 고구려에 대비한 남방 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왜왕에게 증정하는 외교의 前史는 《일본서기》 권9·神功皇后 46년조에 의하면 ‘甲午年(364)’에 백제가 가야의 卓淳國에 사자를 파견하여 왜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백제는 왜국으로의 통교와 관련하여 가야 제국에도 통하고 있다. 《일본서기》 권19·欽明天皇 2년(541) 4월조에는 백제의 성명왕이 근초고왕대를 회고하며 安羅·加羅·卓淳의 牟岐 등이 처음 백제와 통교하고 ‘子弟’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백제의 남방 라인 형성에는 우선 가야 諸國이 불가결한 존재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주변의 왕권과 중국의 황제 사이에 한번 책봉관계가 성립되면 책봉관계를 통하여 황제의 은덕을 주변에 더욱 넓힐 것을 종주국은 被册封國에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피책봉국은 왕의 권위와 그 위치 보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인접국의 왕권을 책봉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백제를 매개로 하는 중국 남조와 왜왕이나 가야 諸國과의 사이에 6세기 전반까지 계속되는 백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남방 라인이 개시된 것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스스로 구축한 동쪽의 신라와 서쪽의 동진, 그리고 남쪽의 왜국과 가야 제국을 잇는 남방 라인의 외교 체제로 북쪽의 고구려에 대항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는 양국이 일진일퇴의 전투를 4세기 말 고구려의 광개토왕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라는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일찍이 377년에는 백제의 남방 라인으로부터 이탈하여 고구려에 영입되고 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의 신라의 동향이다. 《삼국지》 魏書·韓傳에 辰韓 12국 중 한 나라로서 ‘斯盧國’이 보였지만, 《晉書》에서는 3세기 말에 서진과 통교한 ‘馬韓辰韓等 東夷諸國’으로 일괄될 정도로 왕권은 아직 諸國을 초월하지 못했다. 그런데 377년에 이르러 신라의 이름으로 前秦에 遣使한 사실이 《자치통감》 권104·晉紀·烈宗에 “太元二年(377)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이라고 보인다. 이것은 前燕이 前秦에게 멸망당한 후에 고구려와 신라가 前秦에 견사한 외교지만, 여기에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진에 입공한 사실에 신라가 백제의 라인에서 이탈하여 고구려를 따른 동향이 나타나 있다.

이어서 《太平御覽》 권781·四夷部 2·東夷 2·新羅에는 《秦書》를 인용하여 “符堅建元十八年,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 獻美女, 國在百濟東, 其人多美髮, 髮長丈餘. 又曰, 符堅時, 新羅國王樓寒, 遣使衛頭朝貢. 堅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何也. 答曰, 亦猶中國時代變革, 名号改易”라고 되어 있다. 이 前秦王 符堅의 建元 18년(382)에 이르러 명확히 ‘신라국’의 이름으로 신라왕 樓寒(내물왕)이 北朝의 前秦에 통교하고 있지만, 이 외교에도 고구려의 협조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신라는 고구려에 이끌려 북조로 이어지는 북방 라인에 편입되었지만, 이 라인은 5세기 말까지 계속되게 된다【井上 2000】.

한편 백제는 《晉書》 권9·孝武帝紀에는 “大元九年(384)七月, 百濟遣使來貢方物”이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같은 책 “大元十一年(386)夏四月, 以百濟王子世孫餘暉, 爲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이라고도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전투를 계속하는 가운데 신라의 이탈이 있으면서도 동진의 책봉체제 가운데 ‘백제왕’으로 인지되어 왜국에 앞서 남조의 책봉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 간다.

그런데 이 동안 왜국의 정세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3세기 이래로 종종 신라의 변경을 습격했다고 되어 있지만 나물이사금 9년(364)에 신라로 침입한 후에는 동 38년(393)까지 침입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에 걸쳐서 왜, 백제와 가야 제국의 남방 라인에 서서 고구려와 신라의 북방 라인과 충돌하 것은 고구려 입장에서 이것을 414년에 기록한 광개토왕 비문으로 알 수 있다.

### 【참고사료】

- ① 《日本書紀》 卷9·神功皇后攝政 ‘五十二年(372年)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氐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逸七

日行之不及. 当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海東貴國是天所啓. 是以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國基永固. 汝当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絕, 雖死何恨. 自是後每年相續朝貢焉. 五十五年(375年), 百濟肖古王薨. 五十六年, 百濟王子貴須立爲王’

- ②《古事記》中卷·應神天皇記‘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 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1卷, 并十一卷, 付是人卽貢進. 〔此和爾吉師者文首等祖〕’
- ③《三國史記》卷24·百濟本紀第2‘近肖古王, 比流王第二子也. 體貌奇偉, 有遠識. 契王薨, 繼位’
- 同 二十三年(368年)‘春三月丁巳朔. 日有食之.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二十四年〔369年〕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闕於漢水南. 旗幟皆用黃’
  - 同 二十六年(371年)‘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淇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 同 二十七年(372年)‘春正月. 遣使入晋朝貢’
  - 同 二十八年(373年)‘春二月. 遣使入晋朝貢’
  - 同 三十年(375年)‘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舉兵報之. 以年荒不果.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 同 ‘近仇首王〔一云, 諱須〕. 近肖古王之子. 先是高句麗國岡王(故國原王〔一云, 國岡上王 … 濱田〕)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後. 疇克再至於此乎. 其地有巖石罅若馬蹄者. 他人至今呼爲太子馬迹. 近肖古在位三十年薨. 卽位’
  - 同 三年(377)‘冬十月. 王將兵三萬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 同 五年(379)‘春三月, 遣使朝晋.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 同 十年(383)‘夏四月. 王薨’
  - 同 枕流王‘近仇首王之元子. 母曰阿爾夫人. 繼父卽位. 秋七月. 遣使入晋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晋至. 王迎之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 同 二年(385)‘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 ④《晋書》卷9·簡文帝‘咸安二年(372)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 各遣使貢方物.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

## 【참고문헌】

- 榎本杜人, 1950 <石上神宮七支刀の銘文> 《日本考古學協會第六回總會研究發表要旨》
- 榎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その銘文> 《朝鮮學報》 第3輯
- 榎本杜人, 1953 <七支刀の年代について> 《日本考古學協會第11回總會研究發表要旨》
- 榎本杜人, 1954 <石上神宮の七支刀> 《ミュージアム》 35
- 榎本杜人, 1955 <古代における金石文,七支刀> 《日本考古學講座》 5 (河出書房)
- 榎本杜人, 1960 <七支刀> 《アジア歴史事典》 4 (平凡社)
- 榎本杜人, 1968 <七支刀銘文再考 - 青丘考古記3 - > 《朝鮮學報》 第49輯. 후에 上田正昭編,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日本史>(平凡社)에 수록
- 川口勝康, 1993 <刀劍の賜与とその銘文> 岩波講座《日本通史》 第2卷, 古代1
- 菅 政友, 1907 <石上神宮ノ寶庫所藏六叉刀銘> 《菅政友全集》 雜稿三 수록 (國書刊行會) 成稿는 1885년경
- 菅 政友, <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七支刀> 《同上書》 雜稿一 수록
- 菅 政友, <任那考> 《菅政友全集》수록. 1893년 원고
- 木村 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第306号 (東京都立大人文學部)
- 金 錫亨, 1963 <三韓三國の日本列島内の分國について> 《歷史科學》 1. 일본어역은 鄭晋和譯이 《歷史評論》 165・168・169(1964年5月・8月・9月)과 村山正雄・都龍雨譯, 1964년 11월 (朝鮮史研究會). 및 井上秀雄・旗田巍編, 1974년 11월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가 있다.
- 金 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 - 大和政權と任那》朝鮮史研究會譯 (勁草書房)
- 佐伯有清, 1976 <七支刀の銘文を讀む - <宣供供侯王>의新解釋> 《別冊週刊讀賣》
- 佐伯有清, 1976 <七支刀銘文の問題点> 《北海道新聞》 1976년 1월 13일자, 후에 同 《日本古代史의 風貌》 1977년 9월 (吉川弘文館) 수록
- 佐伯有清, 1976 <“供供”의謎を解く - 七支刀銘文의新解釋 - > 《歷史書通信》 12. 후에 同 《日本古代史의 風貌》 수록
- 佐伯有清, 1976 <ひきがえると七支刀(1)>, <ひきがえると七支刀(2)> 《歷史地理教育》 248・249号. 후에 同 《日本古代史의 風貌》 수록
- 佐伯有清, 1976 <七支刀銘文その後> 《北海道新聞》 4월 15일자
- 佐伯有清, 1977 《古代史演習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 佐伯有清, 1988 《三國史記倭人傳》 (岩波文庫)
- 神保公子, 1973 <七支刀研究の歩み> 《日本歷史》 第301号
- 神保公子, 1975 <七支刀の解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第84編 第11号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1956年9月に吉川弘文館再版. 1986년 7월에 《古代の日本と朝鮮》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吉川弘文館>에 수록
- 鈴木靖民, 1980 《増補古代國家史研究の歩み》 <3.ヤマト政權の生成 - 七支刀의意味 - > (新人物往來社)
- 鈴木靖民, 1982 <四世紀後半の百濟と日本の關係 - 七支刀銘を中心として> 《歷史公論》 第8卷 第4号・通卷77号
-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博士頌壽記念《日本史學論集》上卷 (吉川弘文館)
- 鈴木靖民, 1999 <同時代史料で讀む激動の東アジア-七支刀と廣開土王碑-> 《This is 讀賣》 1999년 2월호
-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鈴木靖民編・日本の時代史2《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田中俊明, 200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加耶琴だけが残った-》(吉川弘文館)
- 濱田耕策, 2005 <百濟紀年考> 《史淵》 142輯(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
- 濱田耕策, 2005 <4世紀の日韓關係>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第1分科篇>》(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 福永光司, 1985 <石上神宮の七支刀> 《京都新聞》昭和60年2月7・8日付. 후에 同 《道教と古代日本》 1987(人文書院) 수록
-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第158号
-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補考> 《美術研究》 第162号
- 福山敏男,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再補> 《美術研究》 第165号  
(이상의 3편은 일부 수정되어 <石上神宮の七支刀銘文>이라는 제목으로 《日本建築史研究》 1968년 6월(墨水書房), 또 上田正昭 編,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2卷 <日本史> 1971년 5월(平凡社)에 수록)
- 藤井 稔, 1995 <影印《外來金器文字記》資料並びに解題> 《朝鮮學報》 第155輯
- 藤井 稔, 1995 <菅友友による七支刀銘文の釋讀について-大和國石上神宮寶庫所藏六叉刀>と《外來金器文字記》の紹介を兼ねて-> 《古墳文化とその傳統》 西谷眞治先生古稀記念論文集(勉誠社)
- 宮崎市定, 1983 《謎の七支刀-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中公新書. 후에 中公文庫 <1992년 1월>에 수록, 또 《宮崎市定全集》 21 <1993년 2월, 岩波書店>에도 수록
- 宮崎市定, 1984 <七支刀銘文試釋> 《東方學》 第64輯. 후에 同 《古代大和朝廷》 <1988년 9월>(筑摩書房) 및 《宮崎市定全集》 21 <1993년 2월>, (岩波書店) 수록
- 村山正雄, 1979 <<七支刀>銘字一考-樞本論文批判を中心として->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編 《朝鮮歷史論集》上卷, 龍溪書舍.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 <1996년 12월>(吉川弘文館)에 수록
- 村山正雄, 1979 <《七支刀》銘字調査の一端> 《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青山學院大學史學研究室) 후에 同朋社에서 再刊. 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 <1996년 12월>(吉川弘文館)에 수록
- 村山正雄, 1982 <七支刀銘文の<侯王>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04輯.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 <1996년 12월>(吉川弘文館)에 수록
- 村山正雄, 1985 <<七支刀>に關する宮崎市定論文につい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歷史編》(平凡社),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 <1996년 12월>(吉川弘文館)에 수록
- 村山正雄, 1990 <石上神宮・七支刀銘文發見の經緯と若干の新知見> 《朝鮮學報》 135. 후에 同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 <平成 8년 12월>(吉川弘文館)에 수록
- 村山正雄, 1996 《石上神宮七支刀銘文図録》(吉川弘文館)

## ◆圖版編◆釋文編

- 七支刀銘釋文比較表について
- 七支刀銘釋文比較表

## ◆論文編

- 七支刀銘字一考
- 七支刀銘字調査の一端

- 七支刀銘文の<侯王>について
- ‘七支刀’に關する宮崎市定論文について
- 七支刀銘文發見の經緯と若干の新知見
- (補論1)<坂元義種論文>百濟侯王制の存在についての再批判
- (補論2)<宮崎市定論文>とくに銘文裏面部の讀み方について
- (補論3)<山尾幸久論文>その道教說の根據について
  - [追録]<外來金器文字記>その他新資料の發見
  - [図版]<外來金器文字記> <石見見聞志>(抄)菅家所藏
- 山尾幸久, 1981 <七支刀の銘について> 《村上四男博士和歌山大學退官記念朝鮮史論文集》(開明書院)
-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III編東アジア史,5章倭王權と東アジア, 2節石上神宮藏七支刀の銘文>(岩波書店)
- 山尾幸久, 1986 《日本古代の國家形成》(大和書房)
-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前篇3章1節<石上神宮七支刀銘の百濟王と倭王>(塙書房)
- 吉田 晶, 2001 《七支刀の謎を解く - 四世紀後半の百濟と倭》(新日本出版社)
- 延 敏 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檢討 - 年号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 《年報 朝鮮學》4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 李 丙 壽, 1980 《韓國古代史研究 - 古代史上の諸問題 -》 <百濟七支刀考> 學生社. 原載は 《韓國古代史研究》<1976년 3월> (博英社, 서울)

### 제3절 광개토왕비문의 일한관계 - 고구려·신라의 국가 형성과 왜국 -

낙랑군이 40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남쪽 반을 분할한 대방군은 약 100년 동안 반도 북부 지역을 중국의 전제 왕조에 의한 중앙 집권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그 지배는 한반도 북부에 문명과 정치 통치의 수법을 가져오고 정치의 각성을 초래했다.

중국왕조의 혼란과 고구려 죽이나 한족의 정치나 문화의 각성은 마침내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그리고 다음해 314년에 대방군의 지배 장치를 반도 지역으로부터 철수시켰다.

그래서 4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반도와 열도의 양 지역과의 관계는 이윽고 격렬한 병탄을 목표로 한 전쟁의 반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구려의 남하 전에 백제국이 마한 54국 중에서 그 한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로의 국가 통합 과정으로, 또한 열도지역에서는 아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통일왕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다.

369년 가을 9월에는 광개토왕의 祖父인 고국원왕이 步騎 2만을 거느리고 남하해 왔으

므로 백제의 근초고왕은 태자에게 명하여 병사를 인솔하여 맞아 치게 함으로써 5천 여의 포로를 획득하고, 11월에는 한강에서 황색 군기를 올린 병사를 열람했다. 백제가 고구려전에서 황색 군기를 올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된다.

371년에도 고구려 병사가 백제 지역에 습격해 오자 이번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전력을 다해 싸우는 가운데 날아온 화살에 맞아 전사한 바 양군은 병사를 후퇴시켰다.

백제가 이 승리를 얻고 도읍을 한산으로 이전한 사실은 고구려에 대한 방위체제의 강화와 함께 백제의 왕권이 옛 마한 54국의 북부를 향한 통치가 진행되고 또한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백제는 372년 정월에 동진에 처음 조공하고, 같은 해 6월에는 근초고왕(《晋書》 권9·簡文帝에서는 백제왕 餘句)은 ‘鎮東將軍領樂浪太守’로 책봉되었다. 이 외교 가운데 백제왕은 칠지도를 하사받았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왕인 근초고왕과 그 태자가 구축한 왕권은 372년 동진에 견사하고 동진의 황제권력의 외교와 군사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칠지도를 모조하고, 같은 해 9월경에는 왜왕에게 증여하여(《일본서기》 권9, 神功皇后 攝政 52년), 계속되는 고구려로부터의 위기 속에 있는 백제에 왜의 병력이 가담하기를 요청했었다.

여기서 왜왕의 군대가 백제의 대 고구려전에 참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과 이를 인정하는 학설도 있다【末松 1949, 鈴木 2002】. 그 참전이 왜왕의 주도적 행동인지 아닌지 왜왕은 철 등의 실용과 위세품 재화를 얻는 실리의 목적으로 백제왕의 요청에 응하여 백제의 대 고구려전에 참전했다는 등의 학설도 있다.

이 후에도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계속된다.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 의하면, 375년 가을 7월, 376년 11월, 377년 10월, 같은 해 11월, 386년 8월, 389년 9월, 390년 9월 등 교전 기록은 계속된다. (뒤의 게재 자료 참조). 또한 <백제본기>에는 그동안에도 387년 9월, 391년 4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반 백제 자세와 연계되는 말갈로부터 공격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러한 백제와 고구려의 계속되는 전투에 왜병이 주도적이든 수동적이든 백제의 전열에 참전했었다는 기록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서기》 권9의 神功皇后 49년조가 윤색된 ‘新羅征討’ 이야기(나중에 게재되는 《일본서기》 참조)가 상기되지만, 直截의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의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신라본기>에서는 여기에 앞선 나물이사금 왕대인 364년 4월에 왜병은 대거

신라 왕성 근처에 침입했다가, 패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년 후인 366년 3월과 368년 봄에 백제는 신라와 서로 빙문하며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는 국제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그 기간에는 왜병이 신라를 침범한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왜국이 반신라·친백제의 입장에 있었던 사실이 《삼국사기》에 서도 고찰된다. 그 유명한 칠지도가 백제와 왜와의 군사적 상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납득이 된다.

그래서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비문이 동시대의 사료로서 4세기 후반의 고구려, 백제, 신라, 任那加羅와 왜국의 관계를 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단, 동시대의 사료로서의 비문은 동시에 건립 동기가 명료하지만, 그 때문에 시대의 인식이 비문에 직접 반영되는 점에 조심하게 된다.

이 비석은 1880년에 청조 정부가 압록강 유역의 주민을 관리하는 현을 설치하는 준비를 위해 현지조사에 들어간 懷仁縣知縣의 章樾의 幕下에 있던 關月山으로 인해 발견되었다. 다음해 1881년에는 ‘墨水廓墳’의 기법에 의한 탁본 제작이 시작되었다. 또한 1883년 4월부터 8월의 사이에 현지에 兵要地誌의 정보 조사에 들어간 일본 육군 참모본부 부원인 酒匂景信이 ‘墨水廓墳’ 탁본을 한 벌 구입하여 그해 말에 酒匂는 귀국했기 때문에, 1884년부터는 참모본부에서 酒匂가 가져온 탁본 조사에 관계한 사람들에 의해 탁본의 비문 연구는 개시되었다【武田 1988, 2007, 2009】.

1889년에는 横井忠直에 의한 ‘高句麗古碑考’ 등의 비문 연구가 아시아협회에서 발행하는 《會餘錄》 제5집에 특집이 된 이후부터 ‘왜가 辛卯年(391)에 渡海하여 백제, 신라를 破하고 臣民으로 삼았다’는 이해가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기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박시형씨(1967, 1985)와 김석형씨(1969)의 비문 연구가 일본에 번역 소개되자, 비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의 재검토가 활발하게 되었다.

또한 이진희씨가 1972년 이후에 酒匂가 일본에 가져온 탁본은 酒匂가 비석에 석회를 바르고 문자를 개찬한 부분이 ‘辛卯年’ 조를 처음으로 볼 수 있다는 근본적 비판이 뜨겁게 발표되었다. 사학사에 잠긴 사료의 안일한 이용을 경계하고 또한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고대 日朝關係史 연구에서 숨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적 자세에 반성을 환기하는 이씨의 논조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佐伯 1974】.

또한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의한 酒匂 이외의 兵要地誌 자료의 조사가 진행되어 비석이 서있는 集安에서의 酒匂의 행동도 구체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山近·渡辺 2008】

그러나 王健群씨가 비석이 서있는 현지에서 탐문 조사를 진행하고 비석의 옆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탁본의 판매를 생활의 양식으로 했던 탁본 공의 친척들로부터 비면의 석회는 탁본 채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비문의 글자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王 1984】. 또한 武田幸男씨는 酒匂가 가져온 墨水廓墳의 탁본보다 초기에 탁본된, 즉 비면을 그대로 떠낸 원석 탁본에 대해 水谷悌二郎씨(1959)가 일찍이 추진했던 조사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원석 탁본을 국내와 한국, 대만에 함께 6부를 확인하고, 그 중 4본을 사진으로 소개하거나, 또는 탁본공이 석회를 바른 후 다수의 석회 탁본을 형식 분류하고 이것을 소개하였다【武田 2009】. 한국에서는 林基中씨(1995)가 북경 소재의 4본의 원석 탁본을, 그리고 북경에 거주하는 徐建新씨(2006)는 북경 소재의 7본의 원석 탁본과 1본의 墨水廓墳 탁본을 확인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학계에 제공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비석에 대한 개찬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拓工에 의한 탁본 채취의 功利를 위한 석회 도포가 확인되어 원석의 탁본에 근거하는 비문 연구가 진정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래서 비문은 412년에 흥거한 광개토왕이 대백제전에 있어서의 결과, 그리고 신라를 공격하는 왜를 敗退시킨 전과, 신라가 고구려에 대한 종속의 심화 등, 이 왕의 여러 전과를 눈부시게 현창할 목적 하에 이러한 것들을 교묘한 구문과 문맥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문의 교묘함에 주의하면서 고구려, 백제, 왜, 신라, 가야의 관계 기술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南攻取壹八城白模盧城各模盧城幹氏利城□□城彌闡城牟盧城彌沙城□舍葛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句牟城古須耶羅城莫□□□□城□而耶羅城城於利城農賣城豆奴城沸□□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婁賣城散□城那旦城細城牟婁城丐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城□□□□□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閨奴城貫奴城彡穰城□□城儒□盧城仇天城□□□□城□其國城□不服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迫城□□侵穴□便圍城而殘主困逼獻□男女生白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迷之御愆錄其後順之誠於是□五十八城村七百將殘王弟并大臣十人旋師還都

永樂 ‘6년’(396년). ‘백잔과 신라는 舊(원래),’부터 고구려의 ‘屬民’이며, 그래서 고구려에 ‘朝貢’해 왔다. 그런데 ‘왜’가 ‘辛卯年 (391년)부터 그 이래로, 渡海하여, 百殘을 破하고, 【동으로·武田 2007, 2009】 신라를 □하여 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大‘王’은 ‘軍을 躬率’하여 ‘殘國’(백제)을 ‘討伐’했다. 大王‘軍’이 ‘南’으로 ‘공격(攻)’하여 ‘取’한 성은 다수였다. 그러나 ‘그 國城(백제)은 義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百戰’해 왔다. 그래서 大‘王’은 ‘威’로써 ‘赫怒’하여 ‘阿利水’를 ‘건너(渡),’ 그 國‘城’을 ‘포위(圍)’하자, ‘殘主’(백제왕)는 ‘困逼’하여, 남너 生口 천 명과 細布 千.

匹'을 '獻'하고, 大'王'의 앞에 '무릎꿇고(跪)', '以後' '영원히(永)' (大王의) '奴客'이 될 것을 '스스로 맹세(自誓)'했다. '太王'은 百殘王(백제왕)의 '□迷의 愆(잘못·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에 격과당하여 왜왕의 '臣民'이 된 것)'을 '恩'으로 '赦'하고, '後順의 誠(이후 오랫동안 大王의 奴客이 되겠다는 서약)'을 記'錄'했다. 그래서 태왕의 군은 백제의 '五十八城'과 '村七百'을 □하고, 殘主(백제왕)의 弟'와 '大臣十人'을 '거느리고(將)' '師'를 '돌려(旋)' '수도(都)'로 '돌아(還)'왔다.

◎八年戊戌教遣偏師觀帛愼土谷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  
永樂 '8년'(398년). 大王은 '偏師'를 肅愼土谷에 '教遣'하여, '莫□羅城과 加太羅谷의 남녀 삼백 여 인'을 '抄得'했다. '此 以來로, (肅愼土谷은) 朝貢하고, 事를 論'하게 되었다.

◎九年己亥百殘違誓与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稱其忠誠□遣使還告以□計.  
永樂 '9년'(399년). '百殘'이 奴客이 된다는 '誓'를 '어기고(違)', '倭'와 '和通'했기 때문에, 大'王'은 '平穰'에 '巡下'했다. 그러자, '신라'는 '使'를 '보내(遣)'어 大'王'에게 '白'하여 '말(云)'하기를, '왜인은 그 國境에 가득(滿)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있습니다. (太王의) 奴客이란 (그 신분은) 민이기 때문에, 왕에게 歸하여 命을 請합니다'라고. 그래서, '太王'은 '恩慈'로써(신라왕이 太王의 奴客이 된다고 歸服해 온) 그 '忠誠'을 '稱'송하여, 신라의 '使'者를 신라에 '돌리(還)'며 '□計'를 신라왕에게 '告'하게 했다.

◎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侵背急迫至任那加羅從拔城城即歸服安羅人戍兵□□□□城倭□倭潰城大□□□□盡□□□安羅人戍兵滿□□□□□□□□□□□□□□□□倭□□□□□□□□興□□□□□□□□□□辭□□□□□□□□□□□□潰□□□□安羅人戍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僕勾□□□□朝貢.  
永樂 '10년'(400년). 태왕은 '步騎五萬'을 '教遣'하여, '가(往)'서 '신라'를 '救'했다. 軍은 '男居城'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렀던 바, '倭'는 '그 안(其中)'에 '가득(滿)'했지만, '官軍'이 '方(실제)' 신라성에 '달하(至)'려 하자 '倭賊은 물러(退)'났다. '官軍'은 '急迫'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에 이르자마자, 城은 즉시 歸服'했다. '安羅人 戍兵은 ... 왜는 ...' '옛날(昔)'에는 신라의 (王인) 寐錦은 아직 스스로 와서 事를 論'한 적은 없었지만, '(國岡上廣) 開土境好太王'의 신라 救援戰의 성과가 올라, 신라의 왕자 '僕勾'가 ... '朝貢'해 왔다. 강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率□□從平穰□□□鋒相遇王幢要截濫剋倭寇潰敗斬殺無數  
永樂 '14년'(404년). '왜'가 '不軌' 하기도 '帶方界'에 '侵入'하여, '連船'했으므로, 大王은 '躬率'하여 '平穰'으로부터 '□□'하여, 이것과 싸웠다. '倭寇'는 '潰敗'되어, 大王軍이 '斬殺'하는 자 無數'했다.

◎十七年丁未教遣步騎五萬□□□□□□□□師□□合戰斬殺蕩盡所獲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住城□□□□□那□城

○永樂 '17년'(407년). 大王은 '步騎五萬'을 '教遣'하여, ... '合戰'하고, 敵을 '斬殺'하고, 이것을 '蕩盡'시켰다. '穫'한 '所'의 '鎧鉀'은 만여 領이며, '軍資器械'는 '數'를 '세는(稱)'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軍은 '돌아가(還)'고, '沙溝城' 등의 六城을 타파했다.

비문은 고구려 중심의 사관에 입각하여, 광개토왕대의 전과를 대왕의 훈적으로서 기록하고 거기서 구축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를 후세에 국가의 전례로서 전하는 것에 제1차적 목적이 있다.

비문은 신묘년조 가운데에서 대왕 즉위 이전의 고구려, 신라, 백제, 왜의 관계를 고구려 중심으로 제시한다. 즉 '百殘과 신라는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고구려에 '조공'해 왔지만, '왜'가 '신묘년(391년)부터 그 이래로, 도해하여, 백잔을 타파하고, 신라를 □하여 신민으로 했다'는 사실에서 '원래(舊)'의 백제와 신라로부터의 조공은 단절되었다고 한다. 이 신묘년조는 이러한 4자 관계의 그 후의 전개를 비문에 명기하기에 앞선 '大前置文'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濱田 1973, 1974, 武田 1978, 1989】 .

신라는 제처 놓더라도 백제가 대왕의 즉위 이전에 고구려의 '속민'으로써 '조공'했었다는 말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는 양자는 교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대왕의 조부 왕이었던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전투 중 371년에 전사까지 했던 것이다.

이 관계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고구려의 '속민'이며,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고 하는 것은 고구려 중심사관이 극도에 달한 표현이다. 여기에 신라를 가담시켜 '속민'이 고구려에 '조공'했던 관계가 대왕의 즉위 전에 왜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한 줄을 대왕의 훈적을 명기하는 기년 기사의 필두에 제시한다.

이러한 왜에 의해 단절된 '속민'인 백제와 신라의 두 나라가 고구려에 '조공'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원수인 왜를 격퇴하는 것이야말로 즉위 직후의 새 왕인 대왕이 재위연간에 획득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다.

대왕은 이 과제를 거의 달성하고 있다. '舊(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라고 고구려가 인식한 '신라'를 永樂 10년(400년)에 대왕이 '步騎 5만 명'을 '教遣'하여, '倭賊'으로부터 '救'했는데, 이것으로 '옛(昔) 신라(왕)인 寐錦(王)은 아직 스스로 (고구려에) 와서 일에 대해 논한 적은 없었지만,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신라를 구한 전투의 성과가 올라, 신라 왕자 '僕勾'가, ... '조공'해 온 것이다. 이에 '속민'인 신라의 '조공'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에 대해서는 大'王'은 '軍을 躬率'하여 '殘國'(백제)을 '討伐'했다. 그 전황은

앞에 쓴 永樂 6년조에 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大王 ‘軍’은 ‘남’쪽으로부터 ‘공’격하여, 탈‘취’한 성은 다수였지만, ‘그 國城(백제)’은 저항해 왔다. 그래서 大‘王’은 ‘威’로써 ‘赫怒’하여, ‘阿利水(漢江)’를 ‘건너(渡)’서, 백제의 왕성을 ‘포위(圍)’하자, 백제왕은 ‘곤핍’하여, 남녀 生口 천 명과 細布 천 필’을 ‘獻’하고, 대‘왕’의 앞에 ‘무릎 꿇고(脆)’, ‘이후부터’ ‘길이길이(永)’ (대왕의) ‘노객’이 될 것을 ‘스스로 맹세’한 것이다. 그래서, ‘대왕’은 백제왕(백제왕)’을 ‘恩’으로써 ‘赦’하고, 백제의 ‘58성’과 ‘촌 칠백’을 획득하고, ‘殘主(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거느(將)’리고 ‘都’로 개설했던 것이다.

여기서 고구려가 획득한 백제의 ‘58성’과 ‘촌칠백’의 땅은 평양 이남으로부터 한강이 북 근처의 지역이며, 이후 ‘14년’(404년)에 ‘왜’가 ‘불궤’하게도 ‘침입’했던 ‘대방계’의 지방일 것이지만, 백제왕은 이 영락6년의 패전에서는 ‘노객’으로 종속을 강화되게 된다.

그런데 3년 후인 영락 9년(399년)에는 ‘백잔’은 대왕의 노객이 되는 ‘誓’를 ‘어기(違)’고 ‘왜’와 ‘화통’했다. 그래서, ‘대왕’은 백제를 징계하기 위해 ‘평양’으로 ‘순하’했던 것이다.

왜는 고구려의 ‘노객’이 된 백제를 고구려로부터 이탈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신라는 ‘평양’으로 ‘순하’한 대왕의 아래에 사자를 ‘遣’하여, ‘왜인’이 신라의 ‘국경에 가득차, 성지를 궤파’하고 있는 신라의 궁상을 보고시키고, ‘신라왕은 대)왕에게 歸하여, 목숨을 구해줄’ 것을 대왕에게 말씀드렸다.

여기에 이르러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신라와의 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야 말로 왜라는 사실에서 대왕은 왜를 향해 격퇴전을 하게 된다.

‘대왕’은 우선, ‘恩慈’로써(신라왕이 대왕의 노객이 된다고 하여 귀복하러 온) ‘충성’을 ‘칭송’하고, 신라의 ‘사’자에게 신라의 구원책을 신라왕에게 ‘고’하게 하지만, 그 방책이란 다음 해의 신라 구원전에서 실현된다.

영락 10년(400년)에는 대왕은 ‘보기 5만’을 ‘교견’하여, ‘신라’를 ‘구’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그 전황은 고구려군은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 (신라의 왕성인 금성)’에 ‘이르’렀던 바, ‘왜’는 앞의 ‘국경’으로부터 더욱 진입하여 ‘그 안’(신라의 금성)에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관군(고구려군)’이 ‘方(실제)’로 신라의 금성에 ‘도달’하자 ‘왜적은 퇴’하였기 때문에, 관군은 ‘급히 추적’하여 ‘任那可羅의 從拔城에 이르자, 그 성은 즉시 歸服’해 왔다.

대왕이 ‘왜적’을 반도의 최남단으로 몰아넣고, 신라를 구원하자, ‘신라의 寐錦(신라왕)’은 ‘아직’ (스스로) (고구려에) 와서 일에 대해 논한 일은 없었지만, 신라의 왕자인 ‘僕勾’가,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고구려는 ‘왜적’을 반도의 최남단으로 후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4년 후인 영락 14년(404년)에, 왜는 다시 고구려의 지배권을 침입하고 있다. 그것은 왜가 반도의 최남단으로 패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이 영락6년에 백제에 친정하여 획득한 그 북부의 ‘대방계’까지 해로로 북상하는, 고구려에서 보면 왜의 ‘불궤’의 침입행위이다.

그래서 대왕은 ‘궁술’하여 ‘평양’에서 나와, 이것과 싸운 후, ‘왜적’은 ‘潰敗’되고, 대왕군은 ‘참살하는 자 무수’한 전과를 올렸다. 그래서 ‘궤궤’시킨 ‘왜구’가 거둬 오지 못하도록, 영락 17년(407년)에 대왕은 ‘보기 5만’을 ‘교견’하여, 백제 북부지역의 소탕전에 나가, 적을 ‘참살’하고, 이것을 ‘탕진’시켜, 적으로부터 ‘鎧鉞은 만여 領’과 무수한 ‘軍資器械’를 획득했다. 또한 (고구려)군은 凱旋 도중에는 ‘沙溝城’ 등 6개의 성까지 격파했다.

그런데, 이 영락 17년(407)의 대왕의 백제 파병은 《삼국사기》 본기에 대응하는 기사가 없는 탓도 있어서 인지, 후연을 향해 파병한 것이라는 이해가 있다【千 1973】. 그러나 광개토왕대의 후연과의 관계는 《梁書》 권54·諸夷·고구려에는, 395년에 즉위한 후연왕 寶로부터 광개토왕은 ‘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으로 책봉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晉書》 권124·載記·慕容盛에는 399년 경에 광개토왕이 후연에 견사하여 方物을 바쳤지만, 《자치통감》 권111·晉紀에는 400년에는 광개토왕이 후연에 대해 禮가 ‘慢’했기 때문에 후연 왕인 모용성이 거느린 3만 병사의 공격을 고구려는 받았으므로, 402년, 404년에 후연에 반격하고, 405년, 406년에는 후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전 이후인 408년에 광개토왕은 후연에 견사한 바, 후연에서는 慕容熙의 위를 이어받은 慕容雲은 그 조부가 고구려의 支庶라는 혈통 때문에 광개토왕을 후연 왕실의 종족에 제수하는 관계를 얻었으며, 이러한 고구려가 후연과의 관계에서는 열위에 있어, 이 관계는 광개토왕이 구축하는 고구려 중심의 질서를 명기하는 비문에는 부적합하여 명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광개토왕이 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전승의 흔적을 명기하는 이 비문에서는, ‘신묘년’ 조에 있어서,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이며, 조공해 왔었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신라로부터는 왕자인 ‘僕勾’가 ‘조공’하고 오는 관계를 얻고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속민이며, 조공해 왔다’고 전제를 했던 백제는 일단은 고구려 ‘노객’이 되면서도, 왜와 ‘화통’하여, 고구려의 지배권에서 이탈했으므로 이에 고구려는 공격을 가하여 그 북부의 성과 촌을 다수 획득한 것이지만, 고구려는 백제를 지배권 하에 넣을 수는 없었다.

또한 고구려에서 보면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조공하는 국제관계를 파괴시킨 원수인 ‘왜적’을 영락 10년과 14년에 패퇴시키고 혹은 ‘潰敗’시켰지만, ‘왜적’을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 지역으로 몰아냈다 해도 반도 지역으로부터는 완전히 이를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비문으로부터 관측된다.

그래서, 왜는 광개토왕대에 반도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신묘년’(391년)에 왜가 ‘도해’하여 ‘백제 신라’를 ‘파’하고, 이를 ‘신민’으로 했다는 것은 이 비문에 구성된 ‘大前置文’의 뜻이었겠지만, 그것이 역사적 史實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가, 즉 391년에 왜가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하기까지 침입하고, 이를 정복한 것인가?

왜는 백제와는 369년 이래의 고구려 전선에서 공동전선에 선 것에 대한 개연성이 지극히 높음은 칠지도를 둘러싼 외교로부터 납득할 수 있지만, ‘신묘년’에 왜가 ‘백제 신라’를 토벌하고 이를 ‘신민’으로 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왜를 원수처럼 본 과도한 표현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 ‘大前置文’은 고구려 중심으로 반도 지역의 국제질서를 회복한다는 고구려의 정의를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신묘년’의 기사는 문면 그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 후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 의하면, 광개토왕대인 393년 5월, 405년 4월, 407년 3월에 왜는 신라에 침입하고 있다. 역시 광개토왕대에도 왜가 반도의 동남부 지역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도 신라는 402년 3월에는 실성왕이 전 왕인 나물왕의 아들인 末斯欣을 왜에 인질로 보냈고, 그의 귀국은 광개토왕이 흥거한 후인 418년의 일인(《삼국유사》 紀異第一·나물왕 金堤上) 점으로 보아도, 왜의 침입으로 고생하는 신라의 동향은 이해가 된다. 이러한 신라가 왜에 고생하는 사태는 고구려의 ‘정의’를 제시하는 ‘대전치문’에서는 ‘신라는 왜에 패망하여, 그 신민이 되었다’고 과도하게 표현되었다고도 생각될 것이다.

그러면 1970년대에는 ‘신묘년’조에 주어진 해석론에서는, ‘渡海’ ‘破’의 주어를 고구려로 하여 이를 읽고, 또한 이 ‘신묘년’조 속의 두 文字格의 공백에도 문자를 추량하여 읽어서 고구려에 유리한 백제, 신라, 왜와의 관계를 읽는 설이 다수 제출되기도 했다. 그 때까지 ‘渡海’ ‘破’의 주어를 왜로 이해하고 의문시되지 않았지만, 왜에 우위인 동향을 이 조의 문맥 속에서 해석해 온 통설에 대한 비판이 활발했던 연구사가 있다【佐伯 1974】.

그러나, ‘신묘년’조가 ‘영락 6년’의 대 백제 親征의 前置文이었고, 나아가서는 그 후의 고구려가 백제와 왜에게 정토를 가하고 또한 신라를 구원하는 대전에 이르는 대왕의 ‘躬率’(親征)과 ‘교견’(과병)의 전쟁에 대해 고구려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내세운 ‘대전치

문’이라는 것이 이해되자, 이 신묘년조는 고구려에게 불리한 상황이 대왕의 친정과 과병으로 인해 해소되고, 고구려의 전과와 대왕의 공적이 보다 높이 상찬되는 구문임이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 ‘대전치문’의 위치와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대전치문’이나 비문속의 왜의 동향을 다른 시각에서 과소하게 보는 설이 1990년대 이후에는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왜는 광개토왕의 훈적을 장식하는 트릭스터라는 설도 비문의 문맥과 구문의 교묘함을 평가하는 나머지 주장된 하나의 ‘왜 과소평가설’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李成市 1994】 .

또한 ‘왜’ ‘왜적’ ‘왜구’란 백제가 부른 ‘군사력’으로 해석하는 설도 최근에 제출되고 있다 【金泰植 2005】 .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대립을 계속하는 백제의 전열에 왜인 병사가 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 왜병은 백제나 가야가 철을 왜에 공급하는 대가로서 왜에 요구한 군사력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이해라 하겠다.

이 학설은 왜병이 능동적으로 반도 지역에 출병했다는 이전부터 전래되는 설 대신에 왜병을 수동적인 참전의 병력으로 보는 설이다. 그러나 이 설은 왜병이 능동적으로 백제에 가담하여 고구려전에 참전했다는 설을 충분히 비판 극복할 수 있지는 않다. 칠지도 명문이나 비문 그리고 《삼국사기》나 《일본서기》가 전하는 바는 백제의 대 고구려, 신라 전선에 참가하는 왜병 왜인의 능동적 행동이다. 그 기억은 5세기의 소위 ‘왜 5왕’이 중국의 남조에 장군호를 요구하며 주장한 도독의 범위 속에 ‘백제, 신라’ 등의 반도 남부 지역을 포함한 왜의 주관적 주장까지 남기고 있다 【坂元 1981】 .

3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왜국에서는 야마타이국으로부터 더 나아가 왕권의 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 4세기의 열도 지역에서는 大和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九州로부터 瀬戸内海 지역에 이르는 지역국가의 연합이 진행되고 있어서, 백제, 그리고 가야 지역의 위기적 동향은 이 연합 과정과 무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연합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白石 2006】 .

그래서 4세기 후반의 반도와 열도의 지역세계 가운데에서 왜가 ‘渡海’하여, 고구려와 교전하는 백제의 전열에 선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은 전후인 5세기 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4자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광개토왕비문》을 향한 연구 성과가 우선 중요시되지만, 또한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의 기록도 검토되면 좋겠다.

## 【비문 기사와 관련된 기타 사료】

고구려가 313년에 낙랑군을, 다음 해인 314년에는 대방군이라는 중국왕조가 BC 108년 이래로 반도 서북지역에 설치한 중앙집권 지배기구에 공격을 가하여, 이를 반도의 서북지역으로부터 소멸시킨 것은 마침내 반도와 열도 지역의 정치 동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두 군과 교통했던 마한 54국의 각국 가운데에서 백제가 국가로서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구려와의 완충지역이기도 했던 두 군의 소멸은 군현의 토지와 인재, 자원을 고구려와 백제가 흡수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불렀다.

광개토왕대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는 전쟁의 원인은 우선 광개토왕의 조부인 고국원왕이 371년 10월에 평양까지 공격해 올라온 백제의 근초고왕이 거느린 3만의 백제군을 맞아 싸운 전쟁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같은 달 23일에 흉거한 패전에서 시작된다.

그 후의 양국의 교전은 전술한 칠지도와 그 명문을 둘러싼 동진과 백제와 왜, 그리고 고구려의 관계사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일진일퇴였다. 이 백제에 왜왕이 연휴했다는 것은 두 군의 설치 이래로 왜가 郡과 왕조에 遣使한 역사가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384년 7월에는 近仇首王은 晋과 통교하고, 386년에는 백제의 세자인 餘暉(辰斯王)가 ‘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에 책봉되어(《晋書》 권9·孝武帝·太元 9, 11년), ‘백제왕’으로 동진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백제는 동진과의 관계를 진행했지만, 이 백제 외교의 안정은 왜왕을 좀 더 백제에 끌어들이게 된다.

한편 고구려는 對百濟策을 우세한 가운데 추진하려고 백제의 동쪽에 위치하는 신라를 영입하여, 377년 봄에는 신라와 함께 전진과 통교하고(《자치통감》 권104·晋紀26·烈宗·太元2년), 또 382년에는 신라가 아마도 고구려의 引導를 받으면서 전진과 통교하는 등, 고구려는 신라를 영입하면서 화북의 왕조와 통교했다(《太平魚籃》 권781·四夷部 2·東夷 2·신라·符堅建元 18년).

그러나 광개토왕의 부친인 고국양왕은 385년에 전진을 대신하여 세력을 구축한 後燕의 요동군과 제3현도군에 공격해 들어가 패되었다.(《梁書》 권54·高句麗傳·孝武太元 10년).

고구려가 남쪽의 백제와, 그리고 서쪽에는 後燕이라는 두 쪽 관계에 고민했던 대외 정세 가운데에서 고구려는 동남쪽의 신라와의 관계를 우세하게 진행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고국양왕은 즉위 9년(392) 봄에 신라에 견사하고 이를 위압하자 신라왕은 왕의 조카 실성을 인질로 하여 고구려에 보냈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사이에서 우위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자, 392년 5월에는 흉거한 고국양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광개토왕(비문에는 왕의 즉위는 391년)은 즉시 같은 해 7월부터 남쪽의 백제에 공격을 준비했다. 그 후 왕이 발동한 고구려의 대외전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문의 문맥에서는 명기되었던 것이다.

광개토왕이 백제의 동쪽 이웃인 신라를 종속시키고 백제를 대상으로 시작한 공격의 전개는 <고구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高句麗本紀>

- 故國壤王 3年(386) 春正月. 立王子談德爲太子. 秋八月. 王發兵南伐百濟.
- 6年(389) 秋九月. 百濟來侵. 掠南鄙部落而歸.
- 7年(390) 秋九月. 百濟遣達率眞嘉謨攻破都押城. 虜二百人以歸.
- 9年(392)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遣姪實聖爲質.
- 廣開土王即位年(392) 7月. 南拔百濟, 拔十城. 9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冬十月.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 2年(393) 8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 3年(394) 7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逆擊敗之. 餘寇夜走. 8月. 築國南七城. 以備百濟之寇.
- 4年(395) 8月. 王與百濟戰於湞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 18年(409) 7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8月. 王南巡.
- 22年(413) 10月. 王薨. 号爲廣開土王.

이 중에서 고구려가 우세한 가운데 전개된 對百濟戰은 <백제본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지만, 왜병의 동향이 고구려와 백제의 양 본기에 보이지 않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百濟本紀>

- 辰斯王 8年(392) 7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余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10月. 高句麗攻拔關彌城.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 阿華王 2年(393) 8月.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容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固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 同 3年(394) 7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敗績.
- 同 4年(395) 8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湞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11月. 王欲報湞水之役. 親帥兵七千人過漢水. 次於青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 同 6年(397) 5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7月. 大關於漢水之南.
- 同 7年(398) 8月. 王將伐高句麗. 出帥至漢山北柵. 其夜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9月. 集都人習射於西台.
- 同 8年(399) 8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 同 11年(402) 5月. 遣使倭國求大珠.
- 同 12年(403) 2月.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 7月. 遣兵侵新羅邊境.
- 腆支王即位(405). 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至國界. 漢城人階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禮禮殺兄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禮禮. 迎腆支即位.
- 同 2年(406) 2月. 遣使晉朝貢.
- 同 5年(409)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삼국사기》의 두 본기로부터 관독되는 광개토왕대의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은 武田 씨(1989)도 지적했듯이 광개토대왕비문에서 본 양국의 전황에 충분히 대응된다. 즉, 대왕이 즉위한 392년 7월에는 4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여, ‘石峴等 10여 개의 성’과 ‘漢水 이북의 여러 부락’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395년 8월에 대왕이 7천의 병사를 이끌고 친정하여 湞水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395년 겨울 11월에는 백제의 阿華王은 마찬가지로 병사 7천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보복하는 친정을 시행했다.

백제는 이 대 고구려전에 불리한 전황 가운데에서 397년 5월에는 왜국에 태자 腆支를 인질로 보내어 인연을 맺지만 여기까지의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과 백제가 왜와 인연을 맺은 외교와 그 후 398년과 399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에 보복전을 도모한 경과는, 비문에서는 영락 6년(396)에 백제가 광개토왕의 친정을 당하고 ‘58성’과 ‘춘 칠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왕(아화왕)이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는 대왕의 ‘노객’이 될 것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곧 광개토왕과의 ‘誓’를 ‘어기(違)’고 ‘왜’와 ‘회통’하고, 고구려와 긴장관계를 계속한 경과와 충분히 대응되는 것이다.

또한 409년 8월에 광개토왕이 ‘南巡’한 군사도 비문에서 본 영락 ‘14년’(404)과 ‘17년’(407)에 걸친 광개토왕의 백제와의 경계 지역에서의 군사와 통한다 【武田 1989】.

이 404년에 ‘대방계’에 나타난 ‘왜구’의 동향은 <백제본기>에서는 왜국에 인질로 있던 腆支가 405년에 귀국하여 즉위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왕은 왜병 백명에게 호송되어 한성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해도에서 즉위의 시기를 기다렸다는 기록과 연결될 것 같다.

이 왜병이 한반도 서해안을 한성 부근까지 북상한 군선과 해로의 확보가 왜였기 때문에, 비문에 기록된 왜의 ‘帶方界’로의 ‘不軌’의 ‘침입’이 가능하다. 비문과 《삼국사기》

와의 대응관계는 다음의 <신라본기>에서도 볼 수 있다.

○ <新羅本紀>

·奈勿麻立干 37年(392) 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强盛. 送伊飡大西知子實聖爲質.

同 38年(393) 5月. 倭人來困金城. 五日不解. 將士皆請出戰. 王曰. 今賊棄舟深入. 在於死地. 鋒不可當. 乃閉城門. 賊無功而退. 王先遣勇騎二百. 遮其歸路. 又遣步卒一千. 追於濁山. 夾擊大敗之. 殺獲甚衆.

同 46年(401) 7月. 高句麗質子實聖還.

·實聖麻立干元年(402) 3月.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未斯欣爲質.

同 4年(405) 4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濁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同 6年(407) 3月. 倭人侵東邊. 夏6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同 7年(408) 2月.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 貯以兵革資糧. 以謀襲我. 我欲先其未發. 揀精兵擊破兵儲.

同 11年(412) 以奈勿王子卜好. 質於高句麗.

同 14年(415) 8月. 與倭人戰於風島克之.

·訥祇麻立干2年(418) 正月. 王弟卜好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秋. 王弟未斯欣自倭國逃還.

同 8年(424) 2月. 遣使高句麗修聘.

同 15年(431) 4月. 倭兵來侵東邊. 困明活城. 無功而退.

同 17年(433) 7月. 百濟遣使請和. 從之.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 볼 때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서 392년은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전이지만, 고구려는 신라로부터 王姪 實聖을 인질로써 맞아들인다. 이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 우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신묘년’조에 명기된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이라는 고구려 중심의 사관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역사일 것이다.

또한 신라는 왜와 백제병의 습격에 대응하여, 412년에는 신라가 왕자 卜好를 고구려에 인질로 삼게 하지만, 이는 비문에 ‘永樂 10년’(400)의 신라 구원책의 전과로서 신라는 고구려에 대한 종속관계를 추진하여, ‘僕勾’(卜好)가 고구려에 ‘조공’했다는 것에 대응된다.

비문에서는 永樂 9년(399)조에 백제의 ‘和通’을 받은 왜가, ‘화통’을 계기로 했을 것이지만, 신라의 ‘국경’에 ‘가득(滿)’하여 ‘城池’를 ‘潰破’하고 있다는 왜명의 구체적 행동을 평양으로 ‘巡下’한 광개토왕에게 구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신라에서 파견된 사신이 보고하고 있다.

이 경과를 <신라본기>에서는 나물마립간 38년(393)에 왜인이 신라의 금성을 포위했다가 신라의 기병 200과 보졸 천명에게 협격을 당하고 敗走한 것, 402년에는 신라가 왕

자를 왜에 인질로 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는 405년과 407년에 신라의 왕도나 동쪽 변두리를 공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왜가 신라의 ‘국경’이나 왕성을 습격하는 기사는 비문의 영락 9년(399)조에 명기된 신라의 사자가 광개토왕에게 보고한 ‘왜인’의 동향과 신라의 위기, 그리고 다음 해인 400년에 광개토왕이 신라를 구원하여 ‘보기 5만’의 군을 ‘교견’하자, 왜적은 ‘국경’에서 진행하여 ‘신라성’의 ‘그 안’에 ‘가득’차 있었고, 고구려군 앞에서 ‘왜적’이 물러간 전황에 충분히 대응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문에 기록된 ‘신라성’은 ‘신라의 왕성’이 아니라, ‘안라의 접경지역으로써 신라의 변경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본서기》 欽明紀의 ‘久禮山五城’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을 양산에서부터 밀양 지역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다【白承忠 2004】. 그러나 왜는 ‘그 국경’에 ‘가득’하여, 그 지역의 ‘성지’를 ‘궤파’하고, 이윽고 ‘신라성’의 ‘그 안’에 ‘가득’찰 때 까지 진군한 것이며, 광개토왕이 ‘교견’한 ‘관군’인 고구려군이 남하, 진군한 위세 앞에 왜인이 ‘물러’간 경과를 비문의 영락 9년부터 10년의 문맥에서 파악한다면 이 설에는 따를 수 없다.

또한 <백제본기>에는 아화왕이 397년 5월에 왜와 결합하여, 고구려에 보복전을 시도하고, 402년 5월과 403년 2월에는 왜와 사자를 교환하자, 403년 7월에는 백제가 신라의 변경을 습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라를 습격하는 백제의 행동은 비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백제의 동향은 신라를 종종 습격한 왜병과는 서로 제휴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경우에는 <신라본기>에서는 393년 5월에 왜병에게 응전한 신라의 先遣 기병은 200명, 그리고 추가 파병의 보졸이 1000명이며, 405년 4월에 ‘살획’한 ‘왜병’은 300여 명이었던 것, 그리고 <백제본기>에 의하면, 405년에 왜가 백제의 인질이었던 왕자 전지를 백제에 호송했을 때의 왜병이 100명이었던 병사의 수가 주목된다.

한편 비문에서는 광개토왕이 ‘영락 10년’(400년)의 신라 구원전과 ‘영락 17년’(407년)의 백제 북부 평정전으로 생각되는 전투에도 ‘교견’한 병력이 ‘步騎 5만’으로 되어 있다. 이 병사 수는 반드시 고구려 병의 실체였을까? 광개토왕의 대 백제전의 병사 수는 <고구려본기>에는 ‘5천’(394년), <백제본기>에서는 ‘4만’(392), ‘7천’(395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백제 아화왕이 이끈 병사 수는 ‘1만’(393년), ‘7천’(395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병사 수에 비교하자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왕성을 습격하는 왜병의 수는 많지 않다. 비문에 명기된 ‘步騎 5만’의 고구려군은 백제군을 중핵으로 하고 이

에 왜병이 참가하는 군에 대응되는 병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步騎 5만’의 규모는 광개토왕의 군사권 장악 능력을 현창하는 定型의 숫자로도 보인다.

그러한 광개토왕 대의 고구려는 결국은 백제를 완전하게 굴복시킬 수 없었다. 또한 신라의 왕성으로부터 왜병을 철수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반도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고구려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세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고구려는 그 서북에 인접한 후연 등의 세력에도 대응해야 하며, 반도지역의 남북으로 전군을 ‘躬率’ 또는 ‘교견’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아래와 같이 빈번히 서북쪽에 인접한 후연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 <高句麗本紀>의 西北方 관계기사

•故國壤王 2年(385) 夏六月. 王出兵四萬襲遼東. 先是燕王垂命帶方王佐, 鎮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環.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初幽冀流民多來投. 農以范陽龐淵爲遼東太守招撫.

•廣開土王 卽位年(392)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同 9年(400) 春正月. 王遣使入燕朝貢. 二月. 燕王盛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爲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同 11年(402)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同 13年(404) 冬十一月. 出師侵燕.

同 14年(405)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 由是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同 15年(406)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至陁北. 畏契丹之衆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同 17年(408) 春三月. 遣使北燕. 且叙宗族. 北燕王雲遣侍御史李拔報之. 雲祖父高和句麗之支屬. 自云高陽氏之苗裔. 故以高爲氏焉. 慕容寶之爲太子. 雲以武藝侍東宮. 寶子之. 賜姓慕容氏.

同 18年(409) 秋7月. 築國東秃山等六城. 移平壤民戶. 8月. 王南巡.

同 22年(413) 10月. 王薨. 號爲廣開土王.

또한 《太平御覽》 권359·兵部·障泥에 의하면, 이 무렵 대왕은 南燕에도 견사하여 천리마나 皮障泥 등을 헌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본기>나 그 원전이기도 한 《자치통감》 등에 기록되면서도 《비문》에는 명기되지 않았던 것은, 광개토왕대의 서북 방면과의 전투를 포함하는 관계가 ‘영락 20년’조에 북부여로 대왕이 친정하여 중단한 조공관계를 부활시킨 훈적에는 이르지 못할 정도로 고구려에는 열세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왕의 치세는 그 뒤를 이은 아들인 장수왕이 대왕의 상이 끝난 414년에 부왕의 현창비를 세운 정치과제는 고구려 국가의 정체성이 ‘天’에 유래하며, 그 기반이 시조의 ‘巡幸南下’ 이래로 오늘날에도 백제·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로부터의 조공을 계속 시킨다는 ‘남’방책에 있는 것을 후세에도 顯示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문》에서는 ‘남’쪽의 전과를 잘 명기하고 또한 서남방을 정면으로 하여 비를 屹立시키고 있어서, 고구려의 우위적 국제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서북 방면의 전황이 명기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濱田 2005】.

광개토왕의 ‘남’쪽을 향한 세력권의 확장은 시조의 ‘순행 남하’와 접합되는 聖戰으로 이해되며, 백제와 왜병의 전투는 당연히 그 ‘남’방책의 요점이었다. 그 남방 진출은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으로 일단 결과로서 구현된다【濱田 2006】.

《삼국사기》 본기는 연월에 따른 편년법이지만, 비문은 광개토왕에 의한 ‘躬率’(親征)과 ‘교견’(派兵)에 의한 전적에 따라 구축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 구성을 한정된 비석의 틀 안에 또한 대왕에 대한 송덕과 戰果의 현창이라는 목적으로 효과적 서술을 의도하여 편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편년의 기법이 크게 가해져 있을 것이다.

대전치문을 설정하여 대외전쟁을 ‘친정’하고, 또는 ‘과병’하는 광개토왕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대외전쟁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그 전쟁의 경과와 그 때문에 획득된 전과, 그 후에 형성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 등의 순서로 아마도 친정이 있었던 각 해를 중심으로 편년하는 법이 비문에서는 채용되었을 것이다.

비문과 《삼국사기》의 각 본기가 마찬가지로 역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사건의 편년이 완전하게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양자의 이 편년법 차이에 근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일본서기》의 일한관계】

《일본서기》에서는 이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까지의 일한관계는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를 칠지도와 광개토왕비 또는 중국사료, 나아가 《삼국사기》에 의해 구성된 이제까지의 일한관계사 모습과 대조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와의 관계사가 주축이 되고 있다. 이것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과 대응시키면, 《일본서기》의 백제관계 기사는 압도적으로 구성 요소가 풍성하며 그것들은 인물 중심의 ‘이야기’적 서술이 된다. 그것은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인 7세기 후반에 살던 씨족이 그 ‘조상’이 울령국가의 형성 과정에 힘쓴 업적이나 왕권에 대한 기여 관계를 씨족 조상의 활동을 이야기화한 전승 기록이 편찬에 활용된 사실을 암시한다.

즉 대외관계의 이야기에서는 <백제기>를 참고로 하듯이, 백제관계 기사에서는 <백제기>를 주기하지 않는 기사라 하더라도 이것을 편찬의 참고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천황을 정점으로 했던 울령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일본서기》를 편찬하는 사관의 중심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한 정치적 입장과 사관으로부터의 윤색이 《일본서기》의 대외관계 기사에 종종 보이지만, 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역사 고찰의 장에서 제외한다던가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뒤에 게재한 《일본서기》의 기록 중에서, 397년의 ‘왕자 直支’의 일본으로의 인질과 405년의 直支의 백제로의 귀국 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본 腆支의 인질과 귀국과 그 후의 즉위 기사와 대응해도 모순되지 않는다【三品 1962, 武田 1989】.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은 405년의 아화왕의 薨去 기사도 그렇지만, 이 외에도 392년의 辰斯王의 흥거와 아화왕의 즉위, 또 375년 肖古王의 薨去와 다음 해인 376년의 貴須王의 즉위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375년 11월에 近肖古王이 흥거하고, 近仇首王이 즉위했다는 기록과는 称元法の 차이에 의한 1년의 차이는 있지만, 대응되는 것이다.

이 <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30년(375)조에는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라고 되어 있다. 372년에는 백제에서는 동진으로부터 하사받은 칠지도를 모조하여 그 유래를 설파하는 27글자의 독자적인 짧은 글을 뒷면에 상감했는데, 그 무렵부터 백제는 확실히 기록서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고흥이란 출신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군과 일진일퇴의 전황이었지만, 이러한 가운데 고흥은 ‘高’라는 그 성씨로부터 추측하건데 고구려 왕족에 가까운 지식인 혹은 그 2郡에 관련된 漢人系의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단, 나중에 게재되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百濟記’를 인용 사료의 하나로 하고 있어서, 《삼국사기》 <백제본기>로 편년된 백제왕의 계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일본서기》에 풍부하게 기록된 인물의 행장을 중심으로 한 백제와 왜국의 관계사의 세부

까지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본서기》 중에서 4세기에 상당하는 기사로 표현된 ‘천황’이나 ‘일본’호는 이 4~5세기에서는 아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天朝’의 칭호도 중국 남조로부터 책봉을 기본으로 하는 백제의 외교 자세를 고려하면, 백제가 일본에 대해 주창하는 호칭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도 8세기 초반의 《일본서기》를 편찬하기 전후의 천황의 왕권을 수식하는 용어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이 씨족 시조의 업적을 ‘이야기’화하고 또 후세의 백제 관계 기록도 《일본서기》 편찬 시의 ‘지금’, 즉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율령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씨족 국가에 대한 기여를 현시하면서 ‘이야기’화가 계속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화가 전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이야기’화했던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이야기’화 가운데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작업은 비판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그 ‘이야기’화 속에서는 편찬하는 ‘오늘날’에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는 씨족의 ‘이야기’로서는 망각되기 쉬운 것이며 그 반대로 오늘날에 유리한 ‘이야기’는 사료 비판을 피하기 쉽다. 광개토왕과의 전투가 《일본서기》에서 전혀 그 모습조차 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의 고구려와 왜의 전투 기억은 《宋書》 권97·倭國傳에 기록된 478년에 왜 5왕 중 한 사람인 武가 上表文 중에서 “句驪無道，圖欲見吞”이라고 서술하고, 송의 順帝에게 고구려의 ‘無道’를 비난한 역사의 기억에서 보인다. 이와 같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도 계속된 백제에 가담한 고구려와의 왜의 전쟁 기억은 국가 차원에서는 망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日本書紀》

《日本書紀》 卷9, 氣長足姬尊(神功皇后)紀

- 同 46年(366) ‘春三月乙亥朔，遣斯摩宿禰于卓淳國。〔斯摩宿禰者，不知何姓人也〕於是，卓淳王末錦早岐，告斯摩宿禰曰，甲子年(364)七月中，百濟人久氏，彌州流，莫古三人，到於我土日，百濟王，聞東方有日本貴國，而遣臣等，令朝其貴國。故求道路，以至於斯土。若能教臣等，令通道路，則我王必深德君王。時謂久氏等曰，本聞東有貴國。然未曾有通，不知其道。唯海遠浪嶮。則乘大船，僅可得通。若雖有路津，何以得達耶。於是，久氏等曰，然即當今不得通也。不若，更還之備船舶，而後通矣。仍曰，若有貴國使人來，必應告吾國。如此乃還。爰斯摩宿禰即以僊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遣于百濟國，慰勞其王。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仍以五色綵絹各一匹，及角弓箭，并鐵鋌四十枚，幣爾波移。便復開寶藏，以示諸珍異曰，吾國多有是珍寶。欲貢貴國，不知道路。有志無從。然猶今付使者，尋貢獻耳。於是，爾波移奉事而還，告志摩宿禰。便自卓淳還

之也’

- 同 47年(367) ‘夏四月, 百濟王使久氏, 禰州流, 莫古, 令朝貢. 時新羅國調使, 與久氏共詣, 於是, 皇太后, 太子譽田別尊, 大歡喜之日, 先王所望國人, 今來朝之. 痛哉, 不逮于天皇矣. 群臣皆莫不流涕. 仍檢校二國之貢物. 於是, 新羅貢物者, 珍異甚多. 百濟貢物者, 少賤不良. 便問久氏等曰, 百濟貢物, 不及新羅, 奈之何. 對曰, 臣等失道, 至沙比新羅. 則新羅人捕臣等禁圍固. 經三月而欲殺. 時久氏等, 向天而呪詛之. 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 則奪我貢物, 因以, 爲己國之貢物, 以新羅賤物, 相易, 爲臣國之貢物. 謂臣等曰, 若誤此辭者, 及于還日, 當殺汝等. 故久氏等恐怖而從耳. 是以, 僅得達于天朝. 時皇太后, 譽田別尊, 責新羅使者, 因以, 祈天神曰, 當遣誰人於百濟, 將檢事之虛實. 當遣誰人於新羅, 將推問其罪. 便天神誨之曰, 令武內宿禰行議. 因以千熊長彥爲使者, 當如所願. [千熊長彥者, 分明不知其姓人. 一云, 武藏國人. 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 百濟記云職麻那々加比跪者, 蓋是歟也] 於是, 遣千熊長彥于新羅, 責以濫百濟之獻物’
- 同 49年(369) ‘春三月, 以荒田別, 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 蓋虛, 請增軍士. 即命木羅斤資, 沙々奴跪 [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 蓋虛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怱,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爰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 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 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 [今云州流須祇].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彥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數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 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彥, 至都下, 厚加禮遇. 亦副久氏等而送之’
- 同 50年(370) ‘春二月, 荒田別等還之. 夏五月, 千熊長彥, 久氏等, 至自百濟. 於是, 皇太后歡之間久氏曰, 海西諸韓, 既賜汝國. 今何事以頻復來也. 久氏等奏曰, 天朝鴻澤, 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 不任于心. 故因還使, 以致至誠. 雖逮萬世, 何年非朝.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 同 51年(371) ‘春三月, 百濟王亦遣久氏朝貢. 於是, 皇太后語太子及武內宿禰曰, 朕所交親百濟國者, 是天所致. 非由人故. 玩好珍物, 先所未有. 不闕歲時, 常來貢獻. 朕省此款, 每用喜焉. 如朕存時, 敦加恩惠. 卽年, 以千熊長彥, 副久氏等遣百濟國. 因以, 垂大恩曰, 朕從神所驗, 始開道路. 平定海西, 以賜百濟. 今復厚結好, 永寵賞之. 是時, 百濟王父子, 並親致地, 啓曰, 貴國鴻恩, 重於天地. 何日何時, 敢有忘哉. 聖王在上, 明如日月. 今臣在下, 固如山岳. 永爲西蕃, 終無貳心’
- 同 52年(372) ‘秋九月丁卯朔丙子, 久氏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 及種々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 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 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絕, 雖死何恨. 自是後, 每年相續朝貢焉’
- 同 55年(375) ‘百濟肖古王薨’
- 同 56年(376) ‘百濟王子貴須立爲王’
- 同 62年(382) ‘新羅不朝. 卽年, 遣襲津彥擊新羅 [百濟記云, 壬午年(382), 新羅不奉貴國, 々々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々々々王已本旱岐, 及兒百久至, 阿首至, 國沙利, 伊羅麻酒, 爾汝江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既殿至, 向大倭敬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

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 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一云, 沙至比跪, 知天皇怒, 不敢公還. 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 比跪密遣使人, 問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 今夜夢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 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知不免, 入石穴而死也) ’

- ・同 64年(384) ‘百濟國貴須王薨. 王子枕流王立爲王’
- ・同 65年(385)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華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 《日本書紀》 卷10・譽田天皇(應神天皇)紀

- ・同 3年(392) ‘是歲, 百濟辰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川宿禰, 木菟宿禰, 噴讓其无禮狀. 由是, 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 便立阿華爲王而歸’
- ・同 7年(396) ‘秋九月, 高麗人, 百濟人, 任那人, 新羅人, 並來朝. 時命武內宿禰, 領諸韓人等作池. 因以, 名池號韓人池’
- ・同 8年(397) ‘春三月, 百濟人來朝 [百濟記云, 阿華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禰多禮, 及峴南支侵, 谷那, 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
- ・同 14年(403) ‘春二月, 百濟王貢縫衣工女. 曰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 是歲, 弓月君自百濟來歸, 因以奏之曰, 臣領己國之人夫百廿縣而歸化. 然因新羅人之拒, 皆留加羅國. 爰遣葛城襲津彥, 而召弓月之人夫於加羅. 然經三年, 而襲津彥不來焉’
- ・同 15年(404) ‘秋八月壬戌朔丁卯,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 卽養於輕坂上廐. 因以阿直岐令掌飼. 故號其養馬之處, 曰廐坂也. 阿直岐亦能讀經典. 卽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 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 是秀也. 時遣上毛野君祖, 荒田別, 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岐者, 阿直岐史之始祖也’
- ・同 16年(405) ‘春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是歲, 百濟阿華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日,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是也] 八月, 遣平群木菟宿禰, 的戶田宿禰於加羅. 仍授精兵詔之曰, 襲津彥久之不還. 必由新羅之拒而滯之. 汝等急往之擊新羅, 披其道路. 於是, 木菟宿禰等進精兵, 莅于新羅之境. 新羅王愕之服其罪. 乃率弓月之人夫, 與襲津彥共來焉’
- ・同 20年(409) ‘秋九月,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已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 【참고문헌】

- 王 健 群, 1984 《好太王碑の研究》 (雄渾社)
- 金 錫亨, 1969 <<廣開土王陵碑文>>에あらわれた朝日關係> 《古代朝日關係史》 (勁草書房)
- 金 泰植, 2005 <4世紀의 韓日關係史 -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問題를 中心에 ->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1分科篇
- 木村 誠, 2005 <朝鮮三國と倭>武田幸男編 《古代を考える 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 - 空白の五世紀 - 》 (教育社)
- 徐 建 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 白石太一郎, 2006 <倭國の形成と展開> 上原真人ほか編 《列島の古代史 ひと・もの・こと》 8 <古

代史の流れ> (岩波書店)

- 末松保和, 1932 <新羅建國考> 《史學雜誌》 第43編 第12号(同 《新羅の政治と社會》 上, 1995年 (吉川弘文館))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1956년에 吉川弘文館 再版. 1986년에 《古代の日本と朝鮮》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吉川弘文館)에 수록
-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鈴木靖民編・日本の時代史2 《倭國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文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 上卷 (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武田幸男, 2007 《廣開土王碑との對話》 (白帝社)
-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 濱田耕策, 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虛像と實像> 《日本歷史》 第304号
-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NO.11
- 濱田耕策, 2005 <4世紀の日韓關係>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 第1分科篇
- 濱田耕策, 2006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父王廣開土王の治績を継いで—> 《朝鮮學報》 第199・200合併号
- 白承忠, 2004 <《廣開土王陵碑文》からみた加耶と倭>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0集
- 朴時亨, 1967 <廣開土王の陵碑について> 《今日の朝鮮》 127
- 朴時亨, 1967 <廣開土王陵碑> 《朝鮮研究年報》9
- 朴時亨, 1985 《廣開土王碑》 (全浩天譯)そしえて
- 三品彰英, 1962 <高句麗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上卷 (吉川弘文館)(上・下卷, 2002년 (天山舎))
-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号(同1977 《好太王碑考 付 水谷拓本》, 開明書院)
- 山近久美子・渡辺理繪, 2008 <アメリカ議會図書館所藏の日本軍將校による1880年代の外 邦測量原図> <日本國際地図學會 平成20年度定期大會發表論文・資料集>
-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号
- 林基中,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서울)

##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

### 제1절 왜국·한반도 제국과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후한 말, 삼국시대, 서진의 불안정한 통일의 시기로부터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강남에서는 동진이 이 지역에 정착을 추진하고, 화북에서는 5호 16국의 흥망이 전개된 3~4세기에 동아시아 여러 민족은 각각 독자적으로 국가를 정비하는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5세기가 되자 중국 남조에서는 송, 북조에서는 북위에 의한 안정이 유지되어 중국의 정세에 안정이 되돌아오는 조짐이 보인다. 중국과의 통교가 단절되었던 왜국도 다시 중국 사서에 동향이 알려지게 되어 일한관계에 관해서도 일·한·중 각각의 사료를 비교하면서 검토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복안적 시야에서 보다 정합적인 역사적 사실의 규명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양상을 매개로 하여, 5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왜의 5왕과 중국 남조와의 통교

우선 동진과의 통교까지 포함하여 4세기 후반 무렵부터 6세기 초까지의 왜국·한반도 제국과 중국 남북조와의 통교 사례를 통람하면, 한반도 제국의 통교사례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이 기간 중에 백제는 주로 남조, 고구려는 주로 북조, 때로는 남조와도 통교하고 있다. 그 외에는 479년의 가라국왕 荷知가 남제와 통교한 사례가 있을 뿐이며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와의 연계를 갖지 못했다.

한편 왜국의 통교 사례 <표 1>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몇 개 있다. 477년의 통교는 478년과 같은 것으로, 본기와 열전의 신뢰도 등으로 볼 때, 연차는 478년 쪽이 좋을 것 같다【鈴木英夫 1996a】. 또한 479년의 남제, 502년의 양에 의한 進号는 모두 새로운 왕조 성립에 따른 것이며 반드시 각국의 입공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논의가 갈리는 것은 413년의 동진과의 통교 사례가 되겠다.

2-01 《晋書》 安帝紀義熙9年(413) 是歲條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並獻方物.

2-02 《太平御覽》 卷981 香部1 麝條 所引 義熙起居注  
倭國獻貂皮·人參等. 詔賜細笙·麝香.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4세기 말~5세기 초에 왜국은 백제를 지원하여 고구려와 싸웠으며 나중에 서술하는 왜왕 무의 상표문에도 왜국의 고구려 정토 계획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왜국과 싸운 광개토왕(호태왕)이 죽고 장수왕이 즉위한 413년 이후, 427년에 고구려가 환도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천도하고 또한 남하를 시도하는 사이에는 왜국이 고구려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413년에는 왜·고구려의 공동 입공이 이루어졌다는 설이 제시되고 있다.(공동 입공설 【池田溫 2002, 川本芳昭 1992 등】). 그러나 사료 02의 왜국 헌상품(초피·인삼)은 오히려 고구려의 특산물로 생각되며 또한 이 시기에는 역시 왜국과 고구려가 연계하는 일은 없었다고 보며, 이는 고구려가 앞선 戰役에서 포로로 한 왜인을 동반하여 입공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도 있다.(왜인 포로 동행설 【坂元義種 1981 등(주1)】). 또한 사료 02의 헌상품·하사품은 왜국이라 하면 이상하고 이는 고구려의 오기라 해야 하겠지만, 사료 01은 각국의 동시 입공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개별 입공을 일괄하여 쓴 것으로 보면 왜국의 단독 입공이었다고 자리매김함이 가능하다는 설(단독 입공설 【石井正敏 2005】)도 제시되고 있다.

공동 입공설과 단독 입공설은 413년의 동진과의 통교를 인정한 것이며 왜인 포로설은 왜국의 통교를 부정하는 설이 된다. 공동 입공설 중에서는 《일본서기》 應神 37년(306+120→426?) 2월 戊午朔條, 41년(310+120→430?) 2월 是月條를 이 견사에 맞추는 이해도 제시되고 있지만, 연차가 합치되지 않고 또한 《일본서기》의 해당기 전승(應神28년(297+120→417?) 9월조, 仁德 12년(324+120→444?) 7월 癸酉條, 8월 乙酉條)부터는 5세기 왜국의 고구려에 대한 외교 의식에서 대항심이나 적개심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입공설은 고구려와의 화평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의문이 남는다. 단독 입공설에 관해서도 이 시기에 왜국이 동진과 통교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역시 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413년의 기사는 고구려의 동진 입공의 문맥으로써 이해해야 하며 왜인 포로 동행설이 정합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420년에 동진이 멸망하고 송이 흥기했을 때, 송은 고구려왕 高璉(長壽王)을 정동대장군, 백제왕 余暎(腆支王)을 진동대장군에 進號하고 있어서, 421년의 왜 讚의 입공은 송 성립의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그 때문에 처음 입공이면서 제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는 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한 전지왕이 420년에 죽고, 久爾辛王(재위 420~

427년), 毗有王(재위 427~455년)의 시대가 되지만, 백제의 송 입공은 424년이 최초로써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무언가의 사정이 있었을까 한다. 그래서 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동아시아 외교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백제보다도 한 발 빠르게 송 성립에 적응하여 입공한다는 행동으로 나왔던 것이다.

## 2. 관작의 제수와 그 의미

다음으로 왜국·한반도 제국이 중국 남북조와 통교하는 목적과 해당기의 일한관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이 수여한 관작과 그 의미를 검토한다. 각국이 중국으로 견사한 것은 자칭·제수의 칭호에 보이는 지위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칭호의 끝에 나오는 ‘某(國)王’은 물론 각국의 지배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이며, 왕으로 책립됨으로써 지배 영역의 인정과 국내 지배의 유지·안정을 얻었던 것이다.

이어서 그 외의 칭호의 의미를 확인해 두자면, ‘使持節’은 황제로부터 ‘節’(깃대 표시)를 수여받아 위임을 받은 것을 보여주며, ‘都督 … 諸軍事’는 그곳에 기재된 지역의 군사권 승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都督 … 諸軍事’는 군사권의 승인을 보여줄 뿐으로, 民政權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국왕의 칭호에는 한반도 남부의 복수의 국명과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이것을 군사적 영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즉단하여 왜국의 반도 남부 영유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자리매김을 했었지만, 중국의 관작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자 【坂元義種 1978a·b】, 오늘날에는 왜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었는지 아닌지, 민정권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를 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이해가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使持節都督諸軍事는 임무를 위임받은 지역에서의 최고 군사권을 의미하며 왜국은 요구 가능한 군사권의 위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국왕이 칭하는 복수의 지역명 중에서 임나는 광개토왕비문에도 ‘任那加羅’로 나온 지역으로서 남부 가야 제국의 중심국의 하나인 금관국을 지칭한다. ‘임나’가 금관국을 지칭하는 용례는 한국 측의 사료에서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삼국사기》 권46 강수전, 924년 崔仁滾撰 ‘眞鏡大師月凌空塔碑’), 중국사서인 《宋書》에서도 임나=금관국이라고 해석하여 큰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加羅는 479년에 국왕 荷知가 南齊에 입공한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그 때에 ‘輔國將軍 本國王’으로 除正되었다고 한다(《南齊書》 東南夷傳 東夷·加羅國條). 이 국왕 荷知는

省熱縣(경상북도 의령군 부림면, 斯二岐國의 옛 지역) 출신인 樂師 于勒에게 12현의 가야금으로 12곡을 만들게 하고, 악곡에 의한 諸國의 통일을 도모했다는 嘉悉(實)王(《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551) 3월, 13년조, 권32 지1 악·가야금조)에 비정할 수 있기 때문에(주2), 가라는 북부 가야 제국의 중심이 되는 대가야(高靈, 伴跋)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秦韓·慕韓은 일반적으로는 346년에 마한으로부터 백제, 356년에 진한으로부터 신라가 성립된다고 설명되고 있지만, 신라나 백제에 아직 편입되지 못한 독립된 지역이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논의 세부사항은 후에 서술하고자 하나, 최근에 한반도 서남부의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전방후원분이 발견되고 있어서 일본학계에서는 6세기 전반 무렵까지 백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왜국과 제휴하는 독자적 세력이 존립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모한에 비정하는 견해도 유력하다【東潮 1995, 田中俊明 2001 등】.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편입되는 것은 후에 기술할 475년의 백제의 수도 한성 함락과 웅진 천도에 따른 부흥의 5세기 말~6세기의 일이며 한성을 수도로 하는 단계에서는 僻遠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신라와 진한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추측되어 진한·모한은 실제의 지역명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李鎔賢 2008】.

이상, 왜왕의 칭호에 등장하는 군사권 요구 범위가 당시의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을 서술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490년, 495년의 백제 동성왕이 신하에게 제수를 요구한 太守號에 대해서(<표 2>), 중국의 산둥·하북성의 지명인 廣陽·城陽 또는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는 樂浪·朝鮮 등이 보이고 있어서(《南齊書》 백제전), 이러한 것들은 전혀 허호로써 의미는 없다고 보고, 왜왕의 칭호에서 보이는 지역명, 특히 秦韓·慕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李永植 1993】.

그러나 《宋書》《梁書》百濟傳에 의하면, 백제는 진대에 중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요서·평주 두 군의 땅을 통치했다고 하며, 대고구려전의 과제에 관한 낙랑군 지역 모두, 백제의 ‘舊領’ 회복 주장이 담겨있으므로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除正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백제왕의 신료가 칭한 面中王·都漢王·八中侯·阿錯王·邁羅(盧)王·辟中王·弗中侯 등은 모두 전라남·북도의 지명으로서 당시 백제가 經略을 추진했던 지역이었다. 중국 남조가 고구려에게 준 칭호에서 보이는 平·營 두 주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왜왕의 칭호까지 포함하여 왜국·한반도 제국이 중국에게 除正을 요청한 칭호는 虛號가 아니라 무언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각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 전개에 허가를 요청하는 의미가 있었다.

단, 왜왕이 요구한 지역명 중에서는 왜국 측의 자칭에는 백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송의 제수에서는 반드시 제외되고 있는 것에 주의하고자 한다. 백제는 372년에 동진에 입공한 이래로 중국 남조와 통교하고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宋書》 고구려전, 420년 송 성립 시의 進號 기사에 의함) 등의 官爵號를 얻었다. 따라서 왜국이 아무리 백제의 군사권 부여를 요청해도 이미 백제를 책봉하고 왜보다도 격상된 將軍號를 부여한 송으로서는 왜국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장군호에 관해서 말하자면, 왜왕이 자칭·제수받은 안동(대)장군은, 四安將軍 중 하나로써 송의 장군표(<표 3>)에서는 제3품, 제2품에 상당하는 것이다. 단, 같은 품격 내에서도 각 장군호에는 서열이 있고, 고구려, 백제와 비견하면 왜왕의 장군호는 항상 劣位였다(주3). <표 1>에 의하면, 478년에 왜왕 무는 開府儀同三司를 자칭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463년에 송으로부터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로 제수된 것에 대항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송은 그 제수를 인정하지 않고, 왜국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광개토왕비문 이후의 한반도 전황은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삼국사기》의 해당 부분을 보아도 대대적 전투는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472년 백제왕 余慶(蓋鹵王)이 중국 북조의 북위에 올린 상표문에는 “構怨連禍, 三十餘載財殫力竭, 轉自孱蹶”이라고 되어 있어서(《魏書》 백제국전), 백제와 고구려가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대적 전투가 없다는 점에서는 소강기라고 평할 수 있지만, 왜국으로서도 대 고구려전에 대한 체제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어서, 광개토왕이 한 때 유린한 반도 남부의 군사권 확보를 위하여 송과의 외교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왜국이 백제의 군사권을 집요하게 요청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를 統屬 下에 두려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군호는 백제 쪽이 항상 상위이기 때문에, 가령 송이 백제의 군사권 위임을 왜국에 인정했다고 해도, 백제가 상위인 장군호로 인해 오히려 왜왕을 인솔하고 백제 자신의 군사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왜국의 자칭과 제수 요구는 백제도 지지했던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高寬敏 1997】. 단, 한편으로는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5세기 후반의 백제와 신라의 대고구려전 동맹의 형성이나 비유왕(재위 427~455년)대에는 백제와 왜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유의하면, 5세기대의 백제와 왜의 관계는 반드시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야 한다【熊谷公男 2007】. 그 한 가지 원인으로써 백제의 군사권 부여를 송

에 요구하는 왜의 독자적 외교 전개가 상정된다.

이 1지역의 2군사권 문제와 관련하여 479년의 가라국의 남제 입공과 장군호 제수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때에 가라국왕에게 도독제군사가 수여되었는지 어떤지는 명확치 않지만, 자국의 왕위 승인은 당연히 군사권 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때, 새 왕조 성립에 동반되는 경하적 진호이면서 왜국에 대한 장군호 수여와 군사권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라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왜국왕의 진동대장군에 대하여 가라국왕은 보국장군이며, 장군호로부터 말하자면 후에 기술하듯이 왜왕이 신하에게 제수를 요청한 장군호와 동등한 낮은 등급의 지위였다. 그렇다면 중국 남조는 1지역의 군사권을 복수의 나라에 수여했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호의 상하관계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단, 엄밀히 말하자면 479년의 왜왕의 진호에는 한반도 여러 지역의 都督諸軍事號의 승인을 동반했는지 아닌지 명확치 않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1지역 2군사권의 명확한 사례로 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 수가 적고 【坂元義種 1978 c】,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와 같이 생각한다고 해도, 백제의 군사권을 결국 왜국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때로는 무력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남조로서는 북조의 견제에도 도움이 되는 고구려, 중국 왕조와의 통교를 유지하는 백제, 그리고 먼 외국 땅에 있어서 어쩌다 한 번 밖에 입공하지 못하는 왜국이라는 동아시아 諸國의 서열은 부동의 것이었던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왕조가 인정한 군사권 행사의 실태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의 구체적 통교의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고찰해야 하는 점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 3. 왜 왕권의 성장과 府官制的 질서의 도입 및 도래인의 역할

왜국과 송의 통교 양상을 보면 왜왕은 스스로 관작 제수를 요청함과 함께 438년에는 珍이 倭隋 등 13인에 대하여 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의 제수를 요청하고 451년에는 濟가 23인의 장군호·군대수호 제수를 요구하는 등 수하의 사람들의 관작 수여를 중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수를 송에 인정받으려는 것은 왜국의 국내 정치 운영, 왕권의 확립에 불가결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왜 왕권의 성장 상황을 한반도 제국과 비교하고 또한 5세기 대에 반도로부터 건너온 도래인의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해당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막부’란 출정 중인 장군의 진영을 가리키는 것이 원 뜻이며, 왜왕은 작위 제수된 장군

호에 근거하여 그 수하의 사람을 하위의 장군호를 갖는 지위에 임명함으로써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왜국의 지배 조직을 확립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배 체계를 부관제적 질서로 부르고 있다【鈴木靖民 1985】. 송의 장군표 <표 3>에 의하면, 왜왕 진이 얻은 안동장군호는 倭隋 등 장군호와 똑같은 제3품이기는 하지만, 상위의 장군호이며 왜왕이 국내 질서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 倭隋의 平西將軍(四平將軍 중 하나)과 珍의 安東將軍(四安將軍 중 하나)은 근소한 1계급 차이이며, 거기에 당시의 왜국 왕권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관의 명칭은 마찬가지로 장군호를 수여받은 고구려, 백제에도 존재했다. 중국 왕조와의 통교 및 관작 수여의 역사로 말하자면, 오히려 고구려, 백제 쪽이 선행하고 있어서 왜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국내 질서의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통교관계에 그치지 않는 일한관계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고구려 및 백제의 부관제적 질서의 실태를 참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구려에 관해서는, 안악3호분 묘지(冬壽墓誌·357년) 덕흥리 벽화고분 묘지(某氏 鎮墓誌·408년)의 두 명의 망명 중국인의 사례가 주목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풍의 직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虛号(허호)로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로, 《宋書》 고구려전에서 보이는 長史도 외교사절로서의 칭호인데 부관으로서의 실질적 직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井上直樹 2007】. 확실히 고구려에는 중국과의 통교에서 신하에게 관작 제수를 요청한 사례는 없으며 고구려가 부관제적 질서 그 자체를 국내 질서 형성에 도입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 동수가 樂浪相의 직함을 내세운 고구려왕이 낙랑공의 관작을 얻은 것과 관계가 있으며 그 신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안악3호분 묘지에서는 동진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덕흥리 벽화고분 묘지에서는 광개토왕의 영락 연호가 사용되고 있어서 고구려의 국내 통치가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鎮은 중국풍의 장군·군태수호와 함께 고구려의 13등 관위제의 관명(‘國小大兄’은 제7등의 대형인가)을 칭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고구려에는 다수의 망명 중국인이 종사하고 있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왕의 책봉호를 전제로 하는 부관제에 근거하는 질서 구성이 유효했던 것도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고구려 독자적인 관위제도 속에 편입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5세기대로 생각되는 牟頭婁 묘지에서는 고구려인의 중급 귀족 일족의 동향이 알려졌으며【武田幸男 1989】, 고구려에서는 망명 중국인과 재래의 고구려인을 함께 지배구조 속에 끌어 들여서 독자적인 13등 관위제에 의한 질서 형성을 도

모했음이 보인다.

다음으로 백제의 경우는 <표 2>와 같이 중국에 대하여 신하의 관작 제수를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제가 부관제적 질서를 이용했음은 틀림없다. 《隋書》 백제전에는 “國中大姓有八族. 沙氏, 燕氏, 荔氏, 解氏, 貞(眞인지)氏, 國氏, 木氏, 苜氏”로 大姓八族이 거론되고 있지만, 백제왕 밑에서 長史·司馬·參軍 등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5세기에 유력했던 眞·解씨를 비롯한 백제의 유력 귀족의 성씨를 가진 인물은 보이지 않고 중국계의 성씨를 칭하는 사람이 많음이 특색이다【李文基 2003】. 《隋書》 백제전에는 또한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 亦有中國人”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7세기 전후의 상황이지만 백제의 궁정의 복잡한 구성이 보인다. 5세기의 백제도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하여 중국 왕조와의 통교, 왜국과의 제휴,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낙랑·대방계의 유민 또는 새로 온 중국인을 기용하여 왕의 권력 강화에 노력했을 것이다.

부관 중에는 余姓인 사람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왕족까지도 종속 관료에 끌어들여 왕권 강화를 도모했음을 보여준다. 475년 백제는 고구려의 공세로 인해 존망의 위기를 맞고, 수도를 남천하여 반도 서남부로의 지배 침투로 국세를 재흥시키려 한다. 이 시기에는 지명+王·侯의 칭호를 가진 자로서 왕족이나 大姓의 유력귀족의 이름이 등장하여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질서 속에서 그들을 편입하여 지방 지배를 위임하고 국내 통제의 강화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坂元義種 1978 d】. 백제에서는 부관제적 질서에 의한 국가 기구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왜국의 경우에 위에서 말했듯이 안동장군 왜국왕 珍과 평서장군 왜수에게는 명확한 상하 관계가 있었지만, 그 차는 한 계급 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왜수는 왜왕과 마찬가지로 ‘왜’성을 칭하고 있어서 백제왕 수하의 왕·후와 마찬가지로 왕과 동족, 동등한 정도의 인물이 왕권을 보좌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왜국의 부관제적 질서의 실태나 5세기의 국내 체제 정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①千葉縣 市原市 稻荷台1号墳 出土 鐵劍銘(5세기 중엽인가), ②埼玉縣 行田市 稻荷山古墳 出土 鐵劍銘(471년), ③熊本縣 玉名郡 和水町 江田船山古墳 出土 大刀銘(5세기 후반) 등의 금석문을 고찰 자료로 하고자 한다(주4).

①, ②는 관동지방, ③는 九州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며 ②, ③에서 보이는 獲加多支鹵(와카타케루)대왕은 《고사기》 《일본서기》의 웅략천황의 이름 大泊瀨幼武(오호하쓰세와카타케루)와 합치되고, 왜왕 무는 ‘다케루’의 문자를 치환한 이름으로 생각되므로, 왜왕 무의 상표문에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宋書》왜국전)으로 되어

있는 왜 왕권의 동·서로의 확장을 증빙하는 재료가 된다. ②는 관동 지방의 호족이 杖刀人首, 또는 杖刀人首-杖刀人の 관계이며, ③는 九州의 호족이 典曹人으로서 궁정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일본서기》《新撰姓氏錄》 등에도 雄略朝 궁정 조직 정비의 모습이 보이며 獲加多支齒大王의 대에서는 각지의 호족을 왜 왕권에 봉사시키는 체제가 출현한 시대였다고 생각된다【鈴木靖民 1985】.

《일본서기》에 의하면 웅략천황은 죽을 무렵에 大伴連室屋과 東漢掬直 두 사람에게 遺詔했다고 하며(웅략 23년(479) 8월 병자조), 大伴室屋은 왜 왕가의 궁정 조직을 분장한 家宰의 호족에 속하는 인물로써 궁정 조직의 정비, 왕권강화 추진을 담당한 왜왕가의 궁정조직 정비, 왕권 강화의 추진을 담당했다. 또 한사람인 東漢直掬은 都加使主로도 기술되며 왕인을 조상으로 하는 西文首와 함께 東西史部와 같이 칭하여지는 가장 유력한 도래계 씨족 東漢씨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다. 《일본서기》 웅략 2년 10월 是月條에는 “唯所愛寵，史部身狹村主青·檜隈民使博德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한씨 계통의 도래계 씨족에 대한 신뢰는 두터웠다. 東漢씨·西文씨는 후한 황제의 후예이며, 秦씨는 진의 시황제 후예를 칭하는데(《新撰姓氏錄》), 동한씨는 안라(阿羅, 阿那加耶, 阿尸良국이라고도 함. 《위지》 한전의 弁辰安邪國), 秦씨는 울산 부근의 출신으로 생각되며, 그들은 주로 한반도 남부 출신이며, 고구려의 남하 등에 의한 반도의 혼란을 피해 5세기에 왜국에 온 사람들이다(《일본서기》 應神 14년(283+120→403?) 是歲條, 동 16년 8월조, 동 15년 8월 정유조, 동 16년 2월조, 동 20년 9월조).

이보다 앞선 도래인으로는 葛城襲津彥이 데리고 돌아왔다는 桑原·佐糜·高宮·忍海 4읍의 漢人の 조상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갈성씨에게 귀속된 듯 하다(《일본서기》 神功 5년(205?) 3월 기유조). 이것이 5세기 중엽 무렵까지의 갈성씨 세력 전성을 지탱해 준 하나의 그리고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주5). 《일본서기》 允恭·安康·웅략기, 즉 왜왕 濟·興·武 시대에는 이 갈성씨와 왕권의 대립이 그려져 있어서 갈성씨를 제압하여 세력을 강화한 왕권에 있어서도 도래인의 장악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웅략기에는 또한 도래인의 조직화나 새로운 사람들의 초빙을 보여주는 기사가 산견되고 있어(후에 게재되는 사료 07, 《일본서기》 웅략 14년(470) 정월 戊寅조, 동 15년조, 동 16년 7월조·10월조) 왕권에 의한 도래인 파악이 진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5세기의 도래인은 농업·토목 기술이나 제철·직물·須惠器 등 생산 면에서 갖가지 선진 기술을 가져오고 또한 문자 지식을 가진 史(후비토)나 大藏의 관리를 담당하는 藏部(《古語拾遺》)로서의 활동으로 왕권의 유지·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또한 身狹村主靑의 ‘吳’

와의 통교 이야기(《일본서기》 웅략 14년 정월 戊寅조)는 그들이 선진문물을 도입하는데 주도적 입장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425년 왜왕 讚이 송과 통교했을 때 司馬曹達을 파견한 것과 금석문③의 필자가 張安인 것 등은 왜국에도 중국계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도래했던 것을 가르쳐 준다.

단 도래인의 기술, 선진문물의 도입은 아직 왜왕권만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일본서기》 웅략 7년(463) 시세조(뒤에 게재되는 사료07)에서는 吉備上道臣 田狹과 稚媛 소생의 弟君이 신라에 파견되게 되었을 때, 西漢才伎勸因知利라는 사람의 발안으로 今來才伎(새로 온 기술자)를 초빙하는 임무도 위임되었다고 한다. 弟君은 稚媛을 웅략에게 빼앗긴 父 田狹의 권유로 인해 왜 왕권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의 처 樟媛이 弟君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어떤 책의 기술에 의하면 弟君은 사명을 다하고 백제로부터 歸朝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때에 도래한 사람들은 왜 왕권에 귀속되었다고 하며 왕권에 의한 새로 온 기술 독점을 보여준다. 단 吉備 지역에도 도래인이 거주한 증거는 많아서【龜田修一 1997】, 왕권의 용무를 맡은 중에 吉備씨도 새로 온 기술 도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田狹도 반도에서 계속 체재한 듯하기 때문에, 吉備씨와 반도의 관계, 선진문물 이입 루트는 건재했다고 해야 한다. 그 외에 금석문③의 江田船山古墳으로부터는 백제계의 금동제 관모·찰·귀걸이가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 호족의 독자적 문물 이입 루트의 존재를 제시해 주는 사례일 것이다.

다시 금석문①~③으로 돌아가면 5세기 중엽의 ①에서는 ‘왕’이었던데 반해, ②·③의 獲加多支鹵=웅략=倭王 武의 단계, 5세기 후반에는 ‘왕’을 넘어서는 칭호로써 ‘대왕’호가 성립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5세기 초의 광개토왕이 호태왕이라 지칭되고 있어서(태왕릉 고분 출토 동령에는 “辛卯年好大王□〔所?〕造銅九十六”이라고 되어 있다), 신라의 영역 내의 경주 노서동 140호분 출토 을묘년(415)銘壺杆에 ‘廣開土地好太王’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또한 延壽 원년(451)銘의 慶州 瑞鳳塚出土 銀合杆에는 ‘太王教造’라는 글자가 있으며, 장수왕도 ‘태왕’이라 이름하고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를 침투시켰던 사실이 보인다. 府官制 질서에서 설명했듯이, 백제왕의 밑에는 王·侯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백제에서도 ‘대왕’호가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시아에서 대왕호 호칭은 급속한 영역 확대, 국내 지배의 강화, 근린 제국의 제압, 중국과의 적극적 외교 등을 배경으로 성립되고 있으며【坂元義種 1978 e】, 왜왕 무시기의 왜 왕권도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계에 있었다. 무의 자칭 호인 ‘使持節都督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7국제군사 인동대장군 왜국왕'에는, 백제까지도 군사 지배 하에 두는 대왕으로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구상이 엿보이며, 開府儀同三司의 가칭 제수도 같은 칭호를 이미 제수 받았던 고구려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석문②에는 '左治天下', ③에는 '治天下'의 표현이 보이며, '천하'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천하'란 '전 세계, 중국 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국 황제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②, ③의 '천하'는 왜왕의 지배 영역을 가리키고 있으며,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자국의 영역을 '천하'로 하는 관념이 성립된 것을 보여준다. 왜왕 무의 상표문에서는 그 때까지와는 달리, 신료의 관작에 대해 제수를 요청하는 명확한 문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즉, 왜왕 무는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로부터 이탈하여, 독자적인 '천하'의 지배를 구상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이후에 중국 남조와의 통교가 단절되는 이유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6). 그 외에도 479년에는 그 송 왕조가 멸망하고 그 후 급진적 선양 혁명, 하극상으로 寒人으로부터 밀고 올라가는 남조의 황제 책봉을 받음에 위화감을 품은 사실도 통교가 단절되는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前之園亮 -2001】. 어쨌든 '治天下大王'의 성립으로 인해, 왜국이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인 왕권과 국토를 유지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중요하며, 그러한 점에 왜왕 무 단계가 달성한 하나의 성과가 있었다.

단,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긴박해져서, 《일본서기》에 의하면 왜 5왕의 계보도 武=웅략 후에 단절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일한관계의 행방은 다음 절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최후의 국내 지배구조의 과제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일본서기》 웅략 7년(463) 8월조에 있는 吉備下道臣 前津屋이, 왜 왕권을 섬기는 吉備弓削部 虛空을 귀향 중에 留使했다는 이야기는, 吉備씨 수하인으로 왜 왕권에 근무하는 사람의 존재, 그런 사람도 吉備의 땅에서는 해당 지역의 최고 유력 호족인 吉備씨에게 따라야 한다는 이중 신분적 존재 형태로써 지역의 유력자와 왜 왕권의 양쪽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을 왕권 측에 일원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지방호족의 약체화, 왕권의 강화에 이어지는 것이다. 吉備씨는 몇몇 유력 호족의 연합체로서 맹주묘도 변동되고 있지만, 5세기 대에는 造山高分, 作山高分 등 거대한 전방후원분을 축조하고 왜 왕권에 필적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瀬戶內海 교통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瀬戶內의 소금, 中國 山地의 철 등의 유용한 자원을 가진 점으로 보아도 왜 왕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서기》에는 吉備씨 견제전승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완전히 제

압할 수는 없었으며 6세기 전반에는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吉備씨의 독자적 활동도 알려진다. 중국 왕조와의 통교에 관해서는 왜 왕권이 외교권을 독점했지만, 이러한 지방 지배의 독자성이나 한반도 제국과의 개별적 통교에서 보이는 국내외에서의 지방 호족의 독립성 유지는 왜 왕권의 거듭되는 성장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다.

## 제2절 백제의 남천과 왜국의 외교 정책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략하여 개로왕(재위 455~475년)을 살해한다. 피멸적 타격을 입은 백제는 수도를 웅진에서 남천하여 국세 부흥에 노력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주왕(재위 475~477년), 삼근왕(재위 477~479년)의 2대는 치세가 짧고, 대성 8족 해씨의 解仇에 의한 문주왕 살해, 해구와 결탁한 연씨의 燕信 등과 삼근왕의 대립, 진씨의 眞老에 의한 해구 주살 및 연신의 고구려로의 도주 등이 전해지고 있어서 웅진 천도 후의 백제 부흥의 혼란기였던 사실이 엿보인다.

이러한 백제의 정정이 안정되는 것은 다음에 즉위한 동성왕(재위 479~501) 대이다. 동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싸우고, 신라와의 결혼 동맹 형성이나 남제에 대한 조공 등 국제관계의 구축에 진력했다. 또한 <표 2>의 왕·후의 관할지명에 표시되는 한반도 서남부의 經略을 추진하여 탐라(제주도)를 복속시키고, 웅진시대의 백제의 안정기를 만들어 냈다. 이것이 다음 6세기대의 동방의 가야 제국으로의 침공, 신라와의 쟁탈전을 전개하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백제의 남천 후의 왜국의 외교 활동의 모습, 백제, 신라, 왜국과 가야 제국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왜 무왕과 백제왕 여경·모대의 상표문

백제의 남천 후, 478년에 왜왕 무는 중국 남조의 송에 입공하여, 상표문을 봉정한다(《宋書》 왜국전). 왜왕 무의 상표문은 ① 왜국의 역사와 과거에 있어서의 송과의 관계를 개관한 다음에, ② 이 무렵의 국제적 안건 발생(고구려와 백제의 전쟁)과 왜국의 송으로의 입공 계속화의 현상을 설명하고, ③ 다시 때를 거슬러 올라가 가까운 과거의 상황으로써 왜왕 濟 시대의 대고구려전 준비와 그 중단에 대해 서술하고, ④ 무 자신의 대고

구려전 수행 의지와 그를 위한 官爵 假授 執行을 상표한다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상표문과 472년의 백제왕 여경의 상표문(《위서》 백제전)은 사용되고 있는 어구·표현과 유사했던 바가 있어, 봉정 시기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 백제인이 기초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內田清 1996】.

그러나, 5세기 대의 왜국·백제·고구려가 중국 왕조에 봉정한 상표문의 어구·표현을 통람하면, 중국 사서·경서에 의거하여 작성된 모습이 간파되며 널리 사서·경서에 통달한 인물이, 앞선 세기의 진대의 용례를 의식하면서 송·북위에서 사용된 새로운 어구·용례까지 도입하여 외교문서를 기초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田中史生 2005】. 왜왕 무의 상표문과 백제왕 여경의 상표문 표현이 비슷한 것은 백제의 부관 중에 보이는 중국계의 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왜국에서의 曹達과 張安과 같은 인물 등 중국계 도래인이 각국에서 이룬 역할과 그들의 교양 기반의 공통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495년의 백제왕 牟大의 상표문(《남제서》 백제전)도, 왜왕 무의 상표문과 비슷하다. ① 과거의 남조와의 관계 강조, ② 그 즈음의 국제안건의 발생, ③ 사건에 대한 대응, ④ 결과에 대한 처치로서의 관직 수여 요구라는 문장 구성, 모두 부분의 ‘自昔’이라는 어구의 일치를 비롯한 用字에도 매우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河內春人 2003】. 이러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자 문화권’의 공유도, 해당기의 국제 정세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된다.

단 왜왕 무의 상표문에서는 왜국에서도 과병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병에 이르지 못하여 왜국과 백제에서는 고구려전에 관한 심각성과 절박감은 크게 달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川崎晃 2001】. 백제왕 여경의 상표문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역사를 회고하며 중국의 前燕 멸망 후에 고구려는 북방의 위협이 없어지고, 광개토왕·장수왕대, 특히 장수왕대에 들어선 그 30년간은 지극히 강성하여 백제는 대 고구려전에서 국력이 소모·고갈되고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통교관계가 없었던 중국 북조의 북위에 건사하여 원조를 구하던 참이었다. 현실적으로도 백제에는 고구려의 공격에 의한 수도 남천, 국세 재건의 위기가 찾아왔고 왜국에서도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여러 나라의 동향과 자국의 대외정책 확립에 눈을 돌릴 필요가 생겼다.

## 2.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과 백제

웅진시대의 백제의 남방 경영과 관련하여 최근에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된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을 둘러싼 학설의 정리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전방후원분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고훈시대 초기는 3세기 중엽으로 여겨지며(3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다), 전방후원형의 고분은 일본의 독자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서남부의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 전방후원분이 존재함이 판명되어 일한관계를 고찰할 새로운 재료가 제시되었다【岡内三眞編 1996, 朝鮮學會編 2002, 北郷泰道他 2006, 朴天秀 2007 a, 辻秀人 2007, 近藤浩一 2008 b, 新井隆一 2008 등】.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전방후원분이 13기가 발견되었다(<표 4>). 그 특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한반도 내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② 1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분산되어 분포한다. ③ 다른 고분과는 떨어져 고립된 위치에 있는 것이 많다. ④ 전장은 33m의 명화동 고분으로부터 76m의 해남 장고산 고분까지로, 일본열도의 전방후원분과 비교하면 소형이다. 그러나 백제 무령왕릉은 약 20m의 원분으로 그 외의 백제 왕릉도 20m 전후의 원분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백제 왕릉을 능가하는 크기이다. ⑤ 조영 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 통일 규격은 없다. ⑥ 주체 부위는 대개 황혈실 석실로서(자라봉 고분은 수혈식 석실),九州 중·북부의 고분과 비슷하다. ⑦ 일본열도의 전방후원분과 같은 축조 방식은 보이지 않지만 段築·葺石이나 周壕는 있는 것이 있다. ⑧ 부장품의 대부분은 백제적이다. ⑨ 대가야계로 보이는 부장품을 동반하는 것도 있다(명화동 고분, 신덕 고분). ⑩ 원통형 토기(하니와 형의 흙제품)나 방패형 목제품이 출토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왜식이다.

그것을 만든 주체에 관해서는 크게 나누어 재지 수장설【岡内三眞 1996, 土生田純之 1996, 田中俊明 2001·2009, 朴淳發 2001·2003 b, 李暎澈 2006, 河承哲 2006, 辻秀人 2007 등】과 왜인설이 있으며, 왜인설은 왜로부터의 이주자설과 왜계 백제관료설【朱甫暎 2000, 西谷正 2001, 朴天秀 2007 a·2008 등】로 갈리고 있다. 왜로부터의 이주자설에는九州 또는 왜 왕권으로부터의 세력 침투를 상징하는 설【東潮 1995·2001, 柳澤一男 2008, 李鎔賢 2008, 鈴木英夫 2008 등】과 귀향 왜인설【林永珍 1997·2000】, 즉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이 전방후원분 축조 기술을 갖고 돌아왔다는 생각, 그리고 재지인화

하는 도중의 왜인설 【土生田純之 2008】의 세 가지 설이 있다. 왜계 백제관료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언급하고자 하나, 왜계 백제관료설은 ② ③ ⑤ ⑥ ⑧의 특색에 유의하여, 웅진 천도 후에 한참 동안 자력으로 남방을 통치할 역량이 부족했던 백제가 기존 질서를 깨기 위해 재지적 기반이 없는 외부 세력인 왜계 백제관료를 사민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또한 왜인끼리의 결합을 경계하여 분산적 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 왜계 백제관료의 생성 시기(후술)와의 차이에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으며 【李鎔賢 2008】, 또한 왜계 백제관료는 백제 왕권을 따르기 때문에 ④와 같이 백제의 왕릉을 능가하는 크기의 전방후원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의문점도 남는다 【土生田純之 1996】. 마찬가지로 왜로부터의 여러 이주설 중에서 앞의 두 가지 설은 다른 고고학적 흔적이 증명되지 못하여 역시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영산강 유역의 위치 정립은 해당기의 백제와 왜, 그리고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핵적 논점이 된다. 한국의 문헌사학계에서는 《일본서기》 神功 49년(249+120→369) 3월초(뒤에 게재할 사료 04)의 가야 지역 7국 평정의 주체를 백제로 바꿔 읽고 이미 근초고왕대의 4세기 후반에는 전라남도 지역도 백제의 영유 하에 있었다는 의견이 유력하지만(주7), 고고학적 입장으로 보면 영산강 유역이 완전히 백제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은 6세기 중엽 이후의 일로서 문제의 전방후원분 시대는 그 최종적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게 되었다 【朴淳發 2003a·b, 徐賢珠 2008, 吉井秀夫 2002·2005·2006 등】. 그렇다면 6세기 전반 무렵까지는 백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왜국 내의 여러 세력 특히 九州의 중·북부의 세력, 그리고 대가야와도 제휴하는 독자적 세력이 존립하게 되어, 위에서 서술했듯이 일본에서는 이것을 5세기에 왜왕이 중국 남조의 송으로부터 제수 받은 군사권 부탁의 범위에 등장하는 ‘모한’, 즉 마한의 잔존 세력과 관련지으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東潮 1995, 田中俊明 2001·2009 등】. 이러한 해당 지역의 역사가 전방후원분 축조에 체현되고 있어서 재지 주장설 제시의 논거가 된다 【林永珍 2003, 朴淳發 2003b 등】.

모한(마한)이 결집된 정치세력이었는지 아닌지는 제처두고라도(주8), 해당 지역의 역사적 위치 정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유역의 독자성 여부를 더욱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近藤浩一 2008a】.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로 인해 왜국에 철 자원이나 도질토기를 공급했었던 남부 가야의 금관국이 세력이 저하된 후에, 5세기 대에는 영산강 유역으로부터 도질토기 등의 문물을 왜국으로 가져간 사실이 판명되고 있어서 ‘백제-영산강 유역-九州-왜 왕권’이라는 관계 모델도 제시되었다 【朴淳發 2001】. 즉 5세

기대의 왜국은 이러한 작은 세력의 자립을 지원했거나 또는 九州의 세력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인정했지만, 다음의 6세기가 되자 백제의 영토 확대를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방책으로 바뀌거나 또는 백제의 가야 제국 침공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이어져, 관계 모델은 ‘백제-왜왕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커다란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 3. 왜계 백제 관료의 생성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을 축조한 주체에서 나온 왜계 백제 관료와 관련하여, 남천 전후의 백제와 왜국의 관계 또는 왜계 백제 관료의 양태·성립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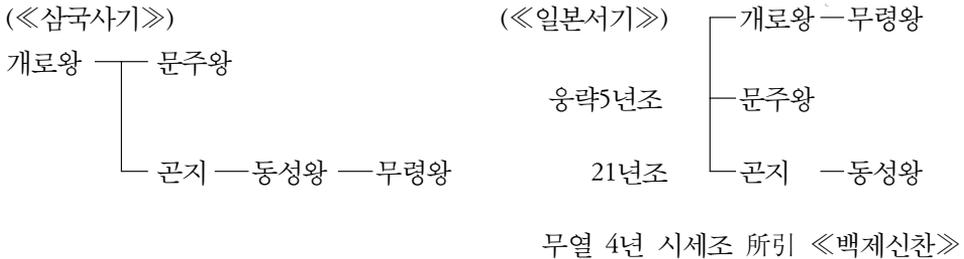
고구려에 의한 한성 공략의 모습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475) 9월 조, 문주왕 즉위 전기, 《일본서기》 웅략 20년(476) 겨울 조(分註에 인용된 <백제기>에는 을묘년(475)으로 되어 있다) 등에 묘사되어 있지만 이 백제 남천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왜국은 나중에 알게 된 듯하다. 《일본서기》 웅략 21년(477) 3월조에는 왜국이 백제 부흥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가 구원을 요청한 것은 신라이며 5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도 고구려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고, 북방에서는 백제, 또는 ‘가야’(고령, 대가야)와 협력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하려고 한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9년(455) 10월조, 소지마립간 3년(481) 3월조, 동6년(484) 7월조, 동 16년(494) 7월조, 동 17년(495) 8월조, <백제본기> 비유왕 7년(433) 8월조, 동성왕 16년(494) 7월조, 동 17년(495) 8월조, 《일본서기》 웅략 8년(464) 2월조 등).

상기와 같이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으며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연구에서는 이전부터 주장되었지만, 최근에 일본에서도 5세기 후반의 나제동맹을 고려에 넣어 왜국과 백제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창이 나오고 있다 【熊谷公男 2007, 森公章 2006 등】. 《삼국사기》 <백제본기> 비유왕 2년(428) 2월조에는 “倭國使至, 從者五十人”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서기》 應神 39년(308+120→428) 2월조의 新齊都媛 귀래 기사와 대응되는 것이지만 비유왕(재위 427~455년)대의 통교의 예로서는 이것뿐으로 《일본서기》는 비유왕의 존재를 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기의 왜와 백제간의 관계는 반드시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다음 개로왕 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일본서기》 웅략 5년(461)조에 加須利君(개로왕)이 남동생의 軍君(군지)를

왜국으로 파견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475년의 백제의 위기에 임하여 왜국이 즉시 부응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웅진 천도 후의 백제에 대하여 왜국이 명확한 지원을 한 것은 동성왕 즉위 때가 처음이며, 삼근왕 서거에 임하여 왜국은 곤지의 차남인 末多王에게 병기를 하사하고 筑紫國의 군사 500명을 보내 호송하고 이를 동성왕으로 즉위시켰다 한다(《일본서기》 웅락 23년(479) 4월조). 위에서 서술한 웅락 21년 3월조에는 웅진 천도 시에 문주왕에게 지원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分註所引 ‘日本舊記’가 서술하고 있듯이 이는 말다왕(동성왕) 대의 지원을 소급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동성왕은 문주왕 대에 內臣佐平이 된 왕제 곤지(477년 서거)의 아들이었다. 개로왕·문주왕·곤지의 관계, 동성왕의 왕통 계보상 위치나 곤지의 왜국에서의 체류, 백제로의 귀국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와는 큰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 하고자 한다【坂元義種 1978f, 古川政司 1981, 山尾幸久 1989, 李根雨 1997 등】.

〈두 종류의 백제 王統譜〉



《일본서기》 웅락 23년 시세조에는 또한 백제로부터의 調賦가 관례보다 많았기 때문에 筑紫의 安致臣·馬飼臣 등 船師를 파견하여 고구려와 싸웠다고 되어 있다. 이 戰役은 《삼국사기》에서 대응 기사를 발견하지 못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이때에 파견된 군사는 筑紫, 즉 九州의 병력이며 동성왕 즉위 시의 호송과 함께 왜국의 원정군 편성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의하고자 한다. 다음 6세기대에는 백제에서는 物部·科野·巨勢·紀臣·葦北君·久米·竹志 등 왜인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제의 16등 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끔 보이며(《일본서기》 繼體·欽明紀), 그들은 왜국이나 ‘임나일본부’와의 외교 협상에서 활약하고 있어 왜계 백제관료라 칭할 존재였다(주9). 554년에 백제 성명왕이 신

라에 패사한 전투에는 ‘東方領 物部莫哥武連’이 등장하고 있다(사료 0-01). 《周書》 백제전에 의하면, 方領에는 達率(제2위)을 기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왜계 백제관료는 奈率(제6위)의 예가 많지만, 상위로 승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알려져서, 《隋書》 백제전에서 그려진 백제 궁정의 융합적 구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筑紫의 호족 출신자를 포함하는 이러한 왜계 백제관료 등용에 있어서 하나의 기점은 이 동성왕 즉위 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朴天秀 2007 a】. 또한 상술한 영산강 유역 세력의 존재와 관련하여 백제가 해당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6세기 중엽의 단계에서 이 땅의 세력과 제휴했던 왜인이 왜계 백제관료가 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熊谷公男 2005】. 왜계 백제관료가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다음의 6세기이며,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분쟁에 즈음하여, 그들은 백제로부터의 사신으로써 왜국에 도래하여 외교 문제의 협의에 종사했다. 6세기대에 왜국과 백제의 관계가 밀접하게 된 것은 유교나 불교를 비롯한 선진문물을 백제가 제공했음과 함께 이 왜계 백제관료의 존재가 백제에 대한 왜국의 신뢰를 양성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 가야 제국의 정세와 왜국·백제·신라

동성왕 즉위에 따른 이상과 같은 왜국의 방책에 대하여 백제 측은 반드시 왜국과의 관계 일변도는 아니어서 동성왕대에도 신라나 남제 등과 다원적 외교를 구축하려고 했으며 왜국과의 관계도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국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6세기대에 백제가 신라와 그 귀속을 둘러싸고 싸우게 되는 가야 제국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479년에는 가라왕 하지가 남제에 입공했으며 이 ‘가라국’은 북부 가야 지역의 고령(대가야, 伴跋)을 말하는 것으로, 5세기대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대가야연맹이라고도 칭할 만한 정치적 결합이 형성되었고(주10), 그것을 배경으로 중국 남조에 대한 입공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 북부가 가야 지역과 왜국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동성왕대의 사건이 되는 487년의 帶山城 사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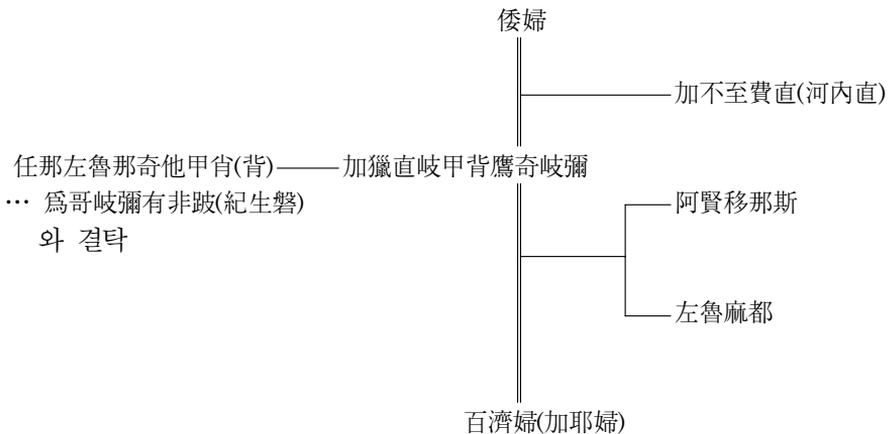
2-03 《日本書紀》顯宗天皇 3年(487) 是歲條

紀生磐宿禰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冑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距守東道, 斷運粮津令軍飢困. 百濟王大怒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干帶山攻. 於是, 生磐宿禰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肖等三百餘人.

여기에 등장하는 紀生磐宿禰는 《일본서기》 용략 9년(465)조에서 신라 정벌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장군 중 한 명인 紀小弓宿禰의 아들인 紀大磐宿禰로 비정된다. 부친의 병마·船官·여러 小官을 이어 받기 위해 大磐이 바다를 건너자 장군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이 군사는 실패로 끝났다. 그 후 大磐=生磐은 가야 지역과 신라와의 경계 지대에 머물러 487년의 대산성 사건에서 백제인을 살해하는 것이다(주11). 이 사건에는 ‘任那左魯 那奇他甲肖(背)’라는 가야계의 인물이 관여하여 가야의 세력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왜국의 호족과 고구려를 끌어들이 백제의 세력을 쫓아 내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는 계기로서는 481년, 484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에, ‘가야’(대가야)와 제휴하여 구원했던 것으로 상기되며(《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 3월조, 6년 7월조), 이번 사건을 구실로 백제는 북부 가야 지역에 대한 제압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任那左魯 那奇他甲肖(背)의 계보》



\* 《일본서기》 현종 3년 시세조, 欽明 5년 2월조 등에 의함.

또한 이 那奇他甲肖는 6세기의 가야 제국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에서 백제 성명왕이 비난한 가야계의 河內直·移那斯·麻都 등의 조상으로 생각되며, 백제에는 가야 진출을

둘러싸고 왜국과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던 것 같다. 那奇他甲背가 가지는 ‘左魯’는 그 자손인 麻都도 冠稱으로 하고 있어서 무언가의 칭호로 생각되며 ‘甲背’는 이 칭호를 받은 백제인의 존재가 알려져 있으므로(《일본서기》 繼體 23년(529) 3월 是月條의 麻那甲背, 欽明 2년(541) 4월조의 城方甲背 昧奴 등), 백제의 칭호로 추정된다. 즉 가야인이면서 백제의 칭호를 갖고, 백제·왜, 또한 신라·고구려와도 관계를 가지고, 복잡한 행동을 하는 세력이 존재했음이 알려져 해당기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가야 지역 사람들의 주체적 선택의 방향도 고려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2-04 《日本書紀》 神功 49年(249+120→369+60→429?) 3月條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土沙白盖盧, 請增軍士. 即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盖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林·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西廻至古爰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 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彥與百濟王, 至于百濟國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彥, 至都下厚加禮遇. 亦副久氏等, 而送之.

2-05 《日本書紀》 神功 62年(262+120→382+60→442?)條

新羅不朝. 卽年遣襲津彥擊新羅. <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飭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早岐及兒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既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捨而不討, 反滅我國. 兄弟人民皆爲流沈, 不任憂思. 故以來啓. 天皇大怒, 既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一云, 沙至比跪知天皇怒, 不敢公還, 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 比跪密遣使人問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 今夜夢, 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 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知不免, 入石穴而死也.>

2-06 《日本書紀》 應神 25年(294+120→414+60→474?)條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姪,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 <百濟記云, 木滿致者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國婦而所生也. 以其父功專於任那, 來入我國往還貴國, 承制天朝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皇聞其暴召之.>

2-07 《日本書紀》 雄略 7年(463) 是歲條

吉備上道臣田狹侍於殿側, 盛稱稚媛於朋友曰, 天下麗人莫若吾婦, 茂矣綽矣, 諸好備矣. 曄矣溫矣, 種相足矣, 鉛花弗凋, 蘭澤無加, 曠世罕儔, 當時獨秀者也. 天皇傾耳, 遙聽而心悅焉. 便欲自求稚媛爲女御, 拜田狹爲任那國司, 俄而天皇幸稚媛. 田狹臣娶稚媛而生兄君·弟君也. <別本云, 田狹臣婦名毛媛者, 葛城襲津彥子, 玉田宿禰之女也. 天皇聞禮貌閑麗, 殺夫自幸焉.>田狹既之任所聞天皇之幸其婦, 思欲求援而入新羅. 于時, 新羅不事中國, 天皇詔田狹臣子弟君與吉備海部直赤尾曰, 汝宜往罰新羅. 於是,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多在韓國, 可召而使. 天皇詔群臣曰, 然則宜以歡因知利副弟君等, 取道於百濟, 并下勅書, 令獻巧者. 於是, 弟君衛

命, 率衆行到百濟而入其國. 國神化爲老女, 忽然逢路. 弟君就訪國之遠近. 老女報言, 復行一日而後可到. 弟君自思路遠不伐而還. 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於大鳴中, 託稱候風, 淹留數月. 任那國司田狹臣乃喜弟君不伐而還, 密使人於百濟, 戒弟君曰, 汝之領項有何牢錮, 而伐人乎. 傳聞, 天皇幸吾婦遂有兒息<兒息已見上文>. 今恐, 禍及於身可躄足待. 吾兒汝者, 跨據百濟, 勿使通於日本. 吾者據有任那, 亦勿通於日本. 弟君之婦樟媛, 國家情深, 君臣義切, 忠踰白日, 節冠青松. 惡斯謀叛盜殺其夫, 隱埋室內. 乃與海部直赤尾將百濟所獻手末才伎在於大鳴. 天皇聞弟君不在, 遣日鷹吉士堅磐固安錢<堅磐, 此云柯陀之波>使共復命. 遂即安置於倭國吾礪廣津邑, 而病死者衆<廣津, 此云比盧岐頭>.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掬, 以新漢陶部高貴·鞍部堅貴·畫部因斯羅我·錦部定安那錦·譯語卯安那等遷居于上桃園·下桃園·眞神原三所. <或本云, 吉備臣弟君還自百濟, 獻漢手人部·衣縫部·穴人部.>

왜국과 북부 가야 지역과의 관계라고 하면, 사료 04의 卓淳을 거점으로 하는 왜·백제에 의한 신라 공격 계획과 그 전말도 주목된다. 여기서는 戰果가 卓淳을 포함하는 가야 지역 7국 평정과 ‘南蠻’ 枕弥多禮(耽羅)의 토벌이 되고 있지만, 卓淳이 토벌 대상이 된 데에는 의문이 있어서 가야 제국이나 탐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6세기대의 백제의 활동 범위를 소급한 것으로써 이 기사 자체는 전승적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단 간지 삼운을 가산하는 기년 수정으로 인해 【山尾幸久 1989】 이것이 429년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해에는 백제의 비유왕이 適稽女郎을 ‘인질’로 하여 왜국에 파견하고 있으며(《일본서기》 웅략 2년(458) 7월조 所引 《백제신찬》에 ‘을사년’(429)의 來朝로 보인다), 이를 받은 왜국이 백제와 함께 가야 제국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료 05는 왜국의 중앙 유력 호족 갈성씨의 沙至比跪(葛城襲津彦인지)와 ‘가라’(대가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이지만, 이것도 왜의 북부 가야 지역에 대한 進攻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田中俊明 2003】, 451년의 왜왕 濟의 칭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가라’(대가야)가 등장하는 것과 이어지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사료 06에는 백제의 직지왕(전지왕) 흥거 후에, 久爾辛王 즉위 후의 일로써 왕이 유년이었기 때문에 木滿致가 국정을 장악하고 왕의 모친과 相姪하여 많은 무례를 행하였으므로 왜왕은 이를 소환하는 뜻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만치는 475년에 문주왕과 함께 웅진으로 천도한 木滿滿致(《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475) 9월조)로 비정되어 이것도 간지 3운을 가산하여 연차를 수정해야 한다.(주12).

사료 04·05에서는 백제 木羅斤資의 활동이 특기되어 있어서 목라근자-목만치 부자가 북부 가야 지역에서 맹위를 떨친 모습을 전하고 있다. 木(木笏)씨는 백제 大姓八族 중 하나로, 大姓者에는 王·侯로 책봉된 예도 보이며(<표 2>), 동성왕 대의 백제 재건은 유

력 호족에 의한 지방 지배 추진으로 지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5년에 백제가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려 한 것은 북부 가야 지역을 매개로 하는 木氏와 신라의 접촉이 있었다고도 추측되는 바이다. 그 전제를 비난받은 滿致는 왜국에 도래하였고 왜국이 그것을 수용한 것은 왜국에는 木씨가 구축한 북부 가야 지역과의 관계를 계승할 계획이 있었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부 가야 지역은 5세기 도래인의 출신지이며 또한 사료 07의 ‘임나국사’ 吉備上道臣田狹과 같은 지방 호족의 진출도 있었다. 이러한 가야 지역과 왜국의 여러 세력과의 여러 관계는 백제와 신라가 가야 제국의 쟁탈을 전개하는 6세기 대에 왜국이 선진문물이나 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의 동란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단, 북부 가야 지역에 대한 활동은 葛城씨나 紀씨(왜계 백제관료의 씨성에도 보인다)라는 유력 호족 독자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남부 가야 지역에서의 吉備씨 활동 모두가 이러한 중앙·지방의 유력 호족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는 왜 왕권에 있어서 여전히 과제였다고 해야 한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炤知麻立干 18년(496) 2월조에는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라도 대가야와의 통교를 시도했다. 그 신라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옹랴 9년(465)조에 왜국의 신라 공격이 그려져 있어서 적대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단, 고고학적 견지에서 보면 5세기 전반에는 신라의 金工 기술이 왜국으로 이입되었다는 지적도 있어서 【朴天秀 2007 b】, 왜·신라 관계는 반드시 대립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왜인 관계 기사를 보아도(<표 5>), 해당기의 왜는 신라의 영역을 침해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왜인·왜병은 이것을 반도에 소재했던 것, 또는 가야로 바꾸어 이해하는 설도 있지만 【三品彰英 1962, 井上秀雄 1973】, 왜인·왜병의 행동에 착목하면 성을 공략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계속적 점령은 아니며 또한 내습의 시기가 바다가 온화한 4~6월의 봄, 여름에 집중되는 것은 일본열도로부터 반도의 동해안으로의 도래에서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은 가야 지역과 교류하며 철 등의 선진문물을 얻었던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호족에 의한 행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鈴木靖民 1974, 鈴木英夫 1996 b】. 또한 462,3년의 대규모 병력 내습 기사는 왜 왕권에 의한 출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6세기 대의 가야 제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왜국의 개입 배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5세기대의 양상으로부터 왜국이 신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는가도 다음의 6세기 일한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 (주1) 그 외에, 堀敏一, 2000 《中國通史》(講談社), 西嶋定生, 1983 <東アジア世界と冊封体制>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學出版會) 467頁 補1 등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 (주2)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의 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 (주3) 【石井正敏 2005】는 同品内の 各將軍号는 同格이었다고 생각하고, 宋이 倭國에 百濟의 軍事權을 주지 않은 것은 선행하여 백제에 부여한 것이 이유였고, 장군호의 서열이 問題로 여겨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百濟에 대한 先行付与를 이유로 하는 점이 좋겠지만, 諸將軍号가 同格이었다고 하는 점은 지지하기 어렵다.
- (주4) 瀧口宏監修, 市原市教育委員會・財団法人市原市文化財センター 編, 1988 《「王賜」銘鐵劍概報》(吉川弘文館); 東野治之, 2004 《日本古代金石文の研究》(岩波書店); 東京國立博物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國寶銀象嵌銘大刀》(吉川弘文館) 등.
- (주5) 2006 《葛城氏の 實像》(橿原考古學研究所).
- (주6)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의 國際環境》(東京大學出版會)
- (주7) 千寛宇, 1974 <韓國史의 潮流 - 三國時代(抄)> 《古代日本と朝鮮의 基本問題》(學生社); 金鉉球, 1993 <「神功紀」의 加羅七國平定記事に關する一考察> 《翔古論聚》 久保哲三先生追討記念論文集刊行會 등. 【鈴木英夫 2008】도 5세기 후반에는 百濟가 全羅南道를 지배했다고 보고 있다.
- (주8) 【山尾幸久 2001】는 慕韓을 益山・金堤・扶安附近으로 보고, 榮山江流域을 慕韓으로 비정함에 반대하고 있다.
- (주9) 李弘植, 1936 <任那問題を中心とする欽明紀の整理 - 主要關係人物の研究 -> 《靑丘學叢》25; 笠井倭人, 2000 <欽明朝における百濟の對倭外交>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吉川弘文館); 金鉉球, 1985 <日系百濟官僚>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등. 또한 663년 白村江戰에서 百濟가 완전히 滅亡한 다음에, 倭國(→日本)으로 망명한 百濟人에는, 《續日本紀》神龜元年(724) 5月 辛未條에 物部・久米姓, 寶字 5年(761) 3月 庚子條에 竹志・科野姓의 사람이 보이고 있어서, 그들 倭系 百濟官僚는 百濟 滅亡時까지 百濟에 봉사한 사실이 알려진다.
- (주10) 金泰植, 1985 <五世紀前半大加耶發展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12; 1988 <六世紀前半加耶南部諸國의 消滅過程考察> 《韓國古代史研究》1; 1993 <六世紀中葉加耶連盟의 滅亡過程> 《朝鮮學報》146; 2001 <加耶史輕視論에 대한 批判>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10, 田中俊明 주(2) 글 등.
- (주11) 帶山城의 比定地는 全羅北道 井邑郡 泰仁(옛이름은 大尸山)로 보는 것이 유력한 설이지만, 史料 03의 登場人物・地名으로 생각하면, 百濟와 新羅와 加耶의 境界附近이며, 또한 高句麗의 領域과도 近接하는 땅을 상징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12) 【大橋信彌 1989】는 史料 06을 久爾辛王 즉위전의 滿致의 專斷体制→429年 毗有王 즉위로 인한 倭國으로의 망명→455年 蓋鹵王 즉위 후의 歸國과 475年 文周王을 따라 南遷이라고 해도 年代에 矛盾은 없다고 하며, 毗有王代의 倭・百濟關係 不調를 滿致의 倭國으로의 망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滿致의 부친 木羅斤資의 활약 시기로 생각해 보면, 역시 연대적인 정합성이 없는 바가 있어서, 5世紀 후반의 인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木滿致를 蘇我씨의 조상 중 한 사람인 蘇我滿智宿禰로 비정하는 설(門脇禎二, 1977 《蘇我蝦夷・入鹿》(吉川弘文館) 등)은 현재도 거의 부정되고 있다.

## 〈표 1〉 왜국과 중국 남조와의 통교

- 413年 ○ …高句麗王高璉, 東晋에 入貢→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이 되다 [宋書高句麗傳]  
 倭國도 入貢한다고 한다 [《晉書》安帝紀,《太平御覽》卷981香部1麝條所引義熙起居注]
- 421年 ○ …倭讚, 宋에 入貢→除授 있음 [傳]
- 425年 ○ …倭王讚, 司馬曹達를 遣하여, 宋에 入貢 [傳]
- 430年正月…倭國王, 宋에 入貢 [紀]
- 438年 4月…倭王珍, 宋에 入貢. 自称‘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倭國王’→除正‘安東將軍倭國王’, 倭隋 등 13人의 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号의 除正을 요구하다 [傳]
- 443年 ○ …高句麗·百濟, 宋에 入貢 [紀]  
 倭王濟, 宋에 入貢→除正‘安東將軍倭國王’ [紀·傳]
- 451年10月…高句麗, 宋에 入貢 [紀]  
 ○ …倭王濟, 宋에 入貢→加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23人의 軍·郡를 除正 [傳]
- 462年 3月…高句麗, 北魏에 入貢 [紀]  
 倭王世子興, 宋에 入貢→除正‘安東將軍倭國王’ [紀·傳]
- 477年 2月·9月…高句麗, 北魏에 入貢 [紀]  
 11月…倭國, 宋에 入貢 [紀]
- 478年 5月…倭王武, 宋에 入貢하여, 上表. 自称‘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倭國王’, ‘竊自佞開府儀同三司, 其余咸佞授’→除正‘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倭王’ [紀·傳]  
 12月…高句麗, 宋에 入貢 [紀]
- 479年 ○ …加羅國王荷知, 南齊에 入貢→輔國將軍本國王이 되다 [傳]  
 南齊, 高句麗王樂浪公高璉의 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를 驃騎大將軍에 進号 [傳]  
 南齊, 倭王武를 鎮東大將軍에 進号 [傳]
- 502年 4月…梁, 高句麗王高雲를 車騎大將軍, 百濟王余大를 征東大將軍, 倭王武를 征東將軍에 進号 [紀]  
 ※ 출전을 주기한 것 이외에는 해당 중국 사서에서 紀는 本紀, 傳은 해당국의 傳을 말한다. 한반도 여러 나라의 입공 기사는 같은 해의 입공이 있는 것만을 참고하도록 게재했다.

## 〈표 2〉 백제왕 휘하의 왕·후와 부관

- 久爾辛王 5年(景平2=424) [《宋書》百濟傳]  
 長史 張威
- 毗有王 24年(元嘉27=450) [《宋書》百濟傳]  
 臺使 馮野夫→西河太守
- 蓋鹵王 4年(大明2=458) [《宋書》百濟傳]  
 行冠軍將軍右賢王 余紀→冠軍將軍  
 行征虜將軍左賢王 余昆→征虜將軍  
 行征虜將軍 余暈→征虜將軍  
 行輔國將軍 余都→輔國將軍

行輔國將軍 余父→輔國將軍

行龍驤將軍 沐衿→龍驤將軍

行龍驤將軍 余爵→龍驤將軍

行寧朔將軍 余流→寧朔將軍

行寧朔將軍 糜貴→寧朔將軍

行建武將軍 于西→建武將軍

行建武將軍 余婁→建武將軍

蓋鹵王 18年(延興2=472) [《魏書》百濟傳]

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 余禮

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 張茂

東城王 8年(永明8=490) [《南齊書》百濟傳]

寧朔將軍面中王 姐瑾 [→] 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冠軍將軍都將軍

建威將軍八中侯 余古 [→] 行寧朔將軍阿錯王→寧朔將軍

建歷將軍 余歷 [→] 行龍驤將軍邁盧王→龍驤將軍

廣武將軍 余固 [→] 行建威將軍弗斯侯→建威將軍

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 高達→建威將軍廣陽太守

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 楊茂→建威將軍朝鮮太守

行宣威將軍兼參軍 會邁→宣威將軍

東城王 17年(建武2=495) [《南齊書》百濟傳]

行征虜將軍邁羅王 沙法名→征虜將軍

行安國將軍辟中王 贊首流→安國將軍

行武威將軍弗中侯 解禮昆→武威將軍

行廣威將軍面中侯 木干那→廣威將軍

行龍驤將軍樂浪太守兼長史 慕遺→龍驤將軍

行建武將軍城陽太守兼司馬 王茂→建威將軍

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守 張塞→振武將軍

行揚武將軍 陳明→揚武將軍

※ [→] ·‘行’은 假授이며 →는 계수를 가리킨다.

### 〈표 3〉 송의 장군호 관품표

第一品 大將軍 / 諸位從公

第二品 特進 / 驃騎將軍 / 車騎將軍 / 衛將軍 / 諸大將軍 / 諸持節都督

第三品 侍中 / 散騎常侍 / 四征將軍 / 四鎮將軍 / 中軍將軍 / 鎮軍將軍 / 撫軍將軍 / 四安將軍 / 四平將軍 / 左·右將軍 / 前·後將軍 / 征虜將軍 / 冠軍將軍 / 輔國將軍 / 龍驤將軍 / 光祿大夫 / 領護軍 / 縣侯

第四品 二衛將軍 / 驍騎將軍 / 遊擊將軍 / 四軍將軍 / 左·右中郎將 / 五校尉 / 寧湖將軍 / 五威將軍 / 五武將軍 / 四中郎將 / 刺史領兵者 / 戎壘校尉 / 鄉侯

第五品 散騎侍郎 / 謁者僕射 / 三將 / 積射將軍 / 疆弩將軍 / 鷹揚將軍 / 折衝將軍 / 輕車將軍 / 揚烈將軍 / 威遠將軍 / 寧遠將軍 / 虎威將軍 / 材官將軍 / 伏波將軍 / 凌江將軍 / 刺史不領兵者 / 郡國太守內史相 / 亭侯

## 〈표 4〉 한국의 전방후원분

- 七岩里古墳〔B〕…全羅北道 高敞郡 孔音面 七岩里 淵洞村  
 東側 全長 55m, 後円部直徑 38.4m, 高 10.3m, 前方部 30.8m, 高 5.7m. 段築(?)
- 月溪古墳(月桂古墳)〔B〕…靈光郡 法聖面 月山里 月溪村  
 全長 41.2m, 後円部直徑 22.5m, 高 6m, 前方部 長 18.7m, 幅 15.5m, 高 2.5m. 百濟系 筒形  
 器台 出土.
- 月城山古墳(古城里古墳)…潭陽郡 水北面 古城里 月城山  
 橢圓形으로 長軸은 24m. 前方後円墳(?)
- 月田古墳〔?〕…潭陽郡 古西面 聲月里 月田  
 全長 45m, 高 2.3m. 陶質土器 出土.
- 月桂洞1号墳〔B〕…光州廣域市 光山區 月桂洞 748  
 全長 45.3m, 後円部直徑 25.8m, 高 6.1m, 前方部幅 31.4m, 高 5.2m. 段築(?) 周壕 있음(円筒  
 形土器, 石見型·盾形·埴輪形의 木製品, 笠形木製品 出土). 石室로부터 百濟系土器 出土.
- 月桂洞2号墳〔B〕…光州廣域市 光山區 月桂洞 748  
 全長 34.5m, 後円部直徑 20.5m, 高 3.5m, 前方部 幅 약 22m, 高 약 3m. 段築 있나? 周壕 있음.
- 長鼓山古墳〔A〕…咸平郡 咸平邑 長年里 長鼓山  
 全長 약 70m, 後円部直徑 36~39m, 高 3.5~8m, 前方部幅 약 37m, 高 약 7m.
- 新德古墳(新德1号墳)〔A〕…咸平郡 月也面 禮德里 新德山 176~178  
 全長 51m, 後円部直徑 30m, 高 5m, 前方部幅 25m, 高 4m. 葺石 있음. 墳丘周圍에 溝가 둘러  
 씌(石室羨道部前端에서는 끊김). 裝飾木棺·裝身具는 百濟産(?) 大加耶系의 伏鉢付冑 出土.
- 明花洞古墳〔B〕…光州廣域市 光山區 明花洞 170-5  
 全長 33m(後円部·前方部 모두 크게 변형되어, 本來의 墳丘 형태 없음). 段築 있음. 周壕 있음(円  
 筒形土器 出土). 石室로부터 大加耶樣式의 蓋, 百濟系筒形器台 出土.
- 杓山1号墳(馬山里1号墳)〔B〕…咸平郡 鶴橋面 馬山里 杓山  
 全長 46m, 後円部直徑 25m, 前方部幅 26m.
- 자라봉 古墳〔?〕…靈岩郡 始終面 泰潤里 立石  
 長軸 35.6m, 後円部長軸 23.3m, 短軸 20.2m, 高 5m, 前方部 長 12.2m, 幅 7.4m, 高 2.25m.  
 竪穴式石室.
- 말무덤 古墳(龍頭里古墳)〔A〕…海南郡 三山面 昌里 龍頭 578  
 全長 40.5m, 後円部直徑 23m, 高 5.1m, 前方部 長 19m, 幅 16.7m, 高 3.5m.
- 海南 長鼓峰古墳(海南 長鼓山古墳, 新芳古墳)〔A〕…海南郡 北日面 方山里  
 全長 약 76m, 後円部直徑 43m, 高 10m, 前方部 幅 37m, 高 9m.
- ※ A·B는 【辻秀人 2007】에 의한 구분. A…後円部 墳頂으로 비교적 넓고 뚜렷한 평탄면을 갖는다.  
 공통의 설계 등 세부까지 일치하는 양상은 없다. 고분 축조에 있어서 축조 주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정보나 정치적인 관계 하에서 필요에 따라 고분 축조에 관한 기술을 수용하면서 墳丘나 매  
 장시설을 만들었다. B…後円部 墳頂에 뚜렷한 평탄면을 갖지 않는다. 墳丘 구조의 공통성이 뚜렷  
 하고 또한 유사성이 높다. 지역 속에 전방후원분의 생긴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

〈표 5〉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5세기의 왜인 침입기사

- 431年(訥祗麻立干15) 4月…倭兵이 東邊을 侵하고, 明活城을 둘러싸다  
440年(訥祗麻立干24) …倭人이 南邊을 侵하고, 生口를 掠取  
6월에 또 東邊을 侵하다  
444年(訥祗麻立干28) 4月…倭兵이 金城을 둘러싸기를 10日  
459年(慈悲麻立干2) 4月…倭人, 兵船百餘艘에서 東邊을 습격하여 月城을 둘러싸다  
462年(慈悲麻立干5) 5月…倭人이 活開城을 破하고, 1000人을 포로로 잡아가다  
463年(慈悲麻立干6) 2月…倭人이 敵良城을 侵했지만 克하지 못하고 물러가다  
476年(慈悲麻立干19) 6月…倭人이 東邊을 侵하다  
477年(慈悲麻立干20) 5月…倭人, 兵을 擧하여, 五道로 내습하다  
428年(炤知麻立干4) 5月…倭人, 邊을 侵하다  
486年(炤知麻立干8) 4月…倭人, 邊을 犯하다  
479年(炤知麻立干19) 4月…倭人, 邊을 犯하다  
500年(炤知麻立干22) 4月…倭人, 長峯鎭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참고문헌】

- 東潮, 1995 <榮山江流域と慕韓> 《展望考古學》(考古學研究會)  
○東潮, 2001 <倭と榮山江流域-倭韓の前方後円墳をめぐって-> 《朝鮮學報》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新井隆一, 2008 <『古代九州の古墳文化と韓國の前方後円墳』關係論文(日本語文)目錄(稿)>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石井正敏, 2005 <5世紀の日韓關係-倭の五王と高句麗・百濟->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書》第1分科篇(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池田 溫, 2002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吉川弘文館)  
○井上秀雄, 1973 <古代日本のいわゆる南朝鮮經營>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寧樂社)  
○井上直樹, 2007 <集安出土文字資料からみた高句麗の支配体制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學報》203  
○內田 清,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86  
○大橋信弥, 1989 <百濟における木笏滿致專制体制の成立> 《立命館文學》514→1996, 《日本古代の王權と氏族》(吉川弘文館)  
○岡内三眞編, 1996 《韓國の前方後円形古墳》(雄山閣出版)  
○河承哲, 2006 <五~六世紀における加耶地域の倭系遺物と遺構> 《海を渡った日本文化》(鈺脈社)  
○龜田修一, 1997 <考古學から見た吉備の渡來人> 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川崎 晃, 2001 <倭王權と五世紀の東アジア>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吉川弘文館)  
○川本芳昭, 1992 <倭國の413年東晉遣使> 《新版古代の日本》2(角川書店)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檢討> 《東北學院大學論集》29  
○熊谷公男, 2007 <五世紀の倭・百濟關係と羅濟同盟> 東北學院大學 《アジア文化史研究》7

- 高寛敏, 1997 <倭の五王と朝鮮> 《古代朝鮮諸國と倭國》(雄山閣出版)
- 河内春人, 2003 <倭王武の上表文と文字表記> 《國史學》 181
- 近藤浩一, 2008 a <榮山江流域慕韓說の研究史的検討>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近藤浩一, 2008 b <韓國榮山江流域 古代史關係文獻目錄(稿)>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坂元義種, 1978 a <五世紀の日本と朝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 b <五世紀における倭國王の称号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 c <五世紀の日本と朝鮮の國際環境－中國南朝と河南王・河西王・宕昌王・武都王－>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の朝鮮》(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 d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 e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坂元義種, 1978 f <中國史書における百濟王關係記事の検討> 《百濟史の研究》(塙書房)
- 坂元義種, 1981 《倭の五王》(教育社)
- 朱甫暎, 2000 <百濟の榮山江流域支配方式と前方後円墳被葬者の性格> 《韓國の前方後円墳》(忠南大學校出版部)
- 徐賢珠, 2008 <榮山江流域における古墳文化の変遷と百濟> 《百濟と倭國》(高志書院)
- 鈴木英夫, 1996 a <倭王武の對宋外交の一側面－昇明元年の遣使の倭王をめぐる－>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 鈴木英夫, 1996 b <<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 鈴木英夫, 2008 <韓國の前方後円墳と倭の史的動向>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および倭問題> 《歴史學研究》 405
- 鈴木靖民, 1985 <倭の五王の外交と内政>林陸朗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續群書類從完成會)
- 武田幸男, 1989 <牟婁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 田中俊明, 2001 <韓國の前方後円形古墳の被葬者・造墓集團に對する私見>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 田中俊明, 2003 <倭の五王と朝鮮>姜徳相先生古稀・退職記念《日韓關係史論集》(新幹社)
-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山川出版社)
- 田中史生, 2005 <武の上表文> 《文字と古代日本》 第2卷(吉川弘文館)
- 朝鮮學會編, 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 辻秀人, 2007 <榮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と倭國周緣域の前方後円墳>東北學院大學《歴史と文化》 42
- 西谷正, 2001 <韓國の前方後円墳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 土生田純之, 1996 <朝鮮半島の前方後円墳>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所《人文科學年報》26→2006 《古墳時代の政治と社會》(吉川弘文館)
- 土生田純之, 2008 <前方後円墳をめぐる韓と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古川政司, 1981 <五世紀後半の百濟政權と倭> 《立命館文學》 433・434
- 朴淳發, 2001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円墳の意義> 《朝鮮學報》 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 朴淳發, 2003 a 《百濟國家形成過程の研究》(六一書房)
- 朴淳發, 2003 b <百濟の南遷と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大巧社)
- 朴天秀, 2007 a 《加耶と倭 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學》(講談社)
- 朴天秀, 2007 b <5-6世紀金工品の系譜と移入の背景> 《日韓交流展 王者の装い》(宮崎縣立西都原考古博物館)
- 朴天秀, 2008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円墳からみた古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北郷泰道他, 2006 《海を渡った日本文化》(鈺脈社)
- 前之園亮一, 2001 <倭の五王の通宋の開始と終焉について> 《古代國家の政治と外交》(吉川弘文館)
-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吉川弘文館)→2002(天山舎)
- 森 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吉川弘文館)
- 柳澤一男, 2008 <韓國の前方後円墳と九州>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 山尾幸久, 2001 <五・六世紀の日朝關係－韓國の前方後円墳の一解釋－> 《朝鮮學報》179→2002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關係》(同成社)
- 吉井秀夫, 2002 <朝鮮の墳墓と日本の古墳文化> 《日本の時代史》2(吉川弘文館)
- 吉井秀夫, 2005 <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古代國家形成過程の諸問題> 《國家形成の比較研究》(學生社)
- 吉井秀夫, 2006 <考古學から見る百濟の國家形成とアンデンティティ> 《東アジア古代國家論》(すいれん舎)
- 李永植, 1993 <五世紀の倭王の称号の解釋をめぐる一視角>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吉川弘文館)
- 李暎澈, 2006 <前方後円形古墳と墳周土器> 《海を渡った日本文化》(鈺脈社)
- 李根雨, 1997 <「百濟新撰」と昆支> 《古代の日本と渡來の文化》(學生社)
- 李文基, 2003 <百濟内朝制度試論> 《學習院史學》41
- 李鎔賢, 2008 <韓國古代における全羅道と百濟,加耶,倭>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勉誠出版)
- 林永珍, 1997 <湖南地域石室墳과 百濟의 關係> 《湖南考古學의 諸問題》(第21回韓國考古學會發表要旨)(韓國考古學會)
- 林永珍, 2000 <榮山江流域의 石室封土墳의 性格> 《榮山江流域古代社會の新照明》(歴史文化學會, 全羅南道)
- 林永珍, 2003 <百濟の成長と馬韓勢力,そして倭> 《檢証古代日本と百濟》(大巧社)

## 제3장 6세기의 일한관계

### 제1절 가야 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분쟁과 왜국

6세기가 되자 백제에서는 501년에 무령왕이 즉위하고(재위 501~523년), 그의 23년 동안에 이르는 치세는 웅진시대의 백제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왜국에서도 5세기 이래로 왜 5왕의 계보를 이을 왕통에 남자가 끊어져, 그 출신에는 왕족설과 지방호족설이 있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北近江·越을 본거지로 하여 近江·尾張이나 河内 등의 호족과의 혼인 관계를 세력 기반으로 하여, ‘響田天皇(應神) 5세손’이라 칭하는 男大迹王(繼體天皇)이 507년에 왜 왕권의 대왕으로 취임하고 있다(재위 507~531년). 繼體도 25년의 치세를 누렸고 새로운 왜국의 안정, 방향 결정에 진력하고 있어서, 왜국·백제 모두 새로운 세기를 새로운 형태로 맞이한다(주1).

475년 고구려에 의한 한성 함락 후에, 웅진 그리고 538년에는 부여의 천도와, 남천하여 국가의 유지와 남방·동방으로의 새 영토 확대를 계획하는 백제는 마찬가지로 북방을 고구려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서방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라와의 사이에 가야 제국의 쟁탈전을 전개하여 왜국은 기본적으로 백제 지지의 입장에서 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562년의 대가야의 멸망으로 귀착되는 신라에 의한 가야 제국 병탄까지의 과정과 왜국·한반도 제국의 관계,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둘러싼 논의 등을 정리하여 6세기의 일한관계를 생각해가는 실마리로 하고자 한다.

#### 1. 백제의 己汶·帶沙의 침공과 왜국

가야 제국을 둘러싼 분쟁의 전반 단계, 백제와 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 개시와 양국이 안라를 사이에 두고 직접 대치하기에 이르는 530년 무렵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된다.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은 《삼국사기》에는 사료가 없고, 백제계 사료에 의거한 《일본서기》에 기술되어 있다. 오늘날 이 전반 단계가 <표 1>과 같이 이해되게 된 것은 복잡하게 뒤얽힌 《일본서기》의 관계 기사 해독이 진전되었음이 크다. 그 가운데에서도 伴跋=대가야(고령)설이 확립되고 내륙부인 대구로 비정되

있던 卓淳을 금관국과 안라의 중간에 해당하는 연안부에 위치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것들을 기축으로 하여 대가야 연맹이나 안라 등 가야 제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시점에서 관계기사를 정확히 이해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커다란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원동력이었다 할 수 있다(주2).

아래와 같이 <표 1>을 보충하는 형태로 관계 사료를 언급하면서 백제·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과 왜국의 관여 상황을 검토해 가고자 하지만, 우선은 소위 ‘任那四縣 할양’이 일련의 분쟁과 관련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3-01 《日本書紀》 繼體 3年(509) 2月條

遣使于百濟<百濟本記云, 久羅麻致支彌從日本來, 未詳>, 括出在任那日本縣邑百濟百姓淨逃絕貫三四世者並遷百濟附貫也.

3-02 《日本書紀》 繼體 6年(512) 4月丙寅條

遣穗積臣押山使於百濟. 仍賜筑紫國馬卅匹.

3-03 《日本書紀》 繼體 6年 12月條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合爲同國, 固存之策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具得是言, 同謀而奏. 迺以物部大連麤鹿火充宣勅使. 物部大連方欲發向難波館宣勅於百濟客. (中略)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與哆唎國守穗積臣押山受百濟之賂矣.

3-04 《日本書紀》 欽明 元年(540) 9月 己卯條

幸難波祝津宮. 大伴大連金村·許勢臣稻持·物部大連尾與等從焉. 天皇問諸臣曰, 幾許軍卒伐得新羅. 物部大連尾與等奏曰, 少許軍卒不可易征. 曩者男大迹天皇六年, 百濟遣使表請任那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大伴大連金村輒依表請許賜所求. 由是新羅怨曠積年, 不可輕爾而伐. 於是, 大伴大連金村居住吉宅, 稱疾不朝. 天皇遣青海夫人勾子, 慰問慙慙. 大連怖謝曰, 臣所疾者非餘事也. 今諸臣等謂臣減任那. 故恐怖不朝耳. 乃以鞍馬贈使厚相資敬. 青海夫人依實顯奏. 詔曰, 久竭忠誠, 莫恤衆口. 遂不爲罪, 優寵彌深.

본 견에서는 ‘哆唎國守’ 穗積臣押山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는 ‘四縣’의 현상 분석을 제시하고 백제에 대한 부여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 (사료 03). 이의 押山의 친백제 자세에 착목하여 ‘國守’를 관할 영역을 갖는 상주 지방관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러한 왜국의 영역이 해당지역에 존재했음을 의문시하며, 押山은 왜계 백제 관료이며 해당 지역도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金鉉球 1985 a, 李弘植 1936】. 또한 이 ‘四縣’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이를 전라남도 전역으로 비정하는 설【末松保和 1949】과 기문·대사에 접한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全榮來 1985】, 또한 최근의 영산강유역에 있어서의 전방후원분의 존재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으로 비정하는 설(上哆唎=靈巖, 下哆唎=光州, 娑陀=咸平·茂長, 牟婁=靈光·務安)도 제시되고 있다【田中俊明 2009】. 어쨌든 ‘四縣 割讓’으로 인하여 백제는 가야 제국과 영토를 접하게 되고, 이것이 다음의 목표로서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의 단서가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사료 01은 《일본서기》 속에서는 사료 03의 백제에 의한 ‘四縣’ 요구의 전제가 되는 기사로서 게재되고 있다. ‘任那日本縣邑’의 정확한 소재지는 명확치 않고, 물론 왜국이 가야 지역을 영토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실은 없으므로 그 점은 그대로 두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백제인이 가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3·4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주는 상당히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주3). 이러한 뒤섞인 거주 형태가 백제에 주민 보호 등을 구실로 가야 지역에 진출할 실마리를 주게 되고, 여기에 백제 및 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 쟁탈전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국의 지방관인 ‘國司’의 훈은 구니노미코토모치라고 하여 옛날에는 ‘國宰’라고 표기되었다. 이 ‘宰’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敏達 6년(577) 5월 丁丑條 分註에, “王人奉命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釋日本紀》 권11·述義7에 “令持天皇御言之人也. 故稱美古止毛知”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정 범위의 관할 영역을 갖는 國宰 제도가 성립되는 것은 국내 통치의 경우에서도 7세기 후반의 天武朝 무렵이며 그 이전에는 때때로 임무를 갖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미코토모치의 형태를 가졌었다(주4). 따라서 押山の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백제에 파견된 왜국의 사신의 행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백제가 요구하는 남부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에 묵인할 것임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四縣割讓’이 약 30년 후의 사료04에서 다시 문제가 되어 가야 제국의 혼란의 발단이 되었다고 비난되는 것은,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5세기대에는 전라남도의 영산강 유역이나 가야 제국과도 관련을 갖고 이러한 작은 세력의 자립을 지지했던 왜국이 여기에 이르러 백제의 영토 확대를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방책으로 돌아선 점에 있다. 이는 백제의 가야 제국 침공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져, 왜국의 외교정책이나 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되는 결단으로 이어졌다【熊谷公男 2005】.

다음으로 백제의 기문·대사에 대한 침공과 그 경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서기》 繼體 23년(529) 3월조·是月條에 그려진 多沙津을 둘러싼 문제에 등장하는 ‘下哆唎國守’ 穗積臣 押山이나 物部伊勢連父根은 513~515년의 기문·대사 문제(사료 05~07, 《일본서기》 繼體 7년(513) 11월 是月條, 同 9년 2월 丁丑條·是月條, 같은 해 4월조, 同 10년

5월조)에서 활약하는 穗積臣 押山과 物部至至連은 동일하며 이들은 동일한 사건을 서술한 것이므로 繼體 23년 3월 是月條는 그 후의 전말까지 포함하여 일괄해서 그 해에 게재한 기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田中俊明 1992】, 기문·대사 문제 자체는 513~515년경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521년 백제가 중국 남조의 양에 견사한 것과 관련되는 《梁職貢圖》 백제조에는 백제에 부용하고 있는 ‘旁小國’ 안에 ‘上己文’이 쓰여 있다. ‘旁小國’에는 실제로는 부용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叛波 = 伴跋國 = 대가야 등의 가야 제국의 나라명이나 斯羅 = 신라도 보이고 있어, 이는 백제의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지만, 522년에 가야(대가야)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있어서(《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9년 3월조), 이는 백제에 대항하는 활로를 찾은 방책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문과 대사에 관하여는 521년 무렵에는 백제의 세력 하에 있었던 추측된다. 또한 529년에는 ‘가라’ = 대가야와 신라의 대립이 현재화되어 (《일본서기》 繼體 23년 3월 是月條), 결혼 동맹이 해소된다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주5).

3-05 《日本書紀》 繼體 7年(513) 6月條

百濟遣姐彌文貴將軍·洲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3-06 《日本書紀》 繼體 7年 11月 乙卯條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貢巴委佐, 伴跋既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已汶·帶沙賜百濟國.

3-07 《日本書紀》 繼體 8年(514) 3月條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緬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駭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그런데 513년에 기문·대사 문제가 발생하자 11월에 왜국에서 관계국을 소집한 회의가 개최되었다(사료 06). 한반도 제국으로부터는 백제, 신라, 안라, 伴跋가 참가하고, 왜국은 물론 백제의 기문·대사 영유를 인정하려고 한다. 伴跋國 = 대가야는 진귀한 보물을 왜국에 헌상하고 대가야 연맹에 의한 기문·대사의 유지를 요청했지만 왜국은 그것을 고려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일본서기》 繼體 7년11월 是月條). 그래서 514년이 되자 伴跋國은 무력에 의한 저항으로 나온다. 사료 07은 백제계 사료에 의거한 기사로 생각되어, ‘以備日本’이라는 것은 본건의 흐름으로 보아 백제의 침공에 대처한 것으로 정정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라에 대한 대처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신라도 이 무렵부터 가야 제국에 대

한 공세를 가했음을 보여서 왜국에서의 회의에 신라가 참가한 것은 동방으로부터 가야 제국으로 침공하는 신라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백제의 침공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의 전말로서는 왜국은 사신과 舟師 500명을 보내어 백제를 도왔지만, 반파국의 군사력도 막강하여 전선은 교착되었고, 결국은 백제가 왜국의 사신 억류구출을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출병하여 기문·대사 영유문제에 결말을 짓고, 대가야 연맹은 기문·대사를 잃게 된다.(《일본서기》 繼體 9년(515) 2월 丁丑條·是月條, 동년 4월조, 동 10년 5월조, 동 23년 3월조·是月條).

왜국에서의 회의 출석국 중에 안라는 남부 가야 제국의 중심국 중 하나이므로 백제·신라의 침공이 진행되면 언젠가 그 존재가 초점이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5세기 대에 왜국으로 도래한 유력한 도래계 씨족 東漢씨는 안라 출신으로 생각되어 안라는 왜국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나라다. 伴跋=대가야에 관해서도 제2장 제2절 제4항에서 언급한 대로 5세기 후반 경부터 왜국의 조정에서 파견된 사람, 또는 왜국의 여러 호족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알아 챌 수 있음으로 인해 왜국과 갖가지 연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왜국에는 몇몇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며 반파도 왜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어서 회의의 장으로서 왜국의 존재가 의미를 가졌던 것도 이상의 한반도 여러 나라와 왜국의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왜국의 조정은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원적 외교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가 된다. 그 이유로서 본 건에 대해 결말이 지어진 516년 9월 백제 사신이 오경박사 고안무를 파견하고 단양이와 교체시킨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일본서기》 繼體 10년 9월조). 오경박사 단양이의 着任은 513년으로(사료 05), 이것도 ‘任那四縣’ 영유 승인에 대한 백제의 사의를 표시한 것이었다. 즉 왜국은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승인하기도 하고 직접적 군사 원조를 하기도 한 대가로서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이나 인재 등의 문화적 이익을 얻고, 국제 지배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주6). 이러한 공여는 중국 남조와 정기적 통교가 없는 가야 제국에게는 무리이며 여기서 백제 지지의 기본적 정책을 취하는 왜국의 입장의 이유가 존재했다. 또한 제2장 제2절 제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는 왜국과의 통교에 왜계 백제관료를 기용하고 있어서 (《일본서기》 繼體 10년(515) 9월 무인조가 처음), 이것도 왜국의 백제에 대한 신뢰감 양성에 유효했다 【李弘植 1936, 金鉉球 1985a, 笠井倭人 1964】 .

## 2. 금관국의 흥망과 왜국

그런데 513년의 왜국에서의 회의에는 남부 가야 제국의 또 한 나라인 유력국 金官國(大駕洛, 意富加羅, 南加羅)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522년의 대가야와 신라의 혼인 동맹 성립 이후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1년(524) 9월조에는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라고 있어 신라왕과 대가야의 국왕이 회동하고 있다. 이 ‘南境拓地’는 동방의 대가야 연맹과의 제휴·관계 안정을 얻은 신라의 금관국에 대한 제1차 침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의 금관국은 동방으로부터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시도하는 신라의 표적이 되어 위험한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同 19년(532) 조에 “金官國主金仇亥與王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이라고 되어 있는 금관국의 멸망, 신라에 의한 병탄으로 귀결되는 커다란 획기가 되었다(《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도 참조).

그와 관련하여 옛 금관국의 왕족은 신라왕과 같은 金씨 성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경주에 거주하며 신라왕도의 전통적 거주·출생 구분에서 유래하는 六部, 梁部(喙部), 沙梁部(沙喙部), 漸梁部(牟梁部), 本彼部, 漢祗部(漢岐部), 翳比部(翳部) 중에서 왕을 배출하는 喙部和 함께 이중 왕권 체제하에서 부왕인 葛文왕을 배출하는 격식을 갖는 沙喙部に 편입되어 신라 귀족의 일원으로 영입된 사실이 알려져 있다(마운령 신라진흥왕순수비(568년), 《삼국사기》 권41~43 김유신전). 喙己吞(喙國)이나 卓淳도 왕족이 우선 신라의 산하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여, 국론이 양분되었고 한 마음으로 신라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병탄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일본서기》 欽明 2년(541) 4월조, 동 5년(544) 3월조, 뒤에 실는 사료 12·16). 신라는 옛 왕족을 대우함으로써 그 옛 지역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림과 함께 오히려 신라와 한 마음이 되어 신라를 위해 일하는 환경을 준비한다는 정책을 취하여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08 《日本書紀》 繼體 23年(529) 3月 是月條

遣近江毛野臣使于安羅, 勅勸新羅更建南加羅·喙己吞. 百濟遣將軍君尹貴·麻那甲背·麻鹵等往赴安羅式聽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 奚奈麻禮等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在於堂下. 凡數月, 再三謨謀乎堂上. 將軍君等恨在庭焉.

### 3-09 《日本書紀》 繼體 23年 4月 是月

遣使送已能末多干岐并詔在任那近江毛野臣,推問所奏和解相疑. 於是,毛野臣次于熊川<一本云,次于任那久斯牟羅>,召集新羅·百濟二國之王. 新羅王佐利遲遣久遲布禮<一本云,久禮爾師知于奈師磨里>,百濟遣恩率彌騰利,赴集毛野臣所而二王不自來參. 毛野臣大怒責問二國使云,以小事大天之道也<一本云,大木端者以大木續之,小木端以小木續之>,何故二國之王不躬來集受天皇勅輕遣使乎. 今縱汝王自來聞勅,吾不肯勅,必追逐退. 久遲布禮·恩率彌騰利,心懷怖畏,各歸召王. 由是,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新羅以大臣爲上臣. 一本云,伊叱夫禮知奈末>,率衆三千來請聽勅. 毛野臣遙見兵仗圍續,衆數千人,自熊川入任那己利城. 伊叱夫禮智干岐次于多多羅原,不敢歸,待三月,頻請聞勅,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於聚落乞食,相過毛野臣僱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待乞者過捲手遙擊乞者. 見云,謹待三月,佇聞勅旨,尙不肯宣,惱聽勅使. 乃知欺誑誅戮上臣矣. 乃以所見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是爲四村. 一本云,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盡將人物入其本國. 或曰,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毛野臣之過也.

### 3-10 《日本書紀》 繼體24年(530) 9月條

任那使奏云,毛野臣遂於久斯牟羅起造舍宅,淹留二歲<一本云,三歲者,連去來年數也>,懶聽政焉. 爰以日本人與任那人,頻以兒息諍訟難決,元無能判. 毛野臣樂置誓湯曰,實者不爛,虛者必爛. 是以投湯爛死者衆. 又殺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大日本人娶蕃女所生爲韓子也>,恒惱人民終無和解. 於是,天皇聞其行狀遣人徵入,而不肯來. 願以河內母樹馬飼首御狩,奉詣於京而奏曰,臣未成勅旨還入京鄉,勞往虛歸,慚惡安措. 伏願,陛下待成國命,入朝謝罪. 奉使之後,更自謨曰,其調吉士亦是皇華之使. 若先吾取歸,依實奏聞,吾之罪過必應重矣. 乃遣調吉士,率衆守伊斯枳牟羅城. 於是,阿利斯等知其細碎爲事不務所期,頻勸歸朝,尙不聽還. 由是悉知行迹,心生齟齬. 乃遣久禮斯己母,使于新羅請兵,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迎討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傷死者半. 百濟則捉奴須久利,桎械枷鎖而共新羅圍城,責罵阿利斯等曰,可出毛野臣. 毛野臣嬰城自固,勢不可擒. 於是,二國圖度便地淹留弦晦,築城而還,號曰久禮牟羅城. 還時觸路拔騰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五城.

이와 같은 신라에 의한 제1차 금관국 침공의 소식을 접하고 527년 6월, 왜국은 近江毛野를 도해시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 近江毛野의 떠날 시기에 즈음하여 筑紫君磐井의 난이 일어나(《일본서기》 繼體 21년(527) 6월 甲午條), 毛野는 도해의 연기를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 磐井은 신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磐井의 난과 毛野의 파견이나 신라와의 관계는 《일본서기》의 조작에 의한 것이어서 원래는 관계가 없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坂本太郎 1961, 池内宏 1970, 三品彰英 2002, 熊谷公男 2008】. 그러나 繼體 21년조나 사료 08에는 신라가 南加羅(금관국)·喙己呑에게 침공한 것이 毛野 파견으로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신라에는 毛野의 도해를 방해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國造本紀》 伊吉鳴造條에는 “磐余玉穗朝, 伐石井從者新羅海辺人天津水凝後, 上毛布直造”라고 되어 있어서, 磐井과 신라의 관계를 시사하는 사료도 존재한다. 또한 6세기 중엽 무렵까지는 왜국의 반도에 대한 과병

은 ‘竹斯鳴上諸軍士’, 즉 九州의 여러 호족의 병력에 의존하고 있어서【森公章 2008】, 그 부담에 대한 불만도 고려해야 하며, 역시 毛野의 도해는 磐井의 난 발발 중 하나의 호기였던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繼體 21년 조에서 毛野는 군사 6만명을 인솔했다고 하지만, 磐井의 난에는 대처하지 못하고(조정에서 파견된 物部麤鹿火가 진압), 도해 후에도 3000명의 신라 병사의 도래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사료 09) 등으로 생각해 볼 때, 대규모 병력의 도해는 의문이며【李永植 1989, 森公章 2006, 熊谷公男 2008】, 毛野는 외교 협상을 임무로 하는 왜국의 사신으로서 파견된 것으로 해석된다. 毛野의 파견처는 안라이며 신라에게 南加羅(금관국)·曠己吞의 재건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 협상은 안라에서 이루어졌고 백제·신라는 사신을 파견했지만, 안라의 대응은 국왕과 국내의 대인이 高堂 위에 올라가 왜국의 사신하고만 협의를 거듭하는 식이어서(사료 21), 가야 제국에 대하여 침공을 꾀하는 백제·신라의 사신은 무시된 모양새가 되었다. 안라에게는 백제·신라 모두 침략자로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백제에 관해서는 왜국이 이 구상에 가담하는 것은(주7)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毛野는 웅천(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으로 숙소를 옮기고 신라·백제의 왕을 소집하여 사태의 해결을 도모하려 한다(사료 09). 그러나 신라·백제는 사태 해결의 전망이 없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인지 사신을 파견했을 뿐이어서 毛野는 다시 국왕의 소환을 요청했다. 신라는 이번에는 上臣 伊叱夫禮智干岐(異斯夫=당시 신라의 군사적 지도자)가 군사 삼천을 이끌고 만나러 오자, 毛野는 그 군세에 두려움을 느껴 웅천으로부터 任那 己叱己利城(사료 08의 久斯牟羅)에 틀어박히고 만다. 신라는 多多羅原에 주둔하고 金官·背伐·安多·委陀(한 책에서는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의 4촌 즉 금관국의 주요 읍을 초략했다고 하니 결국은 금관국은 신라의 제2차 침공을 받고 게다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외교적 실책을 범한 近江毛野는 귀국을 못하게 되었고, 다음 해인 530년 9월이 되었는데도 久斯牟羅에 머물러 있었다(사료 10)(주8). 그래서 ‘阿利斯等’(안라왕)은 사신을 신라·백제에 보내어 병사를 청하고 이 두 나라의 힘을 빌려서 毛野를 배제하려고 계획했다. 毛野는 백제의 병사가 온다는 것을 듣고 ‘阿利斯等’을 동행하여 背評에서 농성했다. 백제는 안라가 파견한 사신을 잡아서 신라의 병사와 함께 성을 포위하고, ‘阿利斯等’을 질책하면서 毛野를 내어 놓으라고 말했다 한다. 결국 이것은 백제에 의한 안라에 대한 침공의 구실로 이용되고 말았으며, 백제는 久禮牟羅城을 구축하고 철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료 10에서 보이는 布那牟羅(《일본서기》 繼體 23년 3월 是月條에서도 보인다)·阿夫羅·久知波多枳는 대가야 방면의 성으로써 이는 신라에도 대가야의 5성 공략의 전과가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田中俊明 1992】. 近江毛野 파견의 총괄로써는 ‘擾亂加羅’(《일본서기》 繼體 24년 10월조)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안라를 사이에 두고 백제와 신라가 직접 대치하는 단계를 맞게 된다.

### 3. 안라를 둘러싼 백제·왜국의 방책

백제에서는 무령왕 다음으로 성명왕(聖王, 재위 523~554년)이 즉위하여, 538년에는 웅진에서 부여(사비)로 천도하고 부여시대로 들어갔다. 안라를 둘러싼 신라와의 대결이 초미의 문제가 되었을 때 성명왕은 안라·대가야 등의 가야 제국의 사람들을 백제로 소집시켜서 왜국과 함께 ‘임나 부흥’을 상담하는 방책을 꾀했다. 이 회의는 541년과 544년의 두 번에 걸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임나 부흥회의’ I·II라 칭한다. 그곳에 참가자는 <표 2>와 같으며 가야 제국과 함께 ‘임나일본부’로부터의 출석자도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나 부흥회의’의 내용이나 국제 정세의 추이를 검토함과 함께 ‘임나일본부’의 실태를 해명할 기본 정보 수집에도 유의하고 한다.

#### 3-11 《日本書紀》 雄略 8年(464) 2月條

遣身狹村主青·檜隈民使博德, 使於吳國. 自天皇即位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高麗王遣精兵士一百人, 守新羅. 有頃高麗軍士一人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毘>而顧謂之曰, 汝國爲吾國所破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土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國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惟有遣高麗一人, 乘間得脫, 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即發軍兵, 屯築足流城<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舞興樂. 於是, 新羅王夜聞高麗軍四面歌舞, 知賊盡入新羅地, 乃使人於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國. 當此之時, 若綴旒, 然國之危殆過於累卵, 命之脩短大所不計. 伏請救於日本府行軍元帥等. 由是任那王勸膳臣斑鳩<斑鳩, 此云伊柯屢餓>·吉備臣小梨·難波吉士赤日子, 往救新羅. 膳臣等未至營止. 高麗諸將未與膳臣等相戰, 皆怖. 膳臣等乃自力勞軍, 令軍中促爲攻具急進攻之, 與高麗相守十餘日, 乃夜鑿險爲地道, 悉過輜車設奇兵. 會明高麗謂, 膳臣等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二國之怨自此而生<言二國者, 高麗·新羅也>. 膳臣等謂新羅曰, 汝以至弱當強, 官軍不救, 必爲所乘, 將成人地殆於此役. 自今以後, 豈背天朝也.

#### 3-12 《日本書紀》 欽明 2年(541) 4月條

安羅次旱岐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俱聽詔書. 百濟

聖明王謂任那早岐等言，日本天皇所詔者，全以復建任那。今用何策起建任那。蓋各盡忠奉展聖懷。任那早岐等對曰，前再三廻與新羅議而無答報所圖之旨，更告新羅尚無所報，今宜俱遣使往奏天皇。夫建任那者，爰在大王之意，祇承教旨，誰敢間言。然任那境接新羅，恐致卓淳等禍<等謂喙已吞·加羅。言卓淳等國有敗亡之禍>。聖明王曰，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安羅·加羅·卓淳早岐等，初遣使相通，厚結親好，以爲子弟，冀可恒隆。而今被誑新羅使天皇忿怒而任那憤恨，寡人之過也。我深懲悔而遣下部中佐平麻鹵·城方甲背味奴等赴加羅會干任那日本府相盟。以後繫念，相續圖建任那，且夕無忘。今天皇詔稱，速建任那。由是欲共爾曹謀計，樹立任那國，宜善圖之。又於任那境，徵召新羅，問聽與不，乃俱遣使奏聞天皇，恭承示教。儻如使人未還之際，新羅候隙侵逼任那，我當往救，不足爲憂。然善守備，謹警無忘。別汝所善，恐致卓淳等禍，非新羅自強故所能爲也。其喙已吞，居加羅與新羅境際，而被連年攻取，任那無能救援，由是見亡。其南加羅，蕞爾狹小，不能卒備，不知所託，由是見亡。其卓淳上下携貳，主欲自附，內應新羅，由是見亡。因斯而觀三國之敗，良有以也。昔新羅請援於高麗，而攻擊任那與百濟，尚不剋之。新羅安獨滅任那乎。今寡人與汝戮力并心，翳賴天皇，任那必起。因贈物各有差。忻忻而還。

3-13 《日本書紀》 欽明 2年 7月條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遣前部奈率鼻利莫古·奈率宣文，中部奈率木弼味淳·紀臣奈率彌麻沙等<紀臣奈率者，蓋是紀臣娶韓婦所生，因留百濟爲奈率者也。未詳其父。他皆效此也>，使于安羅，召到新羅任那執事謀建任那。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通計新羅，深責罵之<百濟本記云，加不至貫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等，未詳也>。乃謂任那曰，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與故早岐等，始約和親，式爲兄弟。於是我以汝爲子弟，汝以我爲父兄，共事天皇，俱距強敵，安國全家至于今日。言念先祖與舊早岐，和親之詞，有如皎日。自茲以降，勤修隣好，遂敦與國，恩踰骨肉，善始有終，寡人之所恒願。未審何緣輕用浮辭，數歲之間，慨然失志。古人云，追悔無及，此之謂也。上達雲際，下及泉中，誓乎今，改咎乎昔，一無隱匿，發露所爲，請誠通靈，深自克責，亦所宜取。蓋聞，爲人後者，貴能負荷先軌，克昌堂構，以成勳業也。故今追崇先世和親之好，敬順天皇詔勅之詞。拔取新羅所折之國，南加羅·喙已吞等，還屬本貫，遷實任那，永作父兄，恒朝日本，此寡人之所食不甘味，寢不安席，悔往戒今之所勞想也。夫新羅甘言希誑，天下之所知也。汝等妄信既墮人權。方今任那境接新羅，宜常設備。豈能弛柝。爰恐陷羅誣欺網罟，喪國亡家，爲人繫虜。寡人念茲，勞想而不能自安矣。竊聞，任那與新羅運策席際，現蜂蛇怪，亦衆所知。且夫妖祥所以戒行，災異所以悟人，當是明天告戒，先靈之徵表者也。禍至追悔，滅後思興，孰云及矣。今汝遵余，聽天皇勅，可立任那，何患不成。若欲長存本土，永御舊民，其謨在茲。可不慎也。聖明王更謂任那日本府曰 天皇詔稱，任那若滅，汝則無資，任那若興，汝則有援。今宜興建任那，使如舊日，以爲汝助，撫養黎民。謹承詔勅悚懼填胸，誓効丹誠。冀隆任那，永事天皇，猶如往日。先慮未然，然後康樂。今日本府復能依詔，救助任那，是爲天皇所必哀讚，汝身所當賞祿。又日本卿等，久任任那之國，近接新羅之境。新羅情狀，亦是所知。毒害任那，謨防日本，其來尚矣，匪唯今年，而不敢動者。近羞百濟，遠恐天皇，誘事朝廷，僞和任那。如斯感激任那日本府者，以未禽任那之間僞示伏從之狀。願今候其間隙，詰其不備，一舉兵而取之。天皇詔勸立南加羅·喙已吞非但數十年，而新羅一不聽命，亦卿所知。且夫信敬天皇，爲立任那，豈若是乎。恐卿等輒信甘言，輕被謾語，滅任那國，奉辱天皇。卿其戒之，勿爲他欺。

3-14 《日本書紀》 欽明 4年(543) 11月 甲午條

遣津守連，詔百濟曰，在任那之下韓百濟郡令·城主，宜附日本府。并持詔書，宣曰，爾屢抗表，稱當建任那十餘年矣。表奏如此，尙未成之。且夫任那者爲爾國之棟梁，如折棟梁，誰成屋宇。朕念

在茲，爾須早建。汝若早建任那，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自當止退，豈足云乎。是日，聖明王聞宣勅已，歷問三佐平內頭及諸臣曰，詔勅如是，當復何如。三佐平等答曰，在下韓之我郡令·城主，不可出之。建國之事宜早聽聖勅。

3-15 《日本書紀》 欽明 5年(544) 2月條

百濟遣施德馬武·施德高分屋·施德斯那奴次酒等，使于任那，謂日本府與任那早岐等曰，我遣紀臣奈率彌麻沙·奈率已連·物部連奈率用歌多，朝謁天皇。彌麻沙等還自日本，以詔書宣曰，汝等宜共在彼日本府早建良圖副朕所望，爾其戒之，勿被他誑。又津守連從日本來〈百濟本記云，津守連已麻奴跪。而語訛不正，未詳〉，宣詔勅而問任那之政。故將欲共日本府·任那執事，議定任那之政，奉奏天皇。遣召三廻尙不來到，由是不得共論圖計任那之政，奉奏天皇矣。今欲請留津守連，別以疾使，具申情狀遣奏天皇，當以三月十日發遣使於日本。此使便到，天皇必須問汝。汝日本府卿·任那早岐等，各宜發使共我使人，往聽天皇所宣之詔。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河內直移那斯·麻都。而語訛未詳其正也〉，自昔迄今，唯聞汝惡。汝先祖等〈百濟本記云，汝先祖干陀甲背，加臘直岐甲背。亦云，那哥陀甲背，鷹哥岐彌。語訛未詳〉，俱懷奸偽，誘說爲哥可君〈百濟本記云，爲哥岐彌，名有非岐〉專信其言不憂國難，乖背吾心縱肆暴虐。由是見逐，職汝之由。汝等來住任那，恒行不善。任那日損，職汝之由。汝是雖微，譬猶小火燒焚山野，連延村邑。由汝行惡，當敗任那，遂使海西諸國官家，不得長奉天皇之闕。今遣奏天皇，乞移汝等，還其本處。汝亦往聞。又謂日本府卿·任那早岐等曰，夫建任那之國，不假天皇之威，誰能建也。故我思欲就天皇，請將士，而助任那之國。將士之糧我當須運。將士之數未限若干，運糧之處亦難自決。願居一處，俱論可不，擇從其善，將奏天皇。故頻遣召，汝猶不來，不得議也。日本府答曰，任那執事不赴召者，是由吾不遣，不得往之。吾遣奏天皇，還使宣曰，朕當以印哥臣〈語訛未詳〉，遣於新羅，以津守連，遣於百濟。汝待聞勅際，莫自勞性新羅·百濟也。宣勅如是。會聞印哥臣使於新羅，乃追遣問天皇所宣詔，曰，日本臣與任那執事，應就新羅，聽天皇勅，而不宣就百濟聽命也。後津守連遂來，過此，謂之曰，今余被遣於百濟者，將出在下韓之百濟郡令·城主。唯聞此說，不聞任那與日本府，會於百濟，聽天皇勅。故不往焉，非任那意。於是，任那早岐等曰，由使來召，便欲往參，日本府卿不肯發遣，故不往焉。大王爲建任那，觸情曉示，觀茲忻喜難可具申。

3-16 《日本書紀》 欽明 5年 3月條

百濟遣奈率阿毛得文·許勢奈率哥麻·物部奈率哥非等，上表曰，奈率彌麻沙·奈率已連等至臣蕃，奉詔書曰，爾等宜共在彼日本府同謀善計，早建任那。爾其戒之，勿被他誑。又津守連等至臣蕃，奉勅書，問建任那。恭承來勅，不敢停時。爲欲共謀，乃遣使召日本府〈百濟本記云，遣召烏胡跛臣，蓋是的臣也〉與任那，俱對言，新年既至，願過而往。久而不就，復遣使召，俱對言，祭時既至，願過而往。久而不就，復遣使召，而由遣微者，不得同計。夫任那之不赴召者，非其意焉。是阿賢移那斯·佐魯麻都〈二人名也，已見上文〉奸佞之所作也。夫任那者以安羅爲兄，唯從其意，安羅人者，以日本府爲天，唯從其意〈百濟本記云，以安羅爲父，以日本府爲本也〉。今的臣·吉備臣·河內直等，咸從移那斯·麻都指搆而已。移那斯·麻都，雖是小家微者，專擅日本府之政，又制任那，障而勿遣。由是不得同計奏答天皇，故留已麻奴跪〈蓋是津守連也〉，別遣疾使迅如飛鳥，奉奏天皇。假使二人〈二人者，移那斯與麻都也〉在於安羅，多行奸佞，任那難建，海西諸國，必不獲事。伏請移此二人，還其本處，勅喻日本府與任那，而圖建任那。故臣遣奈率彌麻沙·奈率已連等，副已麻奴跪上表以聞。於是詔曰，的臣等〈等者謂吉備弟君臣·河內直等也〉往來新羅非朕心也。曩者，印支彌與阿鹵早岐在時，爲新羅所逼，而不得耕種。百濟路迤，不能救急。由的臣等往來新羅，方得耕種。朕所會聞。若已建任那，移那斯·麻都，自然却退。豈足云乎。伏承此詔，喜懼兼

懷。而新羅誑朝，知匪天勅。新羅春取喙淳，仍擯出我久禮山戍，而遂有之。近安羅處，安羅耕種，近久禮山處，新羅耕種，各自耕之不相侵奪。而移那斯·麻都，過耕他界，六月逃去。於印支彌後來許勢臣時<百濟本記云，我留印支彌之後，至既酒臣時。皆未詳>，新羅無復侵逼他境，安羅不言爲新羅逼不得耕種。臣嘗聞，新羅每春秋，多聚兵甲，欲襲安羅與荷山。或聞，當襲加羅。頃得書信，便遣將士，擁守任那，無懈怠也。頻發銳兵，應時往救。是以任那隨序耕種，新羅不敢侵逼。而奏百濟路迥，不能救急，由的臣等往來新羅，方得耕種，是上欺天朝，轉成奸佞也。曉然若是，尙欺天朝。自餘虛妄，必多有之。的臣等猶住安羅，任那之國恐難建立。宜早退却。臣深懼之。佐魯麻都雖是韓腹，位居大連，廁日本執事之間，入榮班貴盛之例，而今反著新羅奈麻禮冠，即身心歸附，於他易照。熟觀所作，都無怖畏。故前奏惡行，具錄聞訖。今猶著他服，日赴新羅域，公私往還，都無所懼。夫喙國之滅，匪由他也。喙國之函跛早岐，貳心加羅國，而內應新羅。加羅自外合戰，由是滅焉。若使函跛早岐不爲內應，喙國雖小，未必亡也。至於卓淳，亦復然之。假使卓淳國主不爲內應新羅招寇，豈至滅乎。歷觀諸國敗亡之禍，皆由內應貳心人者。今麻都等腹心新羅，遂着其服，往還旦夕，陰搆奸心。乃恐，任那由茲永滅。任那若滅，臣國孤危，思欲朝之，豈復得耶。伏願天皇玄鑒遠察，速移本處，以安任那。

## 3-17 《日本書紀》 欽明 5年 11月條

百濟遣使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遣朝天皇，奈率得文·許勢奈率哥麻·物部奈率哥非等還自日本。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宜來聽勅同議任那。日本吉備臣，安羅下早岐大不孫·久取柔利，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多羅二首位訖乾智，子他早岐，久嗟早岐，仍赴百濟。於是，百濟王聖明略以詔書示曰，吾遣奈率彌麻佐·奈率已連·奈率用哥多等，朝於日本。詔曰，早建任那。又津守連奉勅問成任那，故遣召之。當復何如能建任那，請各陳謀。吉備臣·任那早岐等曰，夫建任那國，唯在大王。欲冀遵王，俱奏聽勅。聖明王謂之曰，任那之國，與吾百濟，自古以來約爲子弟。今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日本臣名也>，既討新羅，更將伐我。又樂聽新羅虛誕謾語也。夫遣印支彌於任那者，本非侵害其國。往古來今新羅無道，食言違信，而滅卓淳股肱之國，欲快返悔。故遣召到俱承恩詔。欲冀興繼任那之國，猶如舊日永爲兄弟。竊聞，新羅·安羅兩國之境有大江水，要害之地也。吾欲據此脩繕六城，謹請天皇三千兵士，每城充以五百，并我兵士勿使作田，而逼惱者，久禮山之五城，庶自投兵降首，卓淳之國，亦復當興。所請兵士吾給衣糧。欲奏天皇，其策一也。猶於南韓置郡令·城主者，豈欲違背天皇遮斷貢調之路，唯庶剋濟多難殲撲強敵。凡厥凶黨，誰不謀附。北敵強大，我國微弱。若不置南韓郡領·城主修理防護，不可以禦此強敵，亦不可以制新羅。故猶置之攻逼新羅撫存任那。若不爾者，恐見滅亡不得朝聘。欲奏天皇，其策二也。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猶在任那國者，天皇雖詔建成任那，不可得也。請移此四人，各遣還其本邑。奏於天皇，其策三也。宜與日本臣·任那早岐等，俱奉遣使，同奏天皇，乞聽恩詔。於是，吉備臣·早岐等曰，大王所述三策，亦協愚情而已。今願歸以敬啟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俱遣使同奏天皇。此誠千載一會之期，可不深思而熟計歟。

## 3-18 《日本書紀》 欽明 13年(552) 5月 乙亥條

百濟·加羅·安羅，遣中部德率木笏今敦·河內部阿斯比多等，奏曰，高麗與新羅，通和并勢，謀滅臣國與任那。故謹求請救兵，先攻不意。軍之多少隨天皇勅。詔曰，今百濟王·安羅王·加羅王與日本府臣等，俱遣使奏狀聞訖。亦宜共任那，并心一力。猶尙若茲，必蒙上天擁護之福，亦賴可畏天皇之靈也。

## 3-19 《日本書紀》 欽明 14年(553) 8月 丁酉條

百濟遣上部奈率科野新羅·下部固德汶休帶山等上表曰，去年臣等同議，遣內臣·德率次酒·任那

大夫等, 奏海表諸彌移居之事, 伏待恩詔如春草之仰甘雨也. 今年忽聞, 新羅與百濟通謀云, 百濟與任那類詣日本, 意謂是乞軍兵伐我國歟. 事若實者, 國之敗亡可企踵而待. 庶先日本兵未發之間, 伐取安羅絕日本路, 其謀若是. 臣等聞茲深懷危懼, 卽遣疾使輕舟, 馳表以聞. 伏願, 天慈速遣前軍·後軍, 相續來救, 逮于秋節以固海表彌移居也. 若遲晚者噬臍無及矣. 所遣軍衆來到臣國, 衣糧之費, 臣當充給. 來到任那亦復如是. 若不堪給, 臣必助充令無乏少. 別的臣敬受天勅, 來撫臣蕃, 夙夜乾乾勤修庶務. 由是海表諸蕃皆稱其善, 謂當萬歲肅清海表. 不幸云亡, 深用追痛. 今任那之事誰可修治. 伏願天慈速遣其代, 以鎮任那. 又復海表諸國, 甚乏弓馬. 自古迄今, 受之天皇, 以禦強敵. 伏願天慈多貺弓馬.

‘임나 부흥회의’ I 은 갑자기 소집되었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백제 성명왕이 영도하고 있어서, 《일본서기》의 의거 사료도 <백제본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백제에 의한 안라 확보 정책을 시사하는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I·II의 참가자는 대개 같은 얼굴들이며(<표 2>), 가야 제국에서는 무岐=왕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출석한 것은 近江毛野가 백제·신라의 왕을 소집했을 때에 신분이 낮은 사신 밖에 오지 않았던 것과 견주어 보면 각국이 이 회의에 나름대로 기대를 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541년 4월의 I 은 안라에 머물면서 신라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백제는 사신을 가야에 파견하여 ‘임나일본부’와도 만나서 서로 사이를 약속했다고 되어 있어서(사료 12), 회의 참가자에 대한 사전 교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 제국은 신라와도 협상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고 유효한 대처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회의에 참가했던 것 같다. 백제는 근초고왕(재위 346~375년)·근구수왕(재위 375~384년)대 이후의 가야 제국과의 역사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금관국 등이 지배자 층의 신라에 대한 내통으로 멸망했다는 것에 비추어 생각할 때 ① 백제와 가야 제국의 제휴 유지를 도모함, ② 신라의 침공에 대해서는 백제가 원군을 파견하여 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I 의 종료 후 7월에는 ‘안라일본부’가 신라와 내통했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사료 13). 이는 안라에 잠재하는 반백제적 동향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안라일본부’의 河內直·移那斯·麻都 등을 중심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제2장 제2절 제4항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선조는 백제와도 왜와도 통교하는 가야계의 인물이었다는 것 같아서,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 -②의 제안은 백제에 의한 안라에 대한 군사 주둔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아마도 백제는 541년 7월 시점에서 ‘任那之下韓’으로 진출하여, 郡守·城主를 설치한다는 강경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백제는 542,3년의 두 해 연속하여 왜국에 견사하고 있어서(《일본서기》 欽明 2년(3

년=542?>) 7월조, 同 4년 9월조), ‘下韓任那之政’, 즉 그 동안의 사정 설명에 힘쓴 것으로 생각된다. 欽明 4년조의 ‘扶南財物’(扶南은 인도차이나 남부 메콩강 하류지방에 있었던 크메르족의 나라)은 백제가 541년에 중국 남조의 양에 입공했을 때에 얻은 물품을 分賜한 것이어서, 선진 문물 공여에 의한 왜국의 지원 획득을 기도한 행위였다. 그러나 왜국의 조정은 백제의 안라 주둔에는 난색을 표한 것 같고(사료 14), ‘일본부’나 안라가 신라와 내통한 것도 이 백제의 주둔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국은 신라와 공모한 河內直 등에 관해서는 백제가 가야 지역의 안정을 확립하면 해결되는 것이기에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백제는 郡令·城主의 퇴각은 불가하다고 하며 가야 지역의 안정에 힘쓴다는 점에 한해서만 왜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 응하여 544년 11월에 II가 개최된다. 이 단계에서는 백제와 안라의 관계가 지난번만큼 원활하지는 않았으므로 ‘임나집사’·‘任那阜岐等’이나 ‘일본부집사’·‘일본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집합을 연기했으므로(《일본서기》 欽明 4년 12월조·是月條, 同 5년 정월조·是月條, 사료 15·16), 개최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왜국이 백제의 군사진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사료 15). 그래서 백제로서는 ‘일본부’나 안라에 있는 친신라, 반백제의 기운을 전환하는 일이 급무였기 때문에, II에서는 ① 531년 이래로 신라가 수비하는 구례산의 5성을 탈취하고 탁순국을 부흥시킨다, ② 백제가 下韓(남한)에 설치한 郡令·城主는 ‘임나’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백제의 군사적 진출은 유지된다), ③ ‘일본부’의 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등을 퇴각시킨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가야 제국과 함께 왜국에 건사하여 공동 제안이라는 형태로 왜국의 지지를 얻는다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③의 대상인 吉備臣도 열석하고 있었고, 게다가 참석자는 전권 위임을 받지 못했으므로, 각각 귀국하여 ‘日本府之大臣’, 안라왕, 가라(대가야)왕 등에게 자문하고자 한다며 백제의 방책에 대한 회답은 보류되고 있다. 백제는 결국 단독으로 왜국에 건사하고 있어서(《일본서기》 欽明 6년(545) 5월조) 가야 제국과의 제휴는 실현되지 못했다. 백제는 또한 ‘吳財’=대중국 외교에서 얻은 물품을 사용하여 가야 제국을 자국의 진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欽明 6년 9월조).

왜국은 백제사의 귀국에 즈음하여 상당량의 군사물자를 주고 있지만(《일본서기》 欽明 7년(546) 정월 병오조), 이는 ①에서 요청된 3000명의 병사 파견에 대한 협력 거부의 대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왜국은 ②에는 불찬성이고, ③에 관해서도 ‘임나 부흥’이 달성된다면 그들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으로 전

혀 실행력이 없었다. 왜국에 있어서는 안라의 독립 유지, 백제와 신라의 세력 균형에 의한 가야 제국의 현상 유지가 바람직했던 것이며, 여기에 이르러 가야 제국을 둘러싼 왜국과 백제의 방책에는 어긋남이 생기게 된다.

#### 4. ‘임나’의 용법과 ‘임나일본부’(‘재안라제왜신등’)의 실태

전항의 ‘임나 부흥회의’에서 일련의 백제 성명왕의 발언과 관련하여 ‘일본부’의 구성이나 특색을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임나’라는 말의 뜻(어의)이나 ‘임나일본부’에 관한 지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서기》에 있어서 최초의 외교기사는 崇神 65년(기원전 33?)년 7월조, 垂仁 2년(기원전 28?)是歲條의 임나인 蘇那曷叱知 = 意富加羅王之子都怒我阿羅斯等(별명을 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 하여, ‘蘇’는 ‘于斯’(牛)의 조선어 sio를, ‘那曷’는 ‘岐(來)’와 동의어인 ‘나가다’ ‘가다’의 조선어의 어근 na-ka를 베껴 쓴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蘇那曷 = 于斯岐이고, 阿利叱智·叱知, 干岐는 모두 군주를 나타내는 말)의 來航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임나’ = 意富加羅는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의 대가락, 즉 금관국 바로 그것이다. 제2장 제1절 제2항에서 보았듯이 ‘임나’가 금관국을 지칭하는 사례는 조선·중국의 사료에도 있으며, ① ‘임나’ = 금관국이 ‘임나’의 語義의 기본이다(주9).

단 《일본서기》의 ‘임나’에는 ② 가야 제국을 막연히 ‘임나’로 칭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본 절 제1~3항에서 언급한 대로, ③ ‘임나’ = 대가야나 ④ ‘임나’ = 안라 등 금관국 이외의 가야 제국 가운데 유력한 나라를 지칭하는 경우도 보인다. ‘임나’의 용법은 각각 이어서 ‘임나’가 각각의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하나하나 사료를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라’는 대체로 북부 가야 제국의 대가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라’ ‘한’이 가야 제국을 막연히 지칭하는 용례도 있으며 또한 ‘임나 부흥회의’의 장면에서 보이는 ‘남가라’는 남부 가야 제국의 유력한 나라 중 하나로써 또 하나의 ‘대가락’에 해당하는 금관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임나일본부’의 실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임나일본부’에 관한 학설을 정리한다 【李永植 1993, 鈴木英夫 1987, 鄭孝雲 2005, 中野高行 2007】.

A. 왜 왕권의 출장기관설…왜국이 반도 남부를 영유하여 그 경영을 위해 설치한 기

관으로서 행정·외교 기능을 갖는 군사 기지로 이해한다 【末松保和 1949, 井上秀雄 1973a, 八木充 1963】 .

- B. 분국론 … 왜 왕권이 지배했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되는 백제·신라나 ‘임나’ 등은 한반도 제국으로부터 일본열도로 이주한 집단이 건국한 ‘분국’이며, ‘임나일본부’는 그러한 일본열도 내의 여러 ‘분국’을 통치하는 기관으로 보는 입장 【金錫亨 1969】 .
- C. 가야 지역 거주 왜인설 … 안라에 잔존했던 왜인 집단에 의한 조직으로 왜 왕권의 출장기관도 한반도 경영의 거점도 아니라는 입장 【井上秀雄 1972·1973b, 鈴木靖民 1974, 鬼頭清明 1976·1992, 山尾幸久 1977, 森俊道 1983, 佐伯有清 1983, 延敏洙 1990, 森公章 2006, 中野高行 2007】 .
- D. 가야 제국에 의한 설치설… 신라왜전=대왜 외교기관을 참고로 하여 가야 제국이 대왜 외교를 위해 설치했다고 본다 【奥田尙 1976】 .
- E. 백제의 출장기관설
- a. 군사령부설… A의 주체를 왜로부터 백제로 치환하여 사료를 다시 본 다음에 행정·외교 기능을 가진 군사 기지로 이해한다 【金延鶴 1977, 千寬宇 1974·1983, 金鉉球 1985b】 .
  - b. (D - b)무역중개소설…원래는 백제가 설치한 ‘왜국사절 주재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백제는 이것으로 인해 대왜 무역의 루트를 확보했었다고 본다. 단 540년 이후는 안라가 이것을 장악하고 안라왕의 지휘 하에 대왜 외교·교역기관으로 재편되어 안라의 세력 과시와 백제의 압력 완화에 역할을 했다고 본다 【金泰植 1993】 .
- F. 사신·외교 교섭 단체설…왜국으로부터 ‘임나’로 파견된 사신, 또는 왜국의 사절과 가야 제국의 牟岐와의 사이에 구성된 외교 교섭 단체로 보는 견해로서 왜 왕권의 파견기관, 또는 왜 왕권과 군신관계를 맺는 신료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만 군대나 영토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請田正幸 1974·1987, 吉田晶 1975, 山尾幸久 1980, 大山誠一 1980, 鈴木靖民 1983, 平野邦雄 1985, 鈴木英夫 1987·1996·2006, 李永植 1989, 角林文雄 1996, 李鎔賢2002, 鄭孝雲 2005, 熊谷公男 2008】 .
- G. 신·분국론 … 한반도 사람들이 왜국으로 도래하여 그 후예인 九州의 왜가 본국인 가야 지역 전역에서 수시로 교역을 한 임시교역소이며 그 중심은 안라라고 하는 설 【尹錫曉 1993】 .

이들 중에 A설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神功皇后 ‘三韓 征討’ 후에 神功 49년 3월조에서 보이는 荒田別·鹿我別에 의한 가야 지역 7국 등의 평정과 백제를 위한 군사행동시에 率를 두고 여러 한국을 통제한 것이 ‘일본부’였던 것으로 한다. 《大日本史》나 新井白石의 ‘白石史論’(현존하지 않는다)의 설을 답습한 것으로서 1970년경까지는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장 제2절 제4항에서 언급했듯이 神功 49년조에 등장하는 지역을 백제가 영유·침공한 것은 5세기 말~6세기 전반의 시기로 생각되어, 오히려 해당기의 가야 제국을 둘러싼 백제의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다(주10). 따라서 이것을 ‘임나일본부’의 기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1970년대 이후에 《일본서기》의 사료적 성격의 재검토, 관계 기사의 정합적 해석의 구축이 진행되어 현재는 A설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G의 분국론에 대해서도 《일본서기》의 해석에 무리가 있어서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주11).

그러면 C~F설에 관해서는 어떻게? 아래에 관계 기사로부터 엿볼 수 있는 ‘임나일본부’의 특색을 정리하는 형태로 여러 설의 옳고 그름이나 ‘임나일본부’의 실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가) ‘일본부’는 백제·신라의 가야 지역에 대한 침공이 진행되는 6세기에 등장한다. 그 이전에 유일하게 ‘일본부’가 등장하는 것은 사료 11이며, 이것을 ‘일본부’의 기원으로 하는 의견도 있지만 【大山誠 - 1980】, 사료 11에는 ‘日本府行軍元帥等’으로 기록되어 왜국의 중앙호족인 膳臣斑鳩, 지방호족인 吉備臣小梨, 외교의 실무를 관장하는 吉士 집단 難波吉士赤目이라는 구성은, 오히려 후술하는 6세기의 ‘일본부’ 구성원을 반영한 것이 아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료 11에서는 ‘일본부’가 독자적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지만 6세기의 ‘일본부’에는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일본부’에 군사력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보류해 두어야 한다.

(나) 사료 13에는 ‘안라일본부’라는 표현도 보이지만, 이는 동일한 사료 중의 ‘임나일본부’와 같은 뜻이며 소재지는 안라였다고 생각된다.

(다) ‘在安羅諸倭臣等’(사료 0-01)이 그 정식 명칭이다. 《일본서기》의 ‘일본부’의 ‘府’자의 古訓은 欽明紀에만 미코토모치(宰, 司)로 되어 있지만, 이는 왜국 조정과의 관계를 오해한 훈으로서 그 외의 개소에 있는 ‘府’자의 古訓 쓰카사(官, 司)가 본래의 훈으로 생각된다. 단, 사료 38의 ‘今日本府印支彌’를 分註에서 ‘在任那日本府臣名也’로 설명하는 사례에서 보아 ‘일본부’는 조직·개인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어서 충분히 의식된 용어는 아니며 ‘臣’ ‘府’ ‘府臣’은 상통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鈴木英夫 2006】.

(라) 구성원에는 日本府大臣 - 日本府臣의 서열이 있으며(‘日本府卿’ ‘日本府執事’는 이러한 것들의 총칭?), 전자에는 的臣 등의 왜의 중앙호족의 성을 가진 자가 취임하며 후자에는 吉備臣 등의 지방호족이 있어서 그 밑에 河內直·阿賢移那斯·佐魯麻都 등 가야계의 사람들(왜인과의 혼혈아를 포함한다)이 실무관으로써 실권을 장악한다는 실태였다(사료 12·13·14·15·16·17).

(마) 544년 당시의 ‘日本府大臣’은 的臣(烏胡跛臣)이지만, 사료 16·17에 의하면 전임자으로써 印支彌, 許勢臣(既酒臣) 등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료 16에서는 왜국 측의 발언으로써 이전에 印支彌와 阿鹵旱岐(안라왕의 이름, 또는 阿鹵 = 안라로서, ‘안라왕’이라는 의미인지)의 시대에, 신라가 안라를 침공하여 파종을 못하게 되고 백제도 구원을 보낼 수 없었다고 쓰여 있으며, 백제 측의 설명에서는 이것을 久禮山 주변의 파종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531년의 신라에 의한 卓淳 제압과 백제의 구례산 수비 퇴거 = 신라에 의한 구례산 확보와 관련되는 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 17에서는 印支彌는 당초 신라와 대결 자세였지만, 후에는 반백제로 돌아섰다고 하여 사료 16에 의하면 다음의 許勢臣 때에는 신라의 침공이 소강상태였던 것과 백제가 때에 따라 원병을 파견했기 때문에 구례산 주변의 파종이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許勢臣의 취임 시기, 的臣으로의 교체 과정은 명확치 않지만, 현임 적신 등이 친신라의 정책을 취한 이유 중 하나에는 이 구례산 주변의 파종, 완충지대의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 印支彌에 대해서 사료 16 所引 <백제본기>에는 “我留印支彌之後, 至既酒臣時”, 사료 17의 백제 성명왕의 말에 “夫遣印支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國”이라고 되어 있으며, 印支彌는 백제가 파견한 것으로 【奥田尙 1976】, 그 거취도 백제왕의 의향에 달린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E-a설에서는 그들을 왜계 백제관료로 하고, 백제가 보낸 것으로 ‘일본부’를 백제의 출장기관으로 보는 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주12). 한편 F설에서는 印支彌를 백제 재주 왜계의 인물로 보지만, ‘일본부’에 취임한 후에는 ‘왜신’으로써 왜왕의 신료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그 활동에 불만을 품은 백제는 그를 실력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료 16·17에 의하는 한 許勢臣·的臣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지만(사료 19에서는 적신은 “敬受天勅, 來撫臣蕃”(이 경우의 ‘臣蕃’은 성명왕으로부터 본 ‘임나’에 관한 것인지)라고 되어 있다), 印支彌가 백제로부터 온 점은 인정해야 한다. 단, 印支彌는 반드시 백제의 의도대로는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부’가 백제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사료 15·16·17에 의하면, 백제는 河內直 등의 퇴거를 왜국에

요청하고 사료 19에서는 的臣의 죽음을 보고함과 함께 “伏願天慈速遣其代，以鎮任那”라고 말하고 있어, 백제의 인식으로서는 ‘일본부’ 관인의 진퇴는 왜국 측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13·15에는 백제가 안라에 파견한 사신 중에 왜계 백제 관료인 紀臣奈率彌麻沙, 施德斯那奴次酒가 보이고 있어서 ‘일본부’의 吉備臣·河內直 등에 대한 백제의 인식, 즉 그들을 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적도 존재한다【李永植 1989】. 사료 13에는 또한 “日本卿等，久住任那之國，近接新羅之境”이라고도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印支彌는 아무리 백제에서 도래했다고 해도 백제와는 별개의 ‘일본부’ 중 一員으로 ‘재안라제외신등’으로써 행동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사) ‘일본부’의 활동 내용·역할로써는 백제·신라, 고구려 등 한반도 제국이나 왜국과의 협상을 하고 ‘任那執事·國國旱岐等’(사료 14), ‘任那執事’·‘任那旱岐等’(사료 15·17), ‘任那諸國旱岐等’(사료 0-01)과 동석하여 협의하고 행동을 함께 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사료 15에서는 ‘일본부’의 의향이 ‘任那旱岐等’의 행동을 규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며, 사료 16에도 “夫任那者以安羅爲兄，唯從其意，安羅人者，以日本府爲天，唯從其意<百濟本記云，以安羅爲父，以日本府爲本也>”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백제에 대한 소집을 지연시키는 구실이나 백제의 ‘일본부’ 배제 요구를 지지하는 과대평가에서 유래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서【中野高行 2007】，가야 제국 특히 안라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은 조금 깎아서 볼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일본부’와 안라와의 관계에서 보아 D설, E-b 설과 같이 안라에 의한 설치를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야 한다.

(아) 사료 18에는 ‘日本府臣’이 백제·가야 제국과 함께 왜국에 견사한 사실이 보이지만, ‘일본부’가 단독으로 왜국에 견사한 사례는 없다. 또한 사료 15에 의하면 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부’는 왜국이 신라 또는 백제에 파견한 사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으며, 왜국이 ‘일본부’에 견사하는 일은 없었다. 원표기로 생각되는 ‘在安羅諸倭臣等’에도 ‘왜신’ 즉 왜 왕권의 신하, 왜 왕권과의 직접적 연관을 시사하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백제가 ‘일본부’ 관인의 배제를 재삼 왜국에 요청했을 때, 왜국은 확실히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사료 14·16), (사)에서 언급한 백제 측의 ‘일본부’ 관인과 왜국의 관계 서술은 어디까지나 백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실제로 ‘일본부’는 왜국의 지시를 받는 등 직접적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F설도 지지하기 어렵다.

이상이 ‘일본부’에 관한 견해들인데, 결론으로써는 ‘일본부’(‘在安羅諸倭臣等’)란 5세기대의 왜와 반도의 관계나 지방호족의 독자적 통교 등으로 인해 가야 지역, 특히 예부

터 왜와 연관이 깊었던 안라(유력한 도래계 씨족 東漢直씨는 안라 출신으로 여겨진다)에 거주했던 왜인의 一團이며, 가야 제국과 공동의 이해를 갖고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그들과 접하며 주로 외교 협상에 협동하여 종사했었다고 종합할 수 있어서 C설이 정합적으로 생각된다. 안라에 있어서의 구체적 존재 형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던 식의 출장기관적 기구로서의 성립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며 평상시에 그 존재 의의는 크지 않았다고 풀이된다.

그들의 존재가 클로즈업된 것은 백제와 신라가 안라를 사이에 두고 직접 대치했던 단계 이후이며, 왜국은 백제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을 지지했었지만, 가야 제국의 멸망, 백제·신라의 더 이상의 침공은 바라지 않았고 안라 등이 완충지역으로써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재안라제왜신등’은 본국인 왜국의 조정, 또는 각각의 출신 호족과도 몇몇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립·활동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 유지를 희망하는 안라 등 잔존하는 가야 제국과 공동으로 백제와 신라, 왜국 그리고 고구려와도 외교 협상을 하여 그 때 그 때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활동은 안라 점령을 기도하는 백제에는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서 비쳤기 때문에 백제계 사료에 의거한 《일본서기》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중요시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일본서기》 欽明紀에서는 이 ‘在安羅諸倭臣等’의 소멸, 가야 제국이 멸망을 향하는 단계 이후에 왜국의 국내 지배 체제 정비와 관련된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吉備 지역에 屯倉이라는 왜 왕권의 지배 거점을 설치한(欽明 16년(555) 7월 임오조, 동 17년 7월 기묘조) 것은 반도에 있어서의 吉備臣의 활약으로 독자적 통교 루트를 갖고 있었던 吉備씨가 그 파이프라인을 잃고 세력이 저하된 틈을 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방 호족의 독자적 외교권을 탈취하여 조정이 외교권을 일원화하는 방향도 간과할 수 있으며(欽明 31년(570) 4월 을유조·5월조), 왜 왕권의 외교·군사 면에서의 국내 통제는 오히려 이 이후에 정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주13).

## 5. 백제 성명왕의 패사와 가야 제국의 행방

안라를 둘러싼 방책에 있어서 약간 간격이 생긴 왜국과 백제였지만, 백제에는 다른 위협이 다가와 왜국도 백제 지원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북방으로부터의

고구려 남하였다.

548년 정월, 고구려는 예병 6천으로 백제의 독산성(충청북도 충주시說,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說, 서울시 북방의 북악說 등이 있다)을 공격했다. 이 때 백제는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원병 3천을 얻어 고구려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9년 2월조, <고구려본기> 양원왕 4년 정월조, <백제본기> 성왕 26년 정월조). 이 전쟁에 대하여 4월에 도래한 백제 사신은 고구려인 포로의 증언에 의거하여 ‘馬津城之役’은 안라와 ‘일본부’가 고구려를 불러들인 것이므로 ‘일본부’의 移那斯·麻都 등이 고구려의 무력을 이용하여 백제를 안라로부터 퇴각시키려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서기》 欽明 9년(548) 4월 갑자조). 이때에 왜국은 ‘안라 도망 空地’에 대한 원병 파견을 약속하고 있어서 아마도 안라와 ‘일본부’의 반백제 세력은 와해되고 백제의 안라 장악이 결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왜국도 백제의 안라 주류를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국은 또한 370명을 파견하여 백제의 得爾辛(德斤支 =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 땅이라고도 하지만 미상)의 축성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서기》 欽明 9년 10월조).

550년 정월에 백제는 고구려의 道薩城(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한산성의 옛 땅을 탈환했다. 그러나 3월에는 고구려가 金峴城(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을 포위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라가 그 틈을 타서 道薩城과 金峴城을 탈취했다고 하며(이상은 《삼국사기》에 의함), 여기서 신라가 반도 서해안에 진출함과 함께 북방에 있어서도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주 14). 신라는 553년 7월에 이 땅에 新州를 설치하고 영토 확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백제·‘가라’(대가야)·안라는 왜국에 건사하여 출병 요청을 했으며(사료 18), 바야흐로 백제와 운명공동체가 된 가야 제국에게도 절박한 사태가 되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주 15). 백제는 553년에도 왜국에 건사하여 고구려와 신라가 제휴하여 백제·안라를 공격한다는 풍문을 전하고 원병 파견을 요청하고 있어서(사료 19), 이는 백제와 ‘재안라제왜신등’·‘임나 제국 夫岐等’의 공동 의지라고 하며(사료 0-01), 이 단계에서 점점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554년 5월에 도해한 왜국의 군병(《일본서기》 欽明 15년 5월 戊子條)이 6월에 도착하자, 백제는 곧 신라에 공격을 가하여 왜계 백제관료인 東方領 物部莫奇武連이 이끄는 군사가 函山城(관산성,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을 공격하고, 왜국의 有至臣이 인솔한 竹斯物部莫奇委沙奇的 화전이 위력을 발휘하여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고구려의 개입을 두려워 한 백제는 스스로 군사 1만 명을 증강함과 함께 왜국의 ‘竹斯嶋上諸軍士’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왜국의 파견군이 筑紫의 호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 왜국 군대의 도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해에 대 고구려전에서 승리하여(《일본서기》 欽明 14년 10월 己酉條) 자신감을 가진 백제 왕자 余昌(威德王)은 현재 보유한 세력으로 가일층 신라 공격을 거행했다. 부친 성명왕이 여창을 위로하기 위해 전선으로 향했던 바, 신라는 이를 격파하여 성명왕은 패배, 사망하고 만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7월조, <백제본기> 성명왕 32년 7월조). 余昌도 신라군에게 포위되었지만 ‘能射人’ 筑紫國造가 신라의 기병을 쏘아 떨어뜨렸으므로 余昌 일행은 겨우 포위망을 벗어나 귀국할 수 있었다(사료 0-01). 결과적으로 백제는 국왕의 패배, 사망이라는 대패배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안라를 둘러싼 백제와 왜국의 방책과 그 결말이다. 대승리를 거둔 신라는 백제라는 후원자를 잃은 가야 제국의 제압에 매진하여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562년에 가야 제국 병탄을 완성하는 것이었다(《일본서기》 欽明 23년 정월조,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23년조)(주 16).

또한 이 성명왕의 패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전쟁에 대한 출병을 둘러싼 왜국과 백제의 협상 가운데에서 백제는 왜국에 불교전래를 비롯한 선진문물의 공여를 하고 왜국은 그 대가로서 군병 파견을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왜국의 佛教公傳 연대에는 《上宮聖德法王帝說》, 《元興寺緣起》의 538년설과 《일본서기》의 552년설(欽明 13년 10월조)이 있다. 538년설 중 하나의 근거에는 522년의 ‘大唐漢人’ 案部村主司馬達止에 의한 불교 숭배, 즉 선행되는 私傳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열거되어 있다(《扶桑略記》 欽明 13년 10월 13일조 所引 ‘日吉山藥恒法師法華驗記’). 達止 일족은 왜국에서 최초의 出家人이 되는 嶋女(善信尼), 佛師로서 저명한 鳥(止利仏師) 등을 배출했으며, 왜국에서 초기 불교 수용이 그들 도래계 씨족에게 지워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584년에 딸인 嶋가 출가했을 때에 11살이었다고 하니 達止가 불상을 숭배했다는 壬寅年은 간지 1운을 내려서 582년경의 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達止의 개인적 불교 수용의 연대에 가깝기 때문에 538년설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元興寺緣起》 撰進 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538년설은 聖德太子 신앙의 전개로 인해 후대에 창출된 연대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서, 반드시 《일본서기》에 선행하거나 필적하는 유력 설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552년설에 대해서도 당시 생각되었던 末法 개시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반드시 정확한 연차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佛敎公傳의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와 같이 6세기 중엽의 欽明朝의 일이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주17).

단,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관점을 가미하면 538년은 성명왕이 부여 천도를 하여, 백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였지만, 국제 정세는 552년 쪽이 절박하여 문물의 공여로 인해 왜국의 외교적 지지나 군사원조를 이끌어 내온 백제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결정타를 내놓았다고 보면 552년설 쪽이 유력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왜국이 백제로부터 불교를 도입한 것은 541년에 백제가 梁에 입공하고 529년경부터 정비되는 계율사상과 황제보살에 의한 국가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梁의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上川通夫 2007】. 그렇다면 왜국에 대한 불교 전래는 541년 이후로 될 수밖에 없다. 왜국은 불교를 說授하는 승려 이외에 오경박사나 의박사 등 학예 전수를 위한 인재, 그리고 여러 문물을 백제로부터 받고 있어서 왜국의 문명화를 추진함에 있어 백제와의 관계는 끊기 어려운 것이었다.

## 제2절 가야 제국 멸망 후의 한반도 제국과 왜국

6세기 후반의 한반도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를 맞게 된다. 백제와의 가야 쟁탈에 승리한 신라는 반도의 서해안에 달하는 새로운 영역 통치를 확립하고 중국의 남조와 북조에 입공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존재감을 더해 간다. 왜국에 있어서는 이 신라와의 관계 구축이 새로운 문제가 되지만, 신라에도 대 백제·고구려를 위한 방책을 모색한다는 과제가 존재했다. 570년에는 고구려가 왜국에 견사하지만(《일본서기》 欽明 31년(570)조~敏達 3년(574)조), 그 통교관계는 아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이하에서는 백제·신라와의 통교를 중심으로 6세기 후반의 일한관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왜·백제 관계의 추이

성명왕의 패배와 사망 후에 백제에서는 余昌이 즉위하여 威德王(재위 554~598년)이 되었다. 위덕왕은 555년 2월에 동생인 왕자 惠를 왜국으로 파견하여(《일본서기》 欽明 16년 2월조), 왜국이 친백제 정책을 유지하도록 손을 쓰고 있다. 惠는 원병 파견을 요청했지만, 왜국 측은 국가 체제의 안정을 敎示하고 있어서 즉각 출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다음 해에 혜가 귀국할 때 阿倍臣 등이 筑紫國舟를 거느리고 호송했다고 하며, 그와는 별도로 筑紫火君이 용사 1000명을 이끌고 弥氏(경상남도 남해 섬(섬진강 입구) 동남단의 彌助里(?))에 호송하여, ‘津路要害之地’를 지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일본서기》 欽明 17년 정월조), 왜국의 ‘竹斯嶋上諸軍士’의 존재함이 알려짐과 함께 백제에 대해 왜국이 계속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덕왕의 치세는 40년 이상에 이르러, 혜王(재위 598~599년), 法王(599~600년)의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武王(600~641년), 義慈王(641~660년)으로 계속되는 새로운 세기의 백제 융성을 가져오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 제국 멸망 후에 백제의 신라에 대한 방책으로써 그 군사 행동의 모습을 정리하면 <표 3>대로이다. 이 중에서는 577~79년의 침공이 주목되며, 이는 신라 우세의 상황을 구축한 진흥왕(재위 540~575년)의 죽음, 그 다음의 진지왕(576~579년) 즉위의 틈을 탄 군사로서 신라의 서쪽 즉 옛 가야 지역의 탈환을 시도한 것이었다. 575년에 백제가 왜국에 견사한(《일본서기》 敏達 4년 2월 乙丑條) 것은 사전 제휴를 모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國是는 신라에 침공하여 옛 가야 지역을 영토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며, 이것이 백제의 ‘任那復興’ 바로 그것이다.

또한 <표 3>을 보면 위덕왕의 신라에 대한 침공은 579년 이후 기록이 없고 왕의 남은 치세 기간과 비교하여 그 이후는 적극적 신라 침공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581년부터 시작되는 隋와의 관계라는 새로운 요소, 동아시아 정세의 커다란 변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점은 7세기의 일한관계에 관한 검토에 넘기고 여기서는 왜국과 백제의 관계를 좀 더 보아 가고자 한다.

### 3-20 《日本書紀》 敏達 12年(583) 是歲條

復遣吉備海部直羽鳴召日羅於百濟。羽鳴既之百濟，欲先私見日羅，獨自向家門底，俄而有家裏來韓婦，用韓語言，以汝之根入我根內，即入家去。羽鳴便覺其意隨後而入。於是，日羅迎來，把手使坐於座，密告之曰，僕竊聞之，百濟國主奉疑天朝，奉遣臣後留而弗還，所以奉惜不肯奉進。宜宣勅時，現嚴猛色催急召焉。羽鳴乃依其計而召日羅。於是，百濟國主怖畏天朝不敢違勅，奉遣以日羅，恩率德爾，余怒，哥奴知，參官，柁師德率次干德，水手等若干人。日羅等行到吉備兒鳴屯倉，朝廷遣大伴糠手子連而慰勞焉。復遣大夫等於難波館使訪日羅。是時日羅被甲乘馬到門底下，乃進廳前進退跪拜歎恨而曰，於檜隈宮御寓天皇之世，我君大伴金村大連奉爲國家使於海表火鞞北國造刑部鞞部阿利斯登之子，臣達率日羅，聞天皇召恐畏來朝，乃解其甲奉於天皇。乃營館於阿斗桑市使住日羅，供給隨欲。復遣阿倍日臣物部贊子連·大伴糠手子連，而問國政於日羅。日羅對言，天皇所以治天下政，要須護養黎民。何遽興兵翻將失滅。故今令議者仕奉朝列，臣連二造<二造者，國造·伴造也>，下及百姓，悉皆饒富令無所乏。如此三年，足食足兵，以悅使民，不憚水火，同恤

國難. 然後多造船舶, 每津列置, 使觀客人, 令生恐懼. 爾乃以能使使於百濟, 召其國王. 若不來者, 召其太佐平王子等來, 即自然心生欽伏, 後應問罪. 又奏言, 百濟人謀言, 有船三百, 欲請筑紫. 若其實請, 宜陽賜予. 然則百濟欲新造國, 必先以女人小子載船而至國家. 望於此時, 壹岐·對馬多置伏兵, 候至而殺, 莫翻被詐. 每於要害之所, 堅築壘塞矣. 於是, 恩率·參官臨罷國時<舊本以恩率爲一人, 以參官爲一人也>, 竊語德爾等言, 計吾過筑紫許, 汝等偷殺日羅者, 吾具白王, 當賜高爵. 身及妻子, 垂榮於後. 德爾·余奴皆聽許焉. 參官等遂發途於鹿鹿. 於是, 日羅自桑市村遷難波館, 德爾等晝夜相計將欲殺, 時日羅身光有如火焰, 由是德爾等恐而不殺. 遂於十二月晦, 候失光殺. 日羅更蘇生曰, 此是我駝使奴等所爲, 非新羅也. 言畢而死<屬是時, 有新羅使, 故云爾也>. 天皇詔贄子大連·糠手子連, 令收葬於小郡西畔丘前. 以其妻子·水手等居于石川. 於是, 大伴糠手子連議曰, 聚居一處, 恐生其變. 乃以妻子居于石川百濟村, 水手等居于石川大伴村. 收縛德爾等置於下百濟阿田村, 遣數大夫推問其事, 德爾等伏罪言, 信, 是恩率·參官教使爲也, 僕等爲人之下不敢違矣. 由是下獄復命於朝廷, 乃遣使於葦北, 悉召日羅眷族, 賜德爾等, 任情決罪. 是時葦北君等受而皆殺投彌賣嶋<彌賣嶋, 蓋姬嶋也>, 以日羅移葬於葦北. 於後海畔者言, 恩率之船被風沒海, 參官之船漂泊津嶋, 乃始得歸.

583년에 왜국의 조정은 왜계 백제관료인 達率(제2위) 日羅라는 사람을 초빙하여 ‘임나 부흥’책을 상담하려고 했다. 日羅의 부친은 宣化朝에 도해한 적이 있는 火葦北國造 刑部 靺部 阿利斯登으로, ‘竹斯嶋上諸軍士’의 일원임과 함께 大伴金村을 ‘我君’으로 우러러보며, 大伴씨 밑에서 조정의 군사력 일단을 담당하는 靺部(靺負)라는 호칭이나 왜 왕권의 왕족 資養에게 봉사하는 刑部 등을 갖고 있어서 왜국의 조정과의 관계도 긴밀했다. 日羅 자신도 현명·용감한 인물이라는 평판이 전해져 오고 있어서 왜국에 있어서는 백제 왕권의 내부에 의사가 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든든한 것이었다.

日羅는 다른 백제인과 함께 조정에 들어와, ‘국정’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아뢰었다(사료 20).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2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졸속 출병을 억제하고 민정안정·국력을 충실히 한 다음에 선박 제작·每津列置에 의한 협박으로 백제왕 또는 大佐平·왕자의 來朝를 촉진하며 문책을 행한다. ② 백제의 筑紫에 있어서의 ‘新國’ 창건 계획에 대해서는 속은 시늉을 하여 여자·어린이를 받아 들여서 壹岐·對馬에 복병을 숨겨서 살해한다. 이는 백제에 대한 방책을 제안한 것 바로 그것이며 백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인지, 그 후 日羅는 동행했던 백제인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이 日羅獻策은 왜·백제 관계의 흐름에서는 난해한 것으로서 내용 해명을 위한 깊은 연구는 적다. 우선 ①에 대해서는 ‘임나 부흥’에 협력적이 아닌 백제에 압력을 가하여 백제와의 결함을 돈독히 해가면서 ‘임나 부흥’을 실현하는 방책이었다고 하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西本昌弘 1987】. 그러나 백제가 무력에 의한 ‘임나 부흥’에 힘썼던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이며 ①에서 日羅는 왜국에 대하여 그 백제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되는 일로써 후대의 사례이지만, 642년에 백제 의자왕이 옛 가야지역의 40성 남짓 탈환했을 때의 왜국과의 통교 방식을 참조하면(뒤에 인용할 사료 28·29), 백제는 옛 가야 지역을 탈환했는데도 왜국에 충분한 양의 ‘任那調’를 헌상하지 않거나 그 積算 근거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즉 백제의 ‘임나 부흥’은 반드시 왜국의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이어서 575년의 견사(《일본서기》 敏達 4년 2월 乙丑條)처럼, ‘益恒歲’라는 物實送付를 실행하지 않는 백제의 자세가 문제시되어 그것을 문책·해결하지 않으면 왜국의 ‘임나 부흥’책이 진전되지 못할 것으로 주목되지 않았을까 한다【森公章 2002】.

다음으로 ②의 ‘新國’ 창건 계획에 관하여는 ‘新國’은 ‘임나’의 이주민 집단이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火葦北國 등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했던 筑紫에 ‘新國’을 세우는 것은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筑紫에 대한 왜 왕권의 세력 확장과 선진문물의 도입 경로 확보 그리고 반도 남부에 있어서의 백제의 制海權 유지 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구상되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金鉉球 1985 c】. 《隋書》 왜국전에는 筑紫로부터 10여 국을 거쳐서 隋使가 입경한 것을 기록한 다음에 “自竹斯國以東, 皆附庸於倭”라고 되어 있어서 당시의 왜국은 기나이 야마토 왕권을 중심으로 竹斯國 등의 소국=지방 호족인 國造가 역사적 지배를 구축했던 구니가 附庸(외교권을 빼앗겨 종속)하는 형태로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는 筑紫가 할양을 얻기에 가능한 땅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단, 상술한 火葦北國造와 왜국의 조정의 관계로부터 생각하여, 磐井의 난 이후의 筑紫에 대한 지배가 불충분한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시 백제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하여 신라로부터 옛 가야 지역을 탈취하려고 했던 점에 유의하면, 570년대 말의 침공이 일단락되고 그 다음 전개를 시도함에 있어서는 백제에는 筑紫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의 백제의 筑紫 땅의 하사 요구, ‘新國’ 창건이란 이러한 ‘竹斯鳴上諸軍士’를 백제에 편입하여 자유롭게 착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제인을 보내어 백제의 거점을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해 두고자 한다【森公章 2002】.

이상의 日羅獻策은 집행되지는 않았지만(주18), 백제에 대하여는 ‘百濟是多反覆之國’이라는 비평도 보여서(《일본서기》 推古 31년(30?=622) 是歲條), 왜국은 백제에 대한 불신감을 남겨놓은 채로 있었다. 그 한 가지 원인으로서는 신라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흐름

이 상기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신라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임나조'를 둘러싼 왜국과 신라의 관계

575년 6월 가야 제국 멸망 후에는 협상 내용이 판명되는 최초의 신라 사신이 도래한다(사료 21). 이 때 신라는 '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四邑之之調'를 송부했다고 하며 이 4촌은 금관국의 주요 읍으로(사료 22), 이는 이후에 문제가 되는 '任那調' 바로 그것이다.

### 3-21 《日本書紀》 敏達 4年(575) 6月條

新羅遣使進調多, 益常例. 并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四邑之調.

### 3-22 《日本書紀》 推古 8年(600) 是歲條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惶之, 舉白旗到于將軍之麾下, 而立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加羅·阿羅々六城以請服. 時將軍共議曰, 新羅知罪服之, 強擊不可. 則奏上. 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 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 並檢校事狀. 爰新羅·任那二國遣使貢調, 仍奏表之曰, 天上有神, 地有天皇, 除是二神, 何亦有畏乎. 自今以後, 不有相攻, 且不乾般杞, 每歲必朝. 則遣使以召還將軍. 將軍等至自新羅, 卽新羅亦侵任那.

### 3-23 《日本書紀》 推古 18年(610) 7月條

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子, 與任那使人喙部大舍首智買, 到于筑紫.

### 3-24 《日本書紀》 推古 19年(611) 8月條

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周智, 共朝貢.

### 3-25 《日本書紀》 推古 31年(30? = 622) 7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智, 並來朝. 仍貢佛像一具及金塔并舍利, 且大灌頂幡一具·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秦寺, 以餘舍利·金塔·灌頂幡等皆納于四天王寺.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齊·惠光及醫惠日·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法式備定之珍國也. 常須達.

### 3-26 《書紀》 推古31年(30? = 622) 11月

磐金·倉下等至自新羅. 時大臣問其狀, 對曰, 新羅奉命以驚懼之, 則並差專使, 因以貢兩國之調, 然見船師至而朝貢使人更還耳. 但調猶貢上. 爰大臣曰, 悔乎, 早遣師矣. 時人曰, 是軍事者, 境部臣·阿曇連, 先多得新羅幣物之故, 又勸大臣, 是以未待使旨而早征伐耳. 初磐金等渡新羅之日, 比及津, 莊船一艘迎於海浦. 磐金問之曰, 是船者何國迎船. 對曰, 新羅船也. 磐金亦曰, 曷無任那之迎船. 卽時更爲任那加一船. 其新羅以迎船二艘始于是時歟.

### 3-27 《日本書紀》 皇極 2年(643) 7月 辛亥條

遣數大夫於難波郡檢百濟國調與獻物. 於是, 大夫問調使曰, 所進國調, 欠少前例. 送大臣物, 不改去年所還之色, 送群卿物, 亦全不將來, 皆違前例. 其狀何也. 大使達率自斯·副使恩率軍善俱答曰, 卽今可備. 自斯, 質達率武子之子也.

### 3-28 《日本書紀》 大化 元年(645) 7月 丙子條

高麗·百濟·新羅, 並遣使進調. 百濟調使兼領任那調使, 進任那調. 唯百濟大使佐平緣福遇病, 留津館而不入於京. 巨勢德大臣, 詔於高麗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天皇所遣之使, 與高麗神子奉遣之使, 既往短而將來長. 是故可以溫和之心相繼往來而已. 又詔於百濟使曰,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 始我遠皇祖之世, 以百濟國爲內官家, 譬如三絞之綱. 中間以任那國屬賜百濟, 後遣三輪栗隈君東人觀察任那國界. 是故百濟王隨勅悉示其界, 而調有關, 由是却還其調. 任那所出物者, 天皇之所明覽. 夫自今以後, 可具題國與所出調. 汝佐平等, 不易面來, 早須明報. 今重遣三輪君東人·馬飼造<闕名>. 又勅, 可送遣鬼部率意斯妻子等.

3-29 《日本書紀》 大化2年(656) 9月條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遂罷任那之調<黑麻呂更名玄理>.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주 19) ‘任那調’의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鈴木英夫 1983】.

① ‘任那調’는 신라에 의한 가야 제국의 병탄 후에 등장하는 것으로써 그 이전에 가야 제국이 왜국에 무언가 물품을 보냈었다는 흔적은 없다.

② ‘任那調’란 옛 금관국 4읍의 ‘調’(공물=복속하는 의미를 포함한 공납품) 바로 그것이다(옛 금관국에는 王弟가 현지에 남아, ‘食邑’을 관리했었다).

③ 그 ‘任那調’를 일정한 관위를 갖는 ‘임나’使가 가져 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신라는 왜국에 대한 ‘任那調’ 송부에 임하여 자국의 사신과 함께 실제로는 신라인이지만 따로 ‘任那’使를 세워서 來朝시키고 있다(사료 26의 迎船의 규정도 참조).

④ 신라는 옛 금관국을 ‘임나’로 하고 ‘任那調’를 왜국에 납부함으로써 가야를 부흥시켰다는 형태를 갖추어 가야 제국의 부흥을 명목으로 왜국의 군사 원조를 끌어내려는 백제의 대외 외교에 대항하려 했다.

⑤ 왜국에 있어서는 독립한 ‘임나’使가 來朝하여 ‘任那調’을 가져오는 것은 ‘임나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실제의 영유 관계를 문제로 하지 않고 ‘任那調’의 납입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任那調’는 왜국과 신라의 고도로 정치적·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이듯이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신라로서도 왜국과 통교하여 왜국이 백제·고구려 측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왜국에 있어서는 신라와의 교섭→‘임나’使의 來朝, ‘任那調’의 획득=‘임나 부흥’이라는 명목을 얻을 수 있고 백제와는 또 다른 입장에서 한반

도 삼국과 통교가 가능하게 된다. 단, ‘任那調’ 송부는 신라의 국제 정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라사가 단독으로 도래하였고 ‘임나’사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왜국이 신라사를 물리치는 사태도 발생한다. 왜국에는 신라와도 백제와도 충분한 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는 과제가 남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려를 포함한 한반도 삼국의 세력 균형 위에 서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 3. 왜국과 한반도 제국과의 등거리 외교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왜국과 한반도 제국과의 통교 사례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왜국과 백제와의 통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물의 교류가 본간이 되었고, ‘임나 부흥’ 운운 등 정치 문제는 표면에 나오지 않게 된다. 신라, 고구려도 불교를 중심으로 왜국에 인재와 물자를 공여하고 있어서 《隋書》 왜국전의 “新羅·百濟, 皆以倭爲大國, 多珍物, 竝敬仰之, 恒通使往來”라는 평가는 이러한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균등한 형태로 통교가 이루어진 상황에 입각한 것으로 생각된다(주 20). 왜국은 한반도 제국과 등거리 외교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해당기의 왜국의 아스카문화는 고훈시대 이래의 전통을 기반으로 중국의 남북조문화를 한반도 삼국으로부터 흡수함으로써 국제적 색깔이 풍부한 최초의 불교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것이다.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이 되는 飛鳥寺(法興寺)의 조영 시에는 백제로부터 불사리가 헌상되었고 寺工, 鑪盤博士, 瓦博士, 畫工 등 사원 건립에 필요한 기술자도 백제로부터 파견되었다. 왜국 최초의 출가자인 善信尼는 백제로 가서 계법을 배웠고 도래한 고구려 승 혜자와 백제 승 혜충이 ‘三寶之棟梁’라고 하여 불교계를 주도했다고 하니, 승려 양성 등 불교 문화의 이입·정착에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에 의존한 바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로부터도 불상을 가져와, 京都太秦의 廣隆寺에 전래되는 半跏思惟像(彌勒菩薩像) 등에서는 신라 불교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바이다.

왜국의 불교 문화 수용을 추진한 것은 蘇我씨이며, 蘇我씨는 東漢씨를 비롯한 도래계 씨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飛鳥寺의 剝柱를 세웠을 때 蘇我馬子와 100여 명의 사람들은 백제 의복을 착용하고 열석했다고 하니(《扶桑略記》 崇峻 원년(588) 정월 조), 백제 문화를 기리는 자로서의 蘇我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종래의 왜국 궁실은 역대 遷宮의 형태를 취했지만, 궁도를 아스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도로 씨의 아스카 정비를 계속한 것도 蘇我씨였다(주 21). 飛鳥寺의 서쪽 광장은 국가적 향연

의 장이었고 그곳에는 백제의 路子工이 조영한 須彌山石이 신기한 정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스카의 궁도는 飛鳥강 오른쪽 기슭의 낮은 습지에 있었기 때문에 川原石나 옹회암의 절석 등을 이용한 돌을 깎아 시설이 많았지만, 苑池(연못정원)의 조영 모두 이것들은 백제, 또는 신라의 수도를 본 따 만든 경관을 만들어 낼 의도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왜국이 등거리 외교의 성과를 누리는 가운데에도 한반도에서는 반도 통일을 둘러싼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어 간다(<표 3>). 또한 4세기 초반 이래로 오랜 동안 남북조의 분열이 계속되었던 중국에서도 589년에 북조의 隋가 남조의 陳을 멸하고 중국 통일을 실현한다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隋, 그리고 그 다음의 唐은 한반도의 분쟁에도 개입하여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왜국과 한반도 제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다음의 7세기 일한관계의 고찰과제다.

- (주1) 繼體의 본거지였던 近江國 高島郡 水尾村에 소재하는 鴨稻荷山 고분은 6세기 전반의 전방후원 분으로써 繼體 즉위 후의 것이 되지만, 금제 귀고리, 금동제 관, 금동제 쌍어패, 금동제 신발 등 한반도 남부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장품이 검출되어, 繼體 대왕을 만들어낸 이 지역의 국제적 환경을 추찰하게 해 주는 재료를 제시한다【大山誠一 1999 b】. 그리고 和歌山縣 橋本市 隅田八幡宮 소장인 物書像鏡에는 “癸未年八月日十大王年男〔孚〕弟王在意柴沙加宮時斯麻念長奉遣開中費直穢人今州利二人等〔尊〕取〔所(取)〕白上同(銅)二百早(桿)作〔所(作)〕此竟(鏡)”(〔 〕은 유력한 다른 해석, ( )는 다른 음훈으로 읽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未年은 443년이라는 설도 있지만, 2007 《歷史考古學大辭典》(吉川弘文館) ‘隅田八幡神社・人物畫像鏡’의 項(寺西貞弘 씨 집필)에 의하면, 鏡의 고고학적 연대는 6·7세기를 밀도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503년 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즉위 전의 男弟王=繼體가 大和國의 忍坂宮에 있었을 때, 斯麻=백제의 무령왕으로부터 ‘長奉’=우호 관계의 계속이 기대되는 듯한 입장에 있었던 사실이 간파되므로 왜왕권이 백제 지지의 외교 정책을 취하는 배경을 알게 된다.
- (주2) 대한민국에서의【金泰植 1985·1988】등의 연구에 대응하여, 일본에서는【田中俊明 1992】이 연구를 크게 진진시켰다. 또한 伴跋=대가야설은, 예를 들면【今西龍 1970 b】가【今西龍 1970 a】에서는 伴跋=本彼(星州)라는 통설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 “伴跋는 성주를 제2 중심으로 하고, 고령의 땅을 제1중심으로 하고 대가야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추정함에 이르러”(391 페이지)로 서술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가야 제국으로부터의 시점을 축으로 하여 관계 기사의 전체적인 이해의 재검토를 추진한 것은 金泰植씨·田中俊明씨의 뛰어난 연구 성과다. 또한 卓淳의 比定地에 관해서는 金泰植씨는 今西說을 계승하여 낙동강 남쪽의 창원설을 취하지만,【松波宏隆 1994】는 낙동강 동북 해안으로 풀이하고, 昌寧(比自林)의 남쪽 靈山을 卓淳에 맞추고 있다.
- (주3) 원인으로서 475년 고구려의 공격에 의한 백제 남천 후의 혼란, 동성왕 대에도 가끔 보이며, 무령왕 대의 502년, 506년, 521년(신라에 도망한 것이 900호로 기술되어 있다)으로 계속 닦쳐오는 역병이나 기근(《삼국사기》)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4) 森公章, 2000 <評の成立と評造> 《古代郡司制度の研究》(吉川弘文館); 2003 <國宰, 國司制

の成立をめぐる問題> 《歴史評論》 643) 등.

- (주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建置沿革條所引 崔致遠撰 <釋利貞傳>에 기술된 대가야 왕가의 계보에 의하면 신라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異腦王이며, 所生子는 月光太子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서기》 繼體 23년(529) 4월 무자조, 사료 09의 ‘任那王已能未多干岐’는 ‘已能未多’의 誤記이며 異腦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왕 자신이 왜국으로 도래했다는 것은 의문이지만 이 ‘임나’는 ‘가라’=대가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6) 【田中史生 2008】는 《일본서기》 欽明 15년(554) 2월조에서 五經博士 王柳貴와 교체된 固德(제9위) 馬丁安는 백제의 관위를 갖고 있으며, 백제 왕권을 섬기는 관인으로써 백제의 정치적·전략적 의도를 왜 왕권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 (주7) 【古川政司 1980】은 후술하는 백제의 안라에 대한 군사진출을 둘러싼 왜국과의 의견 대립에 입각하여 毛野 과견 시에도 왜와 백제 사이에는 무언가의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백제의 사신 배제로 이어졌지만 이 점에서는 그러한 대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 (주8) 【熊谷公男 2008】는 毛野 과견 실패 후에 안라 주재 왜계인을 ‘임나일본부’로써 조직했다고 보고 있으며, 毛野가 했던 ‘韓子’에 관한 재판은 그 후신인 ‘임나일본부’에도 이어져서, 안라 및 그 주변지역 주재 왜계인의 통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毛野의 재판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주9) 이 경우의 ‘임나’ 닮는 ‘주인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써 금관국의 왕을 지칭했거나 아니면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의 彌烏邪馬國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유력하다.
- (주10) 神功 49년조의 ‘南蛮枕彌多禮’에 대해서 【金鉉球 1993】는 전라남도 강진에 비정하고 있지만, 18페이지 주(39)에서는 탐라로 비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森公章, 1998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吉川弘文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만’의 관칭은 탐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 좋고 탐라가 백제의 부용국이 된 것은 5세기 말~6세기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도 그 시기의 백제 활동의 범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 (주11) 平野邦雄, 2007 <歸化人研究の諸問題> 《歸化人と古代國歌》(吉川弘文館).
- (주12) 【金鉉球 1985b】는 사료 38의 ‘임나 부흥회의’ II에서 문제가 된 백제의 군령·성주를 구례산 부근에 배치된 것으로 하고, ‘일본부’의 군사령부적 성격을 주장한다. 그러나 군령·성주가 배치된 ‘下韓’ ‘南韓’이 이 지역을 지칭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그 후의 경위를 보아도 구례산의 탈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라의 반 백제 기운으로부터 생각해도 안라와 卓淳의 경계 부근으로 보이는 구례산 주변으로 백제가 단숨에 군사 전개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구례산 주변의 병사 주둔은 II - ①의 방책이며, ②의 군령·성주 설치의 별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D설의 【奥田尙 1976】도 印支彌·許勢臣을 백제로부터 과견된 인물로 본다.
- (주13) 森公章, 2008 <「海北」から「西」へ>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吉川弘文館).
- (주14) 《일본서기》는 이 생탈전을 551·2년의 일로 보며, 欽明 12년 是歲條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同 13년 是歲條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未詳>”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欽明 11년(550)4월 庚辰朔條의 고구려인 포로 송부는 이 해의 전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주15) 사료 18의 사신 중에서 河內部阿斯比多是 그 이름으로부터 생각할 때 ‘일본부’의 구성원으로 보이며, 이 단계에서도 ‘일본부’ 내지는 그 잔존 세력이 가야 제국과 공동으로 외교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永植 1989】는 가야와 안라의 사신으로 보지만, ‘日本府臣’으로 불려지도 있다고 한다.

- (주16) 《일본서기》 欽明 22년 是歲條 “復遣奴氏大舍獻前調賦. 於難波大郡序諸蕃, 掌客額田部連·葛城直等使列于百濟之下而引導. 大舍怒還不入館舍, 乘船歸至穴門. 於是, 脩治穴門館. 大舍問曰, 爲誰客造. 工匠河內馬飼首押勝欺給曰, 遣西方無禮使者之所停宿處也. 大舍還國告其所言.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의 阿羅波斯山은 咸安의 城山山城으로 비정되며 여기에서는 목간이 출토되고 있어서 신라의 옛 가야 제국 지배의 방식이 밝혀지고 있다 【朴鍾益 2007, 李鎔賢 2007】. 또한 축성 목적에 ‘以備日本’이라는 것은 오히려 백제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바뀌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주17) 이상의 연구사는 速水侑, 1986 《日本佛敎史》古代 (吉川弘文館); 本郷眞紹, 2005 <『元興寺緣起』の再檢討> 《律令國歌佛敎の研究》 (法藏館) 등을 참조.
- (주18) 日羅獻策의 유효성을 제시하는 사항으로는 후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651년에 신라가 唐風화를 추진하여, 도래한 사신이 당풍 복장을 착용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이 주의를 끈다. 《일본서기》白雉 2년(651) 是歲條에는 “新羅貢調使知万沙滄等, 著唐國服泊于筑紫. 朝庭惡恣移俗, 訶嘯追還. 于時巨勢大臣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悔. 其伐之狀不須舉力, 自難波津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鱸舳, 召新羅問其罪者, 可易得焉”으로 되어 있어서, 선박을 每津列置하고 협박한다는 방식은 日羅獻策①의 집행을 기도한 것이었다. 이는 집행 대상이 백제가 아니라 신라이지만, 日羅獻策이 한반도 제국에 대한 왜국의 행동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남긴 것이 엿보인다.
- (주19) 【延敏洙 1992】는 元 高麗國왕의 食邑은 金仇衡의 사후(575년 이전에는 서거)에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고, ‘四邑之條’는 신라의 직접 수취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복속의 뜻을 표하는 ‘調’가 아니라, 철 자원 등 이전의 남부 가야와 왜와의 무역물자를 공여하고 신라가 왜국에 선진문물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일본서기》의 任那使人 來朝에 대한 기술(사료 21~26)에는 편찬 시에 조작이 있었다고 자리매김하고, 복속의 뜻을 보여주는 ‘調’의 송부라는 생각을 부정했다. 그러나 사료 26에 의하면, 왜국은 임나사의 來朝, ‘임나’의 존속이라는 형식의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신라도 그 허구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왜국의 ‘임나 부흥’이라는 요망에 부응한 형태를 제시한다는 합의 하에 실시된 외교 형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작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20) 黒田裕一, 1998 <推古朝における「大國」意識> 《國史學》 165는 《隋書》 각국전의 ‘大國’이라는 용례를 검토하고, 안으로 예절을 갖추어 유지함과 함께 예절 질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나라가 ‘大國’이며, 600년의 건수사 이후에 왜국이 禮制의 섭취를 추진한 것을 추진한 다음, 隋의 대 고구려 전쟁 수행을 위해 왜국이 창건한 ‘大國’적 구조를 隋의 예절 질서 사회에 편입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大國’의 의미는 그대로 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통교 관계에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본문과 같이 풀어 두고자 한다.
- (주21) 森公章編 《日本の時代史》3 倭國から日本へ (吉川弘文館); 明日香村編, 2006 《續・明日香村史》上卷 등.

## 〈표 1〉 백제와 신라의 가야 제국에 대한 침공

( 백 제 )	( 신 라 )
	* 5세기 후반부터 居染山國 등의 남부가야 제국은 신라의 영향 하에 있었다.
513(무령왕 13) 己汶에 침입	512(지증왕11) 何瑟羅州軍主異斯夫가 우산국(울릉도)을 항복시키다(참고)
514 대가야는 子吞·帶沙 축성하여 대항	
516 己汶을 확보 →나아가 帶沙에 진출하여 확보	
522 대가야는 신라에 구혼→신라와의 혼인동맹 성립	524(법흥왕 11) 금관국·喉己吞에 제1차 침공. 이 때 대가야 왕과 맹약
525(聖王 3) 백제와 신라가 交聘	
527 왜국은 近江毛野 파견을 계획	
529 近江毛野渡海 / 대가야는 신라와의 혼인동맹을 파기	529 금관국에 제2차 침공
531 안라에 진주하고, 구례산을 수비	531 탁순을 공격하고, 구례산을 함락하고, 탁순을 제압
	532 금관국 항복
※백제·신라 왕대는 교체가 있을 때만 注記했다	

## 〈표 2〉 ‘임나 부흥회의’의 참가자

국명	I 欽明 2년(541) 4월	II 欽明 5년(544) 11월
百濟	聖明王(聖王)	聖明王(聖王)
安羅	次旱岐 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下旱岐 大不孫·久取柔利
加羅	上首位 古殿奚	上首位 古殿奚
卒麻	旱岐	君
散半奚	旱岐兒	君の兒
多羅	下旱岐 夷他	二首位 訖乾智
斯二岐	旱岐兒	旱岐
子他	旱岐	旱岐
久嗟	-	旱岐
-	任那日本府臣 吉備臣	任那日本府臣 吉備臣

<표 3> 백제·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침공·略年表

- 557년 10월 백제,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략→敗退. 신라 안에 利西城을 축성.  
(위덕왕24 / 진지왕2)
- 587년 ○ 백제, 闕也山城(전북 익산군 여산면)을 얻다.
- 579년 2월 백제, 熊峴城(충북 보은군 내속리면)·松述城을 축성, 신라의 萩山城(慶北醴泉郡醴泉邑)·應峴城·內利西城으로 가는 길을 막다.
- 602년 8월 백제, 신라의 阿莫山城을 포위하다→敗退. (武王3 / 眞平王24)
- 603년 8월 고구려, 신라의 北漢山城(서울시 종로구 신영)을 공격→敗退. (嬰陽王14 / 眞平王25)
- 605년 2월 백제, 角山城(전북 정읍군 내장면 갈현)을 축성.  
8월 신라, 백제의 東邊을 侵略.
- 608년 4월 고구려, 牛鳴山城(함남 안변 서곡면)을 함락시키다.
- 611년 8월 백제, 赤岳城을 축성.  
10월 백제, 신라의 椴峯城(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을 멸망시키다.  
《611~614 隋의 고구려 征討》
- 616년 10월 백제, 신라의 母山城을 공격.
- 618년 ○ 신라, 椴峯城을 회복하다.  
《618 唐의 성립》
- 623년 백제, 신라의 勒弩縣(충북 괴산군 괴산면)을 습격.  
《623 唐, 조선 삼국을 책봉》
- 624년 10월 백제, 신라의 速含(경남 함양군 함양면)·櫻峯·岐峯·烽峯·旗懸·穴柵 6성을 취하다.
- 626년 7월 백제, 신라의 主在城(충북 청원군 문의면)을 공격하여 성주를 살해.
- 627년 7월 백제, 신라의 西鄙 두 성을 취하다.  
《627 唐,삼국 화친을 說諭》
- 628년 2월 백제, 신라의 椴峯城을 포위→敗退.
- 632년 7월 백제, 신라 攻伐의 發兵→ 불리.
- 633년 8월 백제, 신라의 西谷城을 취하다. (武王34 / 善德王2)
- 636년 5월 백제, 신라의 獨山城(경북 월성군 서면)공격을 계획하고,玉門谷(경북 월성군 서면천촌)에 북병을 두다→敗退.
- 638년 10월 고구려, 七重城(경기도 파주군 적성면)을 공격→敗退.  
(寶藏王21 / 善德王7)

※괄호 내의 王名은 백제왕·고구려왕·신라왕의 교체가 있는 경우만 표시했다.

## 〈표 4〉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왜국과 한반도 삼국의 통교

- 584년 9월 …백제로부터 歸朝한 鹿深臣이 弥勒石像1軀, 佐伯連이 佛像1軀를 將來.
- 587년 6월 …來朝한 百濟調使에 대하여, 大臣蘇我馬子が 善信尼 등의 渡航, 戒法學習을 依賴하는 것도 이때에는 이루지 못함.
- 588년 ○ …백제使가 來朝하여 仏舍利, 僧, 技術者를 헌상. 善信尼 등의 백제행이 실현.
- 595년 5월 …고려僧 혜자 來朝.  
○ …백제僧 혜충 來朝. 혜자와 함께 ‘三寶之棟梁’이 되다.
- 597년 4월 …백제왕자 阿佐가 朝貢.  
11월 …吉士磐金を 신라에 派遣.
- 598년 4월 …難波吉士磐金이 歸朝하여 까지 2마리를 헌상.  
8월 …신라가 公작 1마리를 貢上.
- 599년 9월 …백제가 駱駝1匹·驢1匹·羊2頭·白雉1隻을 貢上.
- 602년 10월 …백제僧 觀勒이 來朝. 曆本·天文地理·遁甲方術之書를 獻上.  
閏10월 …고구려僧 僧隆·雲聰이 來朝.
- 605년 4월 …고구려왕이 飛鳥寺 丈六仏에 黃金300兩을 獻上.
- 608년 6월 …遣隋使 小野妹子 등이 백제를 경유하여 歸朝.  
○ …신라인이 化來하다.
- 610년 3월 …고구려僧 曇徽·法定이 來朝. 曇徽은 彩色·紙墨·碾磑의 제조법을 전하다.
- 612년 ○ …백제로부터 路子工(芝耆摩呂)이 化來하여, 須弥山形·吳橋를 만들다.  
또한 伎樂에 능통한 味摩之도 오다.
- 615년 7월 …遣隋使 犬上御田鍬 등이 백제의 送使와 함께 歸朝.  
11월 …고구려僧 혜자가 귀국.
- 616년 7월 …新羅使가 仏像을 貢上.
- 618년 8월 …고구려가 對隋戰爭의 捕虜·戰利品을 보내다.
- 621년 ○ …新羅使가 朝貢하고, 上表문을 捧呈.
- 622년 7월 …新羅使·‘任那’使가 來朝하고, 仏像·金塔·舍利·大灌頂幡·小幡을 貢上. 遣隋留學生 등의 歸朝를 보내다.
- 625년 正월 …고구려僧 惠灌이 來朝. 僧正에 임하다.
- 630년 3월 …高麗使, 百濟使가 來朝.
- 632년 8월 …遣唐使 犬上御田鍬 등이 신라의 送使와 함께 歸朝. 唐使 高表仁도 同行. 遣隋留學生僧靈雲·僧旻 등도 歸朝.
- 635년 6월 …百濟使가 朝貢.
- 638년 ○ …백제, 신라·‘임나’가 朝貢.
- 639년 9월 …遣隋留僧 惠穩·惠雲이 신라 送使와 함께 歸朝.
- 640년 10월 …遣隋留僧 清安·學生 高向漢人玄理 등이 신라를 경유하여 歸朝. 백제·신라의 送使가 來朝하여 朝貢.

※출전은 《일본서기》

## 【참고문헌】

- 池内 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 井上秀雄, 1972 《朝鮮史》(日本放送出版協會)
- 井上秀雄, 1973a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ついて>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寧樂社)
- 井上秀雄, 1973b <任那日本府の行政組織>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寧樂社)
- 今西 龍, 1970a <加羅疆域考> 《朝鮮古史の研究》(國書刊行會)
- 今西 龍, 1970b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國書刊行會)
- 尹錫曉, 1993 《加耶國と倭地》(新泉社)
-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 《古代朝鮮と日本》(龍溪書舍)
- 請田正幸, 1987 <任那日本府> 《週刊朝日百科日本の歴史》41原始・古代8 邪馬台國と倭國
- 延敏洙, 1990 <任那日本府論> 《東國史論》24
- 延敏洙, 1992 <日本書紀の<任那の調>關係記事の検討> 《九州史學》105
-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古代文化》32-9・11・12→1999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吉川弘文館)
- 奥田尙, 1976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 大阪歴史學會編 《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吉川弘文館)
- 角林文雄, 1996 <任那・加羅・伽耶と倭> 《日本書紀研究》第20冊(塙書房)
- 笠井俊人, 1964 <欽明朝における百濟の對倭外交> 《日本書紀研究》第1冊, 塙書房→2000b 《古代の日朝關係と日本書紀》(吉川弘文館)
- 上川通夫, 2007 <ヤマト國家時代の仏教> 《日本中世仏教形成史論》(校倉書房)
- 鬼頭清明, 1976 <<任那日本府>の検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校倉書房)
- 鬼頭清明, 1992 <所謂<任那日本府>の再検討> 《東洋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篇17
- 金延鶴, 1977 《任那と日本》(小學館)
- 金鉉球, 1985a <日系百濟官僚>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 金鉉球, 1985b <<任那日本府>の實体>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 金鉉球, 1985c <蘇我・物部氏の紛争による日羅の召喚と對百濟關係の斷絶>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 金鉉球, 1993 <<神功紀>の加羅七國平定記事に關する一考察> 《翔古論聚》久保哲三先生追討記念論文集刊行會
-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大和政權と任那-》(勁草書房)
- 金泰植, 1985 <五世紀前半大加耶發展に對する研究> 《韓國史論》12
- 金泰植, 1988 <六世紀前半加耶南部諸國の消滅過程考察> 《韓國古代史研究》1
- 金泰植, 1993 <六世紀中葉加耶連盟の滅亡過程> 《朝鮮學報》146
-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29
- 熊谷公男, 2008 <金官國の滅亡をめぐる國際關係> 《百濟と倭國》(高志書院)
- 佐伯有清, 1983 <任那日本府はなかったのか> 《朝鮮・モンゴル》<世界の國シリーズ15>, 講談社→1986 《日本の古代國家と東アジア》(雄山閣出版)
- 坂本太郎, 1961 <繼體紀の史料批判> 《國學院雜誌》62-9→1964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東京大學出版會)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 <任那日本府>論 - >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1996 a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 鈴木英夫, 1996 <「任那日本府」(在安羅諸倭臣)の解体と高句麗> 《日本古代の國家と祭儀》(雄山閣出版)
- 鈴木英夫, 2006 <「任那日本府」と「諸倭臣」> 《國學院大學紀要》 44
-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政府及び倭問題 - 井上秀雄>《任那日本政府と倭》評を通して> 《歴史學研究》 405
- 鈴木靖民, 1983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講座日本歴史》 1 (東京大學出版會)
-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の変遷> 《千寛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正音文化社)
- 千寛宇, 1974 <韓國史の潮流 - 三國時代(抄)>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學生社)
- 千寛宇, 1983 <任那日本府管見> 《韓》 7-7
-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山川出版社)
- 田中史生, 2008 <六世紀の倭・百濟關係と渡來人> 《百濟と倭國》(高志書院)
- 鄭孝雲, 2005 <六世紀の東アジア情勢と<任那日本府>> 《日語日文學》 27
- 中野高行, 2007 <<日本書紀>における<任那日本府>像> 《新羅史學報》 10(《政治と宗教の古代史》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4 改訂版・韓國語譯)
- 西本昌弘, 1987 <東アジアの動亂と大化改新> 《日本歴史》 468
- 平野邦雄, 1985 <“任那日本府”の問題>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吉川弘文館)
- 古川政司, 1980 <六世紀前半の日朝關係> 《立命館史學》 1
- 朴鍾益, 2007 <咸安城山山城の發掘調査と出土木簡の性格> 《韓國出土木簡の世界》(雄山閣出版)
- 松波宏隆, 1994 <欽明紀<任那復興>關係記事と卓淳> 《龍谷史壇》 101・102
- 三品英彰,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卷
- 森公章, 2002 <加耶滅亡後の倭國と百濟の<任那復興>策について> 《東洋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篇 27→2008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吉川弘文館)
- 森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吉川弘文館)
- 森俊道, 1983 <任那日本府と加不至費直> 《東アジアの古代文化》 37
- 八木充, 1963 <任那支配の二形態> 《山口大學文學會誌》 14-2→1968 《律令國家成立過程の研究》(塙書房)
- 山尾幸久, 1977 《日本國家の形成》(岩波書店)
- 山尾幸久, 1980 <任那支配の實態> 《ゼミナル古代史》下 (光文社)
-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歴史》 2 (岩波書店)
- 李永植, 1989 <所謂<任那日本府>の語意について> 《早稻田大學學院文學研究科紀要》 16→1993 <任那日本府の實體>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吉川弘文館)
- 李永植, 1993 <いわゆる任那日本府に關する研究史>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吉川弘文館)
- 李弘植, 1936 <任那問題を中心とする欽明紀の整理 - 主要關係人物の研究 - > 《青丘學叢》 25
- 李鎔賢, 2002 <任那と日本府の問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0
- 李鎔賢, 2007 <咸安城山山城出土木簡> 《韓國出土木簡の世界》(雄山閣出版)

## 맺음말

이상 4·5·6세기의 왜국이 갖가지 연관을 갖고 한반도와 통교한 모습을 정리해 보았다. 한반도에서 왜인의 활동 흔적은 여러 곳에서 인정되지만, 왜국의 영토가 존재했다는 이해는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시기에는 왜 왕권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의 유력 호족도 독자적으로 한반도 제국과 통교할 수 있었으므로, 다원적 국제관계를 상정해야 한다. 후대에 있어서의 국경선의 확정과 엄밀한 영역 개념은 아직 성립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제국 등이 각각 영역을 확정하고 왕권을 확립해 가는 도상에 있었다. 왜국도 백제·고구려 등에서 모델을 찾아가며 왜 왕권이 급속히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중앙집권적 통치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광개토태왕비문에 그려진 왜의 군대 전개 규모는 확실치 않으므로 제쳐 두기로 하고, 그밖에 해당 시기에 있어서의 왜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파병은 ‘竹斯鳴上諸軍士’라 불리우는 九州의 호족을 주체로 하여 대체로 최대 1000명 규모였다. 따라서 왜국이 대대적인 군사 전개를 했다는 이해에는 재검토·정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국이 만 명 규모의 군대를 도해시킨 것은 7세기 후반의 백제부흥운동 지원 단계가 처음이며, 그 과정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7세기의 일한관계를 검토할 때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